

1부 |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본문 9~10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1 예시 답안

01 ②

02 (1) ○ (2) × (3) × (4) ○

03 ㉠: 해, ㉡: 달밤, ㉢: 청산, ㉣: 눈물 같은 골짜기, ㉤: 아무도 없는 뜰

■ 박두진, 「해」

〔해제〕 이 작품은 광복 직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어둠이 지배하는 부정적인 세계는 가고 밝음이 지배하는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해’와 ‘달밤’에 대한 태도를 부각하는 한편, 음성 상징어나 활유적 표현 등을 통해 ‘해’가 도래한 희망적 공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 내고 있다.

주제 평화와 공존의 세계에 대한 소망

구성

- 1연: ‘해’의 도래에 대한 염원
- 2연: ‘달밤’에 대한 거부
- 3연: ‘해’가 도래한 상황에 대한 가정
- 4, 5연: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모습
- 6연: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

01 6연에서 해가 도래한 청산에 모여 앉은 대상으로 ‘꽃’, ‘새’, ‘짐승’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등에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정서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이글이글’, ‘휘훨훨’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휘훨훨 깃을 치는 청산’에서 활유적 표현을 통해 청산이 주는 역동적인 인상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니가 오면 ~ 청산이 좋아라’, ‘너를 만나면 ~ 옛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등에서 가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1) 1연의 ‘솟아라’에 쓰인 ‘-아라’는 기다림의 대상인 ‘해’에게 모습을 드러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 2연의 ‘싫어’에 쓰인 ‘-어’는 ‘달밤’에 대한 거부를 단순하게 서술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3연의 ‘좋아라’에 쓰인 ‘-아라’는 해가 도래한 청산에서 느낄 기쁨과 그에 대한 감탄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6연의 ‘-리라’는 화자가 소망하는 바, 즉 해가 도래한 청산에서 ‘옛되고 고운 날을 누’리는 상황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03 세상을 밝히는 ‘해’는 밝음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해’가 부재하는 ‘달밤’은 이와 대비되어 어둠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또한 화자는 2연에서 ‘달밤’의 공간으로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을 제시한 후, 3연에서 ‘해’가 도래한 공간으로 ‘청산’을 제시하면서, ‘청산’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평화와 공존을 형상화하고 있다.

2강 시의 내용

본문 12~13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2 예시 답안

01 ㉡,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만 점층적으로 이어 지지는 않음.

02 ㉠: 안타까움, ㉡: 이별 / 헤어짐

03 ⑤

가 매화, 「매화 옛 등걸에 ~」

〔해제〕 이 작품은 유명했던 기녀인 매화가 지은 것으로 전한다.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모셨던 평안 감사가 나중에 춘설(春雪)이라는 이름의 젊은 기생을 가까이하자 이를 원망하며 지었다는 유래를 참조해 보면,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구성

- 초장: 매화 옛 등걸에 봄이 돌아옴.
- 중장: 꽃이 피기를 기대함.
- 종장: 춘설로 인해 꽃을 피우지 못함.

14 이원익, 「녹양이 천만사인들 ~」

〔해제〕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이원익이 지은 작품이다. 버드나무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가는 춘풍을 잡아 둘 수 없고, 벌과 나비가 아무리 꽃을 탐내도 지는 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어찌할 수 없다는 체념의 태도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임’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다.

주제 사랑하는 이와는 피할 수 없는 이별

구성

- 초장: 버드나무 가지가 많아도 춘풍을 잡지 못함.
- 중장: 벌과 나비가 꽃이 지는 일을 막지 못함.
- 종장: 사랑이 중해도 가는 임을 잡지 못함.

15 작자 미상,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

〔해제〕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서 임의 지극한 사랑을 예찬한 작품이다. 임의 사랑을 여러 가지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가시적인 형상으로 보여 주면서 그 사랑의 지극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수록된 20여 개 가집 중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만 박문옥이라는 작자명을 밝히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표시하였다.

주제 임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예찬

구성

- 초장: 매우 매우 넓은 임의 사랑
- 중장: 매우 매우 길고 친밀한 임의 사랑
- 종장: 지극한 임의 사랑

01 (나)의 초장과 중장은 대구를 이룬다. 그러나 중장이 초장에 비해 한층 더 심화된 수준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점층적이라 할 수 없다. (가)의 마지막 문장 ‘하야라’에는 감탄형의 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다)의 초장에서는 ‘그물’에, 중장에서는 ‘참외 넝쿨’, ‘수박 넝쿨’에 빗댄 표현을 통해 임의 사랑이라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을 수식하는 다양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임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다.

02 (가)에서 매화나무는 관찰의 대상이다. 화자는 봄철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한다. (나)에서 초장에 제시된 녹양과 춘풍의 관계 및 중장에 제시된 봉접과 꽃의 관계는 중장에서 화자와 떠나가는 임의 관계와 동일시된다. 녹양과 춘풍의 관계 및 봉접과 꽃의 관계로부터 화자는 사랑과 이별의 이치를 유추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떠나가는 임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03 (나)에서는 임이 떠나가는 상황이므로 현재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임이 떠나간 이후인 미래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서는 임의 사랑이 지극한 현재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연속되는 미래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본문 15~17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3** 예시 답안

01 (1) ○ (2) × (3) ○

02 ⑤

03 이 작품은 이념 대립의 양상이 가족 공동체 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6·25 전쟁을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할머니의 자식인 삼촌은 빨치산이 되고 외할머니의 자식인 외삼촌은 국군이 된 상황에서,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자 외할머니가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윤홍길, 「장마」

〔해제〕 이 작품은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6·25 전쟁을 겪으며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참전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갈등하게 되지만, 할머니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이들의 갈등은 용서와 화해로 해소된다.

주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참상의 극복

전체 줄거리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시골의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할머니네와 같이 살게 된다. ‘나’(김동만의 삼촌은 빨치산이 되어 산속 생활을 하고, 국군 소위인 외삼촌은 소대장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어느 날 외할머니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후부터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으로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활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예언한 날이 되어도 이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는 졸도를 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

는데, 외할머니는 구령이에게 말을 붙이며 위로하고 동네 아낙의 말에 따라 머리카락을 태워 구령이를 내보낸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다.

01 (1) 이 글에 제시된 ‘나’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형사에게 양과자를 얻어먹은 뒤로 아버지로부터 근신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자신을 용서할 권한이 할머니에게 있다고 하였다. 또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나’는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백정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할머니는 ‘나’가 형사에게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글에서,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사라지고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였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자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 이 글을 통해,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이튿날 외할머니가 건지산 쪽으로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음을 알 수 있다.

02 [C]에서 서술자인 ‘나’는 주동 인물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여 주기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C]는 서술자인 ‘나’와 주동 인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동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외할머니를 언급하며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멈 하나’라고 표현한 것은 할머니가 불쌍하고 초라하다는 ‘나’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 시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부차적 인물로서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에 비해 객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에는 외삼촌을 잃은 외할머니의 처지에 대한 정보가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에 비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B]의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이라는 어구는, 이 어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이라는 표현은 내용 전달의 객관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표현 이후에 제시된 내용에는, 할머니가 나를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백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나’에 대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B]에는 전쟁이 나자, 외갓집 식구들이 할머니 집에 머무르게 된 과정, 삼촌과 외삼촌의 행적, 외삼촌의 전사 통지와 외할머니의 저주,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과정 등 ‘나’의 외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약적 제시의 내용들은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의 모습을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이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03 이 글에, ‘난리’, ‘국군’, ‘빨치산’, ‘인민군’ 등의 어휘가 사용된 것을 통해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사회·역사적 배경이 6·25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국군으로 입대해 외삼촌의 전사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자식인 삼촌이 가담한 빨치산을 저주하면서 두 주동 인물 사이에 치열한 말싸움과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본문 19~22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4 예시 답안

01 ③

02 ④: 구제하기(구하기, 구원하기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문맥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 ⑥: 농락하기(희롱하기, 조롱하기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문맥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

03 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④해제 이 작품은 역사 속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서사의 형식이 기존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전우치의 행적과 도술을 부리며 일으킨 사건들을 삽화적으로 나열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여러 가지 도술을 사용하여 악한 벼슬아치나 타락한 중에게 벌을 주고,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을 농락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전우치전」이 「홍길동전」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보고 주제의 측면에서 두 작품을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사회 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주제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전체 줄거리 천상 선동이었던 전우치는 고려 말 처사 전문화와 최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지상에 내려온다. 전우치는 여자로 변

신한 여우에게서 호정(여우의 낮이 담긴 구슬)을 받아먹고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고, 세금사에서 만난 구미호를 징치하여 천서(天書)를 얻어 온갖 술법과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 전우치는 도술을 부려 임금을 희롱하고 악한 벼슬아치와 도적의 무리를 혼내 주기도 하는 한편 사방을 돌아다니며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준다. 나라에 공을 세워 벼슬을 얻기도 하였으나 역모 혐의를 받게 되자 조정에서 도망쳐 나온다. 상사병이 든 친한 벗을 위해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현혹하다가 강림도령에게 제지당하고,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굴복한 후 서화담을 따라 영주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게 된다.

01 우치에게 족자를 받은 한재경은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한재경이 창고에서 ‘은자 백 냥을 가지고 나오’다가 관리들에게 걸려 결박당했을 때 호조 판서가 족자의 출처를 묻자, 한재경은 호조 판서에게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아뢰’고 우치의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람들이 장계창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우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치가 구름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간 것이다.
- ② 한재경이 고직에게 은자 백 냥을 꿰 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자 고직은 창고 문을 열었을 뿐, 우치의 허락 없이 은자를 빌려준 것은 아니다.
- ④ 호조 판서는 한재경에게 창고 안에 들어간 이유와 족자의 출처, 전우치와의 만남에 관하여 영문을 묻고 난 뒤, 그를 가두고 전우치와 같은 도적의 한패로 간주한다.
- ⑤ 임금은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라고 말하며 괴이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전우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임금은 호조 판서가 요구한 한재경의 처형을 단번에 허락한다.

02 ㉠, ㉡, ㉢에서 나타난 우치의 도술은 어려움에 빠진 백성이나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 ㉤, ㉥에 나타난 우치의 도술은 임금이나 관리와 같은 지배층을 혼란에 빠뜨리고 곤욕을 겪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능한 지배층을 ‘농락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3 한재경은 고직에게서 하루 한 냥의 은자를 얻어서 쓰다가 백 냥을 꾸어 쓰려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리느냐’라고 말하며 저항한 것은 관리들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의롭게 저항하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우며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본문 24~27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5 예시 답안

01 ③

02 ⑤

03 ㉠: 수재 연금 마련을 위한 기부, ㉡: 경제적

■ **함세덕, 「고목」**

【해제】 이 작품은 봉건 의식과 일제 잔재를 타파하고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친일 지주였던 주인공 박거복은 땅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뒤뜰의 고목도 수해 복구를 위해 헌납하지 않으려 한다. 처남네의 빈한한 삶에 그 나무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오직 존경하는 애국 투사 오 각하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를 위한 바둑판이나 화로의 재료로만 나무를 쓰려 할 뿐이다. 그러나 군수 벼슬이라도 한자리 얻으려는 박거복의 욕심은, 오 각하의 지도력에 대한 마을 사람들과 가족의 회의에 맞부딪치면서 그 명분을 잃게 된다. 게다가 마을 안의 정치적 판도마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거복은 결국 수해 복구를 위해 고목을 내놓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거복에게 있어 고통스러우리만큼 강압적인 것이어서, 고목이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거복의 아쉬움이 팽팽한 긴장을 이룬다. 이 작품에는 상징 기법의 활용, 치밀한 사건 전개 등 작가의 능숙한 솜씨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해방 직후 출세 지향적 인물의 욕망과 좌절

【전체 줄거리】 박거복은 마을의 대지주이자 애국당의 재정부장이자 대폭우가 마을을 휩쓴 여름의 어느 날,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에서 당대 정치를 이끌던 오 각하가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 박거복은 이번 기회에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행자나무를 베어 바둑판을 만들어서 오 각하에게 바침으로써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 오 각하가 마을에 오던 날, 거복은 흑이 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 대화장에 가지 않고 어머니와 딸 수국을 대화장에 보내 행자나무 기부 의사를 자기 대신 전하라고 시킨다. 그러나 대화장에 다녀온 노모로부터 기부 신청도 안 하고 대화장을 일찍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복은 몹시 화를 낸다. 하지만 자신이 재정부장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거복은 오 각하에게 행자나무를 기부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핏김에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청년 단원들에게 행자나무를 기부하겠다고 말해 버린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거복은 이내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엇된 일로 하려고 하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의 힘에 떠밀려 결국 행자나무는 거복의 눈앞에서 베어진다.

01 인물들이 나누는 대사를 구어체로 표현하여 대화에 실재감을 더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행자나무’는 거북이 일황의 정전 방송이 있기 전에 해군에 공출하기로 했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는 오남의 각하의 별장을 짓는데 헌납하기로 한 대상이다. 이처럼 ‘행자나무’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용 방법을 바꾸며 거북의 영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중심인물의 출세를 향한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어서며’, ‘마루에서 내려와’ 등의 행동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동작 및 위치 이동을 지시하고 있다.
- ④ ‘해방’, ‘독립’, ‘일황의 정전 방송’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방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오남의 각하’는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 ‘오 각하의 내임을 기회’로 ‘행자나무를 각하게 바치기’를 했’다는 말 등을 통해 오남의 각하의 사회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02 ㉠은 거북이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말하는 장면이다. 의기양양하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흘린 땀을 닦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이 들릴까 봐 긴장된 상황에서 흘린 땀을 닦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행자나무를 팔 것을 부탁한 동생이 거북에게 거절당한 뒤, 누나인 거북의 처가 동생을 위로하는 장면이므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동생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독이는 어조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전재민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영팔이 여러 번 망설이다가 매부인 거북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누이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며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동정이 행자나무를 기부할 것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거북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듣고 당황하여 말을 더듬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말을 들은 인물이 당황한 모습을 행동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거북이 동정과 대립하는 장면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흥분하고 있다. 거북이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점점 감정이 격렬하게 높아지는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03 거북과 동정의 갈등은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으로 해방 공간의 혼란한 이념의 대립을 보여 준다. 거북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면서 이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한자리를 얻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오 각하에게 뇌물을 만들어 바치려 하면서 이를 마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처럼 합리화한다. 반면 동정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청년단 대표로 활동하며 수해 동포를 구원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법의 하나로 거북에게 행자나무 기부를 요구한다. 영팔은 식민지 수탈에 희생당한 전형적인 민중의 모습을 대변한다. 영팔은 처자식을 궁핍으로부터 면하게 하겠다는 마음 즉,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로 행자나무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거북은 영팔과 달리 행자나무를 선조로부터 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지주로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6강 고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본문 29~30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6 예시 답안

01 ④

02 ③

03 ㉠: 춘추 오패, ㉡: 고려 말엽의 여러 임금들

■ 이곡, 「차마설」

(해제) 이 글은 ‘말을 빌려[借馬]’ 닦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도리에 대한 깨우침을 제시하고 있는 ‘설(說)’ 양식의 한문 수필이다. 설(說)은 대체로 어떤 경험적 사실로부터 깨달은 이치를 다른 사태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글에서도 글쓴이는 노둔한 말과 준마를 빌려 탄 각각의 경우에 자신의 자세와 감회가 다름을 인식하고, 자기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도 그 자세와 감회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사람이 가진 것이 사실은 모두 남에게서 빌린 것인데도 사람들이 모두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것인 양 행동하면서 반성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창작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대입해 보면 당대의 무능하거나 부패했던 왕들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로도 읽을 수 있다.

(주제) 권력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은 남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세상사의 이치

■ 구성

- 도입: 둔마와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자세와 기분의 차이
- 중간: 자신의 소유물은 모두 남들에게 빌린 것
- 마무리: 글을 쓴 동기와 취지

01 ‘노둔하고 야원 말’을 빌려 탈 때 글쓴이는 불안감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불안감 때문에 글쓴이는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둔하고 야원 말’은 불안감을 유발하여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노둔하고 야원 말이 글쓴이가 연민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를 표상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말 주인의 처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짐작할 만한 단서는 찾기 어렵다. 또한 글쓴이가 가난하다고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노둔하고 야윈 말을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글쓴이가 준마를 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둔하고 야윈 말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02 선생님이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은 ㉠의 임금이나 대부가 처한 상황과 상통한다고 했으므로, ㉠은 결국 임금이나 대부가 환란을 당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상황은 임금이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대부가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은 임금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하거나 대부가 스스로 권력을 내놓고 물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이처럼 권력을 강제로 되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처럼 스스로 때를 택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면, ㉡에서처럼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식의 해석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권력을 빼앗기는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어긋난다. 남에게 마땅히 권력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와 같은 해석도 문맥과 부합하지 않는다.

03 이곡이 살던 당시에 고려를 다스렸던 임금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곡은 맹자가 춘추 오패를 비판한 논리에 기대어 이곡 생존 당시의 임금들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이 글을 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금하는 전근대적 인습이 힘을 발휘하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한다. 이러한 결말에 대해 독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이어 왔는데, 한편에서는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별’로 이해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근대적 인습으로 인해 재혼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의 슬픔과 고통’으로 이해한다.

주제 전근대적 인습으로 인해 좌절된 안타까운 사랑

전체 줄거리 아버지서 고인이 된 옥희 아버지의 친구이자 옥희 큰외삼촌의 친구로, 동리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면서 옥희의 집에서 하숙하게 된다. 옥희는 아버지서 묵는 사랑방에 자주 놀러 가며 아버지를 따르게 되고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옥희가 벽장에 숨어 소동이 난 날의 이튿날, 어머니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꽃을 뽑아 온 옥희는 얼떨결에 아버지서 전하라고 한 꽃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는 그 꽃을 품금 위에 놓아 둔다. 이후 아버지서 옥희를 통해 쪽지를 보내고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한다. 마침내 어머니는 옥희를 통해 손수건을 전하고, 손수건 안 편지에 담긴 어머니의 뜻을 확인한 아버지서는 하숙을 그만두고 떠난다.

01 (1) ‘그 아버지서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라는 부분을 통해 아버지서 옥희 아버지의 친구이자 학교 교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버지서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라는 부분을 통해 아버지서가 자신의 달걀을 옥희에게 나눠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옥희가 아버지서에게 호감을 느끼며 자신의 달걀을 아버지서와 나눠 먹는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3)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갈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 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버지서에게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어머니가 옥희를 통해 종이를 넣은 손수건을 아버지서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02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옥희 하나면 그만이야.’라는 말은 어머니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두고 고심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쪽지를 보내기 전 옥희에게 하는 말이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의 두 흐름에서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작품을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별’로 이해하는 흐름으로 본다면 이 말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관계나 감정보다는 자녀인 옥희의 삶을 우선시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정리하는 모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 작품의 주제를 ‘전근대적 인습으로 인해 재혼의 욕망을 포기하는 여성의 슬픔과 고통’으로

7장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본문 32~34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7 예시 답안

01 (1) ○ (2) × (3) ○

02 ㉠: 옥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정리하는 모정. ㉡: 전근대적 인습을 의식하면서 재혼의 욕망을 억누르려는 마음

03 ㉢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해제 이 작품은 193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남녀평등과 자유연애 등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도 여성의 개가(改嫁)를

이해하는 흐름에서 본다면 이 말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자녀의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혼의 욕망을 억누르고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보기>의 선생님이 소개한 「결혼에 요하는 삼대 조건」에서는 작가가 남녀의 관계나 만남이 봉건적 풍속이나 전근대적 인식에 예속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속 인물의 말은 ㉠으로, 옥희의 외삼촌은 내외의 관습에 따라 사랑에 출입하지 않는 누이의 행동이 '요새 세상'에 비추어 뒤쳐진 것임을 비꼬고 있다.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본문 36~39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8 예시 답안

01 (1) ○ (2) × (3) ×

02 ㉠

03 ㉠

■ 이근삼, 「놀부전」

해제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소재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대본이다. 이 작품 속 뮤지컬에서는 「흥부전」을 재해석하여 놀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는데, 원작의 주제인 권선징악을 유지하되,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인물들 등장시켜 탐관오리의 횡포,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가 지닌 모순,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는 행위의 긍정성,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권선징악과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

전체 줄거리 막이 열리고, 연출가와 지휘자가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공연장에 놀부가 난입하여 뮤지컬에서 자신을 악하게 그렸으며 화를 낸다. 그리고 300년 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한다. 무대가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자 원작처럼 부자인 놀부가 가난한 흥부를 구박한다. 어느 날 흥부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준 후 부자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러자 제비 왕은 도깨비들을 이끌고 와 놀부를 혼내 주고, 놀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한다. 다음 날 어사의 명으로 동원에 끌려간 놀부는 현감에게 당한 일을 말하고, 어사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현감을 파직한다. 이후 어사는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설파한 후, 주민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한다. 춤과 노래가 끝나자 연출가와 지휘자가 등장하여 놀부와 흥부에 대해 제 나름의 평가를 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01 (1) 연기자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뮤지컬이 마무리된 후, '무대는 개막 때의 연습장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연출가와 지휘자가 등장하여 뮤지컬의 내용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자, 우리 배짱이들, 노래나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라는 연출가의 말을 통해 이 작품이 뮤지컬을 연습하는 장면 속에 「흥부전」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제비'는 어사로서 인격이 부여되어 있고 그를 통해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동물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3) 이 작품에는 300년 전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연습하는 장면이 나온다. 뮤지컬의 연출자와 지휘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뮤지컬 속 인물인 놀부와 흥부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만, 공연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2 이 작품에는 원작에는 없었던 놀부의 아들 풍금이 등장하여 제비의 정체를 밝힌다. 풍금은 어사가 된 제비를 보며 놀라워하지만, 제비가 어사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놀부는 구두쇠, 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욕심이 많은 인물이지만 현감에게 재산을 강탈당한 후에는 어사 앞에서 '이젠 노욕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지난날 했던 일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② 풍금의 말을 통해 어사가 작은아버지인 흥부의 집에 있던 제비임을 알 수 있고, 이 제비는 인간을 심판하는 어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 지휘자가 등장하는데, 지휘자는 공연된 사건에 나오는 놀부에 대해 욕심은 많지만 악하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공연에서는 어사가 현감에게 벌을 주고 놀부를 반성하게 하며 주민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알려 준다. 그 후 연기자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이는 사건 속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03 이 작품의 연출가는 흥부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농부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예술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흥부를 배짱이처럼 노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흥부를 원작과는 달리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으로 흥부의 예술가적 면모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지 그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감은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한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당대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현감은 자신을 심판하는 어사를 보며 여자에게 걸렸다며 한탄하고, 이에 어사는 오죽하면 주상 전하가 여성을 밖으로 나오게 하였겠느냐고 말한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 ③ 주민들이 놀부를 보며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고 질책하자 어사는 그들을 꾸짖으며 놀부가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라면 칭찬받아야 하고, 그런 놀부를 본받아 열심히 일해 돈을 벌라고 한다. 이는 정당한 부의 축적을 옹호하는 현대적 관점의 평가라 할 수 있다.
- ④ 어사는 인간이 상부상조하며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강조한 뒤 노래를 통해 이러한 뜻을 전달한다. 「흥부전」 원작의 주제는 권선징악인데, 이 작품에는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있다.

구성

- 1연: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
- 2연: 이웃집 주인의 모멸 속에서 당신을 봄.
- 3연: 장군의 능욕에 항거하면서 당신을 보고, 방황 속에서 당신을 봄.

01 (1)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2연의 3행, 3연의 3행과 5행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2) ‘~습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당신’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화자를 향한 특정인의 발화가 인용되어 있어 대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통해 사회적 소통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인용된 부분은 ‘윤리, 도덕, 법률’이 ‘칼과 황금’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부에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국권을 상실한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국권이 상실된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상황으로 보더라도 윤리와 도덕, 법률이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부재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당신’을 조국으로 보면 화자인 ‘나’는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선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조국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국민을 위함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땅’과 ‘집’과 ‘민적’이 없는 것은 곧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와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는 모두 ‘당신’이 가신 후에 핍박을 받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는 조국을 잃은 국민으로서 시인의 설움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는 국권 상실이라는 부정적 현실에서 시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좌절로 인한 정신적인 방황과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2연에서는 ‘인격’이 없는 것을 모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고, 3연에서는 ‘인권’이 없는 것을 능욕의 이유로 들고 있다.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본문 41~42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9 예시 답안

01 (1) ○ (2) ○ (3) ×

02 ④

03 ㉔: 인격, ㉕: 인권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제〕 이 시는 ‘당신’이 가고 홀로 남아 절망적인 상황을 겪던 화자가 온갖 사회적 규범이 권력과 금력을 위해 봉사하는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당신’을 보게 되면서 다시 극복의 의지를 품게 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가 현실에서 겪는 굴욕과 모멸은 2연과 3연에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통의 극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화자는 ‘당신’을 보고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이 임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절망의 상태에 놓였던 화자가 희망과 의지를 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제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

2부 | 적용 학습

01 고전 시가

본문 44~45쪽

01 ③

02 ②

03 ④

가 득오, 「죽지랑가」

〔해제〕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하는 신라 시대의 8구 체 향가로서 화랑 죽지랑의 낭도였던 득오가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와 작가의 창작 목적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으나, 일연이 이 작품을 기록하여 남긴 것은 죽지랑의 고귀한 인품을 드러내어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 대한 다양한 해독이 있는데, 지문의 현대어 풀이는 양주동의 해독을 따랐다.

주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

구성

- 1, 2구: 죽지랑과 함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 3, 4구: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림.
- 5, 6구: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 7, 8구: 죽지랑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나 이의, 「화왕가」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의 설총에 대한 기록에서 전하는 「화왕계」를 바탕으로 지은 한시이다. 「화왕계」는 꽃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빗대고, 왕에게 바른 도리로 정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은 「화왕가」에도 이어져 왕에게 충간하는 신하와 충신의 말을 겸허히 수용하는 왕의 모습이 작품에 잘 나타난다. 작가는 「화왕계」를 활용함으로써 왕도 정치와 충신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제왕의 바른 도리를 일깨운 설총의 업적과 그에 대한 예찬

구성

- 1, 2행: 신하가 임금에 대해 「화왕가」를 노래함.
- 3~6행: 화왕의 다스림과 임금의 변심에 대한 염려
- 7~12행: 백두옹과 같은 군자가 등용되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충간함.
- 13~16행: 임금이 신하의 충간을 수용하고 나라의 태평과 화합을 이룸.
- 17, 18행: 설총이 한 일에 대한 예찬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낭이여’와 (나)의 ‘설총 스승이여’에서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으로 삼은 주요 인물을 명료하게 부각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경우 ‘서러워 시름’하는 ‘모든 것’에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의 경우 ‘꽃’을,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그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조하여 애상감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공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만, 이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것이 아니다.

④ (가), (나) 모두 과거의 시간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는 있지만 후회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의 경우 화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의 우화를 전하고 있다.

⑤ (가)에는 자연물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진홍색 연자색 꽃’에서 자연물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길을 걷는 화자가 만나게 되는 험난한 공간을 의미한다. 낭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미련은 변함이 없으므로, ㉠을 낭과의 재회를 체념한 화자가 위로를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는 ‘짧은 시간이라도’라는 뜻으로, 잠시라도 낭을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임금이 간신의 외적인 화려함과 교태에 미혹되어 정사를 그르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는 충성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군자를 천거하는 것과 현인을 가까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 어떤 인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것을 뜻한다.

⑤ ㉤은 미혹이 풀린 화왕이 각지에서 꽃들을 모은 결과로서, 임금이 각지의 인재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이자 조정에 인재들이 모여든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골짜 속의 머리 허연 백두옹’은 쇠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진홍색 연자색 꽃’은 백두옹의 과거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외양으로 임금에게 교태를 부리는 부류를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낭'을 만나지 못하는 고 통스러운 상황에 서러움과 시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낭과 '눈 돌이킬 사이어나마 / 만나 뵈'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할 때, 역사적 인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견뎌 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역사적 인물인 죽지랑은 과거의 젊었던 시절인 '간 봄'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것과는 다르게, 현재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는 쇠락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과거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아름다운 꽃들의 '온갖 교태'에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라가 겪었던 역사적 위기를 '온갖 풍파'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설총 스승'의 '보물 피리 소리'와 같은 역할에 그 풍파가 멎게 되었다고 노래하면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한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역사적 인물인 설총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 ⑤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서 화자가 '낭'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현재, 과거의 죽지랑과 같이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쇠락했거나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인물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화자는 나라를 위해 임금에게 '이 한마디'의 간언을 해 줄 '설총'과 같은 인물이 여전히 필요한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과 정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춘신연주지사'의 시초가 되며, 조선 시대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연결된다. 이 작품은 15세기 문헌인 『악학궤범』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 지문에 제시된 노랫말은 『악학궤범』에 실린 것을 현대어 표현으로 일부 윤문한 것이다.

주제 임을 향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 자신의 결백 호소

구성

- 1~4행: 임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
- 5~10행: 임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결백에 대한 호소, 참소를 당한 슬픔
- 11행: 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4 민사평, 「소악부」 중 <제6장>

해제 고려 후기의 문인 민사평이 지은 소악부로, 자신의 벗인 이재현의 소악부에 화답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 버린 임에 대한 화자의 저주 섞인 원망을, 거미·꽃·나비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부시는 백성의 노래를 읊긴 한시 또는 민간의 풍속이나 백성의 고단한 삶을 읊은 한시를 가리킨다. 소악부는 짧은 형식의 악부시로서 칠언 절구(7개의 한자가 한 행을 이루고, 총 4행으로 이루어진 한시)의 형식을 취한다. 민사평이 지은 소악부는 그의 저서인 『금암시집』에 실려 있으며, 지문에 제시된 작품은 총 6수 중 여섯 번째 작품이다.

주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

구성

- 1, 2행: 거미에게 거미줄을 쳐 달라고 부탁함.
- 3, 4행: 부탁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힘.[자신을 버리고 다른 꽃(=다른 연인)에게 날아가는 나비(=임)가 거미줄에 걸려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 함.]

02 고전 시가

본문 46~48쪽

01 ⑤

02 ④

03 ④

가 정서, 「정과정곡」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시대의 문인 정서가 유배지에서 지은 고려 속요이다. 제목은 정서의 호가 '과정(瓜亭)'인 데에서 비롯했다. 정서는 인종과 동서 사이로, 내시낭중이라는 벼슬을 지냈다. 인종의 총애를 받다가,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하자 참소를 입어 동래(현 부산시 동래구)와 거제에서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했다. 유배를 떠날 때 의종이 곧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자신의 심정을 담아 지은 노래가 이 작품이다. 유배지에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사에서 유배 문학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아울러 군신 관계를 넘겨 관계로 치환하여 화자의 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와 (나) 모두 어떤 존재가 화자를 떠난 상황을 시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적 상황에서 (가)의 화자는 명시적 청자인 임에게 말을 건네면서, '산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울러 '낮이라도 임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 '입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라고 말하며 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의 화자는 '거미야'라고 명시적 청자인 거미를 부른 후 자신을 저버린 나비가 곤경에 빠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건네면서, 나비 또는 나비로 상징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적 상황에서 비롯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억울하게 입과 이별한 상황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내적 갈등의 해소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나)에서 화자의 현실(입이 자신을 떠남.)을 나타내는 ‘날아가는’과 화자의 바람(입이 곤경에 처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과 관련되는 ‘걸리계’를 넓은 의미에서 시어의 대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어의 대비가 이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 ③ (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나)에서도 문답의 형식은 쓰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와 (나)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두 작품 모두 개인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쓰인 작품이므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02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 물음의 방식으로 진술된 표현은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와 ‘입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이다. 전자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화자의 마음과 자신을 포함했던 자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고, 후자는 자신을 잊은 입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드러난다. <보기 2>에서 명령적 어조로 진술된 표현은 ‘옳고 그름됨은 묻지를 마오’로, 이 표현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가)의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와 <보기 2>의 ‘옳고 그름됨은 묻지를 마오’는 모두, 자신을 잊은 입에 대해 화자의 원망과는 무관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 2>는 ‘봄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계절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계절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보기 2>는 ‘매일같이 입 생각에 옷깃이 젖어’, ‘응당 잔월효성은 알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결백에 관해서만 노래하고 있다. 반면, (가)는 마지막 행에서 ‘아아 입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라고 말하며 입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아니며 거짓인 줄’, ‘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의 말이랍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 2>에서는 3, 4행에서만 자신의 결백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어, (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축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와 <보기 2>는 각각 ‘내 입을 그리워해 우니나니’와 ‘매일같이 입 생각에 옷깃이 젖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둘 다 입을 그

리워해 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보기 2> 모두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화자를 떠난 나비가 날아가서 머물고 있는 곳이 ‘꽃’이다. 그러므로 입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꽃’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를 입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와 입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볼 때, ‘나를 등지고 날아가’ 버린 ‘나비’는 화자를 버리고 떠난 ‘입’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꽃’은 입이 화자를 떠나서 새로 만나고 있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해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산 접동새’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말하며 둘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우기던 이’는 화자를 포함하여 곤경에 빠뜨린 인물을 나타내며,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명확하게 알아줄 존재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잔월효성’이 인간과 대비되어 옳고 그름을 알아줄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나)에서 화자는 입에게 이별당한 시적 상황에서 입에 대한 원망과 입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미’에게 하는 부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입이 화자를 저버린 상황과 자신을 저버린 입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나비’·‘꽃’·‘거미’와 같은 자연물을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의적인 맥락에서 볼 때 화자를 ‘등지고 날아’간 ‘나비’는 화자를 저버린 입을 나타내는 소재로 이해된다.

03 고전 시가

본문 49~50쪽

01 ④

02 ⑤

03 ④

㉠ 이현보,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귀향하여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본받아 지은 시조이다.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작가의 지향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

구성

• 초창: 귀거래를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세태

- 중장: 전원으로 돌아갈 때에 대한 인식
- 종장: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

나 김천택, 「강산 좋은 경을」~

【해제】 이 작품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작가의 심정이 반영된 시조이다. 작가는 신분적 제약으로 입신양명이 좌절되자 삶에 갈등을 느끼고 은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마음

구성

- 초장: 자연 경관에 대한 상황의 가정
- 중장: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
- 종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식

다 작자 미상, 「공명을 헤아리니」~

【해제】 이 작품은 세속적 공명의 헛됨을 드러내며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사실시조이다. 작가는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삶의 마지막까지 자연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

구성

- 초장: 공명의 영예로움과 욕됨
- 중장: 전원생활에서의 유유자적함
- 종장: 자연에 몸을 맡긴 삶에 대한 만족감

01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은 실제로 '귀거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화자가 '귀거래'를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만남을 기대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에서 화자는 '힘센 이'가 '강산 좋은 경'을 다룬다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이를 얻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만남을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은 '귀거래 귀거래 말뿐'인 사람과 달리 '귀거래'를 실천하는 대상이므로, 말로만 '귀거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강산 좋은 경'을 ㉡과 다룬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힘과 분수로는 이를 얻기 힘들다고 여기고 있다.
- ③ (나)에서 화자는 ㉢이 없으므로 '강산 좋은 경'을 두고 노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이 없다고 하였으며, (나)에서 화자는 ㉤이 없다고 하였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한다는 것에는 전원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라는 것에는 공명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드러날 뿐, 미래 상황이나 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동문에 쾌관'한다는 것에는 화자가 벼슬에서 물러난 상황이 드러날 뿐, 벼슬을 그만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는다는 것에는 '성경현전'을 읽고 '약'을 캐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전원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뿐, 타인의 능력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뒷뒵에 엄긴 약도' 캔다는 것에는 화자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일상의 모습이 드러날 뿐,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다는 것은 이후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뒵에 엄긴 약도' 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 작가의 모습으로, 학문을 멀리하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전원이 장무'하다는 것은 돌보지 못해 전원이 거칠어 간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벼슬살이를 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니 가고 어쩔고'를 볼 때, 작가가 이제 벼슬살이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함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어 얻을쏘니'라고 한 것을 볼 때, 작가가 '힘센 이'와 다른 자신의 신분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중인 신분으로서 사대부에 대해 신분상의 위화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나)에서 '나도 두고 노니노라'라고 한 것을 볼 때, 작가는 자연에 대해 현실과 달리 '금할 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도 흥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을 현실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다)에서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한 것을 볼 때, 작가가 전원에서 한가롭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라고 한 것을 볼 때, 작가는 이러한 전원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고전 시가

본문 51~52쪽

01 ⑤

02 ⑤

03 ①

가 이신의, 「사우가」 중 〈제2수〉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노년에 회령(會寧)으로 귀양 가서 지은 총 4수의 연시조 「사우가」 중 제2수에 해당한다. 작가는 「사우가」에서 자신의 고고한 절개를 소나무·국화·매화·대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는데, 제2수는 찬 서리에 혼자 피는 국화의 맑고 고결함을 예찬한 것이다.

주제 서리 속에 홀로 피는 국화에 대한 예찬

구성

- 초장: 국화의 고귀함을 모르는 세태
- 중장: 찬 서리에 혼자 피는 국화
- 종장: 청고한 벗인 국화

나 김창업, 「거문고 술 꽃아 놓고 ~」

〔해제〕 이 작품은 벼슬자리를 멀리하며 전원애 은거하고자 하였던 작가의 풍류와 여유를 잘 보여 주는 평시조이다. 거문고를 연주하다가 낮잠에 든 화자의 모습에서 평온함과 한가로움이 느껴지며, 그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벗에 대한 반가움과 그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주제 한가한 전원생활과 벗에 대한 반가움

구성

- 초장: 거문고를 연주하다 술대를 꽃아 놓고 낮잠에 들.
- 중장: 벗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
- 종장: 벗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함.

다 작자 미상, 「여화 세상 벗님네야 ~」

〔해제〕 이 작품은 부귀공명의 헛됨과 짧은 인생의 허무를 한탄하며 놀면서 인생을 즐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는 사설시조이다. 세상을 호령하며 최상의 부귀공명을 누리 황제들도 결국에는 늙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생에서의 유희에 당위성을 부여한 점이 인상적이다.

주제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 대한 한탄과 놓고 싶은 마음

구성

- 초장: 부귀공명의 헛됨.
- 중장: 노화와 죽음으로 가는 인생길
- 종장: 놀면서 인생을 즐기기를 권유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두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봄별’과 차가운 느낌을 주는 ‘서리’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소재를 대비하여 차가운 계절에 피

어나는 국화의 속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화자의 취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는 ‘아이’에게 ‘외상 탁주’를 내라고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난다. 하지만 (가)에는 ‘누가 아나’와 같은 물음의 말하기 방식이 사용되나 이는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이 아니다.

② (가)에는 ‘누가 아나’, ‘~너인가 하노라’와 같은 지문자답의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지만, (나)에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개 짖’는 소리에 대해 화자가 벗이 온다고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청각적인 인식을 활용하여 정적이던 공간의 분위기가 동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는 화자의 청각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타날 뿐, 타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하기를 촉구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진시황’, ‘한무제’의 영원한 삶을 위한 노력이 부질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한 것은 맞지만 그 삶의 방식에 공감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가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못 면할 손 그 길’이라고 한 것에서 삶과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백 년도 못 사는’ 존재라며 수명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있다.

③ 화자는 인생을 ‘초로’, 즉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헛되고 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아니 놓고 무엇 하리’라고 말하며 즐기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공도라니 백발이요’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을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로 판단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자연물인 ‘국화’를 벗으로 인식하여 교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청고’한 삶에 대한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현실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므로,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을 보여 준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의 벗은 화자가 반가워하며 ‘점심’과 ‘탁주’라는 소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은 화자가 친숙하게 생각하며 ‘호젓이 낮잠’을 자는 화자의 심심함이나 지루함을 달래 줄 수 있는 사람이면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만나기를 바랐기에 반가워하며 맞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③ (다)의 벗은 ‘세상 벗님네’로서 불특정한 다수가 지칭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자는 이들과 속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깨달음인 ‘부귀도 뜬구름이요 ~ 무엇 하리’라는 인생의 가치를 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 ④ (가)의 벗은 화자가 가졌으면 하는 ‘청고’함이라는 내면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벗은, 화자가 ‘점심’, ‘외상 탁주’를 같이하며 여유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⑤ (가)의 벗은 ‘국화’라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너’라고 지칭되는 방식으로, (다)의 벗은 ‘벗님네야’와 같이 불려서 화자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청자로 설정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보기>에 따르면 말을 건넌 수 있는 대상으로서 벗을 설정하는 것은 작가의 사상을 독백체로 단조롭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해 주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

- 제6수: 오륜을 아는 것의 당위성
- 제7수: 학업 수양의 중요성
- 제8수: 이웃 사랑의 중요성

01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의 ‘백’은 인간의 삶이 유한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삶이 백 년도 채 못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길지 않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한’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기 이전의 자식을 비유한 ‘풀’의 짧은 길이를 나타낸 것이지,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크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② ㉒의 ‘열’은 죽음의 일회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이지, 임금의 능력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③ ㉓의 ‘백’은 부부가 함께 사는 한평생의 시간을 강조한 것이지, 생사를 초월한 부부의 인연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④ ㉔의 ‘일곱’은 구멍이 뚫린 인체 기관을 환기하여 사람으로서 오륜을 아는 것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오륜의 의미를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1수>의 ‘봄 이슬’과 <제4수>의 ‘한 젓’은 가정 안에서 자녀의 생육을 가능하게 하는 부모의 은혜를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혈육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3수>를 중심으로 <제1수>는 가정 안의 혈육 관계인 ‘부자’, <제4수>는 가정 안의 혈육 관계인 ‘형제’이고, <제2수>는 가정 밖의 비혈육 관계인 ‘군신’, <제5수>는 가정 밖의 비혈육 관계인 ‘봉우’로 대칭되고 있다.
- ③ <제2수>와 <제5수>는 비혈육 관계로 대칭을 이루는데, <제2수>의 ‘임의 덕’을 잊지 않는 태도는 군신 관계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제5수>의 ‘친후’한 사이는 서로 친하여 정이 두터운 사이로 친구 간의 관계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 ④ <제2수>는 ‘대의를 모르’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중놈’과 비교하여, <제4수>는 ‘뜻을 모르’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금수’와 비교하여 각각 임금에 대한 충과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함으로써 작품의 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제3수>의 ‘두 성이 한데 모여’는 비혈육 관계이면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를 의미한다. 이

05 고전 시가

본문 53~55쪽

- 01 ⑤ 02 ② 03 ②

■ 박선장, 「오륜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신인 박선장이 지은 총 8수의 연시조로, 교훈적 성격을 지닌다. 제수에서 제5수까지는 오륜(부자, 군신, 부부, 형제, 봉우)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의 중요성을 차례로 노래하고, 나머지 세 수는 오륜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난(亂)을 덧붙여 오륜의 당위성, 학업 수양의 중요성,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가 구만서당이 완성되었을 때 이 시조를 지었다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오륜 역시 선각자를 통해 배워서 체득될 수 있는 실천 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오륜의 실천 강조와 학업 수양의 중요성

구성

- 제1수: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것의 중요성
- 제2수: 임금의 덕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
- 제3수: 부부간 공경하는 자세의 중요성
- 제4수: 형제간 우애의 중요성
- 제5수: 친구 간 신의의 중요성

는 종장에서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아니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며 공경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5수>는 '뽕밭이 바닷물'이 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친구 사이의 믿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뽕밭이 바닷물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도 친구 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 자식을 '한 마디도 못' 되다가 '봄 이슬 맞은 후에' 크게 성장하는 '풀'에 비유하며 부모의 은혜가 크고 깊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③ <제6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우' 시절을 지나 '한당송'으로 국가는 변하지만, '오류이야 모르랴'고 하며 오류의 가치를 아는 것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제7수>에서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가속 당서'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세태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다며 학업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8수>에서 이웃을 미워하면 '한 고을' 나아가 '한 나라가 다 버'린다고 말하며 이웃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06 고전 시가

본문 56~59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④

■ 김진형, 「북천가」

〔해제〕 이 작품은 철종 때 김진형이 함경도 명천으로 귀양을 간 경험을 노래한 장편 가사이다.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내력과 유배지에 있는 유생들과의 교류,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유배지에 있는 기생들과의 풍류와 연정 등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의 체험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묘사와 서술은 조선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현법과 예술적인 형상화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수록 부분에서는 북관에서 그곳 수령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북관에 있는 칠보산을 유람하게 된 계기와 칠보산 관람의 견문과 감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구성

- 서사: 유배를 가게 된 계기와 심정
- 본사 1: 한양에서 북관까지의 유배 여정
- 본사 2: 북관에서의 융숭한 대접과 칠보산 유람
- 본사 3: 북관에서 명천까지의 유배 여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본사 4: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한 기쁨
- 결사: 유배 생활에 대한 평가와 자기 위로(군산월과의 인연을 생각함)

01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㉗는 본관이 유배 온 화자에게 '죄 없이 오는 줄' 알고 있고, 백성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라고 위로하며 '함께 노십시오'라고 권유하는 말이다. ㉘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기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후에 수노에게 하는 명령으로 기생들과 호사스럽게 보낸 것을 불안해하며 앞으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고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㉗는 유배지에 오게 된 상대방의 상황에 백성이 슬퍼한다고 하며 공감하고 있는 말이지만, ㉘는 화자가 수노에게 자신의 입장에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행동을 지시하는 말이다.

② ㉗는 상대가 유배 온 상황이 죄 없이 온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말이므로, 상대의 잘못을 덮어 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㉘는 칠보산 유산에서 호사스럽게 보냈음을 인정하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㉗는 유배지에 온 상대방이 슬퍼하지 않고 함께 유희를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하기를 바라는 말이다. 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에게 다시는 기생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㉗는 상대에게 함께 놀자고 권유하는 말이므로 명령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㉘는 칠보산 유산 때 기생을 데려간 것은 본관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방어하는 말이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㉘는 군산월의 빼어난 거동을 본 후에 반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화자의 정서를 감탄형 어미를 통해 드러낸 것이지, 군산월에게 마음을 빼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경내의 선비들이 화자에게 배움을 청하며 모여드는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 명’까지 되었다고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목숨을 ‘실낱’에 비유하며 본관과 주인의 배려 덕분에 살아가는 힘든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은) ~고’의 반복을 통한 대구적 표현으로 화자가 감탄하며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절집에서 마주한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시각과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0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산수 유람을 하면서 군산월 등의 기생들과 풍류를 즐긴 경험이다. 화자는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돌아와서는 군산월과 함께 놀던 일을 떠올리며 ‘전생인가 꿈속인가’라고 말하며 아득하게 여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 제시된 경험 이후에 화자는 수노에게 지난 일이 호사스러워 불안하다고 하며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하라고 명령을 한다. 따라서 선비로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으로 여긴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화자는 본관의 배려로 귀양지에서 산수를 유람한 것이지, 군산월의 배려로 산수 유람을 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군명이 엄하여도 함께 풍류를 즐겼던 군산월에게 반할 정도로 군산월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A]에서의 경험을 귀양살이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 ⑤ 화자는 [A]에서 기생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겼으나 역사를 회고한 것은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자가 군산월의 앓은 모습을 ‘꽃’에 비유하며 군산월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것은 맞지만, 수노에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하라고 명령한 것은 유배에서의 풍류 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이지 군산월과의 애정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유배 온 사람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면서 풍류를 즐기자는 본관의 권유를 물리치며 표면적으로 풍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②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가 심심하면 글을 외우고 시와 술에 마음 붙여 편히 날을 보내는 모습은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보다는 풍류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화자가 주민들이 입은 옷과 먹는 양식에 대해 말한 것은 유배지의 여정에 따라 보거나 들은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화자가 칠보산 유람 후에 호사스러워 불안하다고 하며 기생들 못 오도록 지휘하고 선비만 데리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것은 유배 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07 고전 시가

본문 60~63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⑤

■ 작자 미상, 「용부가」

(해제) 이 작품은 『초당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태 가사로, 게으르고 나태한 두 여성의 행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성 인물의 행실을 나열하여 보여 줌으로써 당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행실이 어떠한지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구성

- 서사(1~3행): ‘저 부인’에 대한 소개
- 본사 1(4~20행): ‘저 부인’의 행실 열거
 - 시집 식구들을 모함함.
 - 담배와 점치기로 시간을 허비함.
 - 몸치장에만 신경을 씀.
 -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음.
 - 양반임에도 술집을 하려고 함.
- 본사 2(21~47행): ‘뺨덕어멈’의 행실 열거
 - 남의 말을 전하기를 좋아함.
 - 불공이나 무당굿으로 재산을 탕진함.
 - 군것질을 좋아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음.
 - 이간질과 음담패설을 좋아함.
- 결사(48~51행): 옳은 일에 힘쓰고 그른 일을 멀리하라는 당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긴 장죽이 벗님ियो’를 통해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긴 장죽이 벗님’이라는 구절과 ‘문복하기 소일’이라는 구절은 ‘저 부인’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짐을 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의 ‘삼살개 뒷다리’와 ‘털 벗은 솔개미’는 이상하고 불품없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뽕덕어멈’이 자신의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③ ㉡에서 화자는 ‘줄어지고’와 ‘늘어 가네’라는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뽕덕어멈’의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는 ‘며느리를 쫓았으니’와 ‘딸자식을 데려오니’와 같이 ‘목적어 + 서술어’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뽕덕어멈’이 자신의 며느리와 아들, 딸, 그리고 딸의 시댁에 야기한 부정적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는 ‘흐뭇하다’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뽕덕어멈’이 관의 노비가 된 상황에 대한 통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저 부인’은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여승을 따라 가솔하거나 나물을 뜯는 것을 핑계로 시댁을 벗어나고 싶어 할 뿐, 여승이 ‘저 부인’의 처지를 알고 가솔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계염스런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 야유테기 시누이’라는 구절을 통해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저 부인’을 시샘하고 빈정거린다는 내용이 편지에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② ‘거세도다 남노여복 들며 나며 흠구덕에 /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라는 구절을 통해 ‘저 부인’의 시댁 종들이 ‘저 부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내용이 편지에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③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 되었어라’라는 구절을 통해 ‘저 부인’이 믿었던 남편마저도 더 이상 ‘저 부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편지에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④ ‘요악하다’는 ‘요사하고 간사하며 악독하다.’라는 뜻을, ‘여우’는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교활하다’의 의미는 ‘간사하고 꾀가 많다.’라는 의미이므로, ‘아우

동서’와 ‘씨앗년’ 모두 간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 조상은 젓혀 놓고 불공하기 위업이라’와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가지 다 나가고’는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뽕덕어멈의 행위이며, ‘물레 앞 씨아 앞은 선하품 기지개라’는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뽕덕어멈’의 행위이다. 또한 ‘거세도다 남노여복 들며 나며 흠구덕’은 아랫사람을 제대로 통솔하고 지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저 부인’의 행위이다. 그러나 친정 부모 대접하는 도리(㉣)와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로 비판할 수 있는 ‘저 부인’과 ‘뽕덕어멈’의 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저’와 ‘그’는 말하는 이와 떨어져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서, [A]의 ‘저 부인’과 [C]의 ‘그러한가’, [E]의 ‘저 거동’은 모두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거리감을 통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 부인’과 ‘뽕덕어멈’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멀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저 부인’이나 ‘뽕덕어멈’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중간에’ 인물에 대한 소개가 삽입된다는 내용을 통해 ‘뽕덕어멈’에 대한 소개가 [C]에 제시된 이유는 이 작품에서 화자가 소개하는 인물이 ‘저 부인’과 ‘뽕덕어멈’이라는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는 자신의 몸치장에만 신경을 쓰며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저 부인’의 행실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D]에서는 아이 핑계를 대며 군것질을 하고, 집안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다른 이들을 이간질하는 ‘뽕덕어멈’의 행실을 나열하고 있다.

③ [E]에서 화자는 ‘저 부인’과 ‘뽕덕어멈’의 거동을 자세히 본 후에 그 큰 줄을 알면 그 행실을 고치는 것에 힘을 쓰고, 옳은 행실은 실천에 옮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논평은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보기>의 진술에 해당한다.

④ [A]와 [C]에서는 각각 ‘저 부인’과 ‘뽕덕어멈’을 지칭하고 있는데, 두 인물은 모두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E]에서 화자는 그런 행동은 고치고, 옳은 행동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당부하며 그런 일과 옳은 일에 대한 대처를 다르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08 고전 시가

본문 64~66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②

■ **홍정유, 「동유가」**

〔해제〕 이 작품은 일기 형식을 차용하여 금강산 유람 경험을 노래한 국문 가사이다. 날짜별 여정, 경유지의 지명, 견문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전기 기행 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서정성과 유교 이념이 탈색된 반면 여행 중의 행위, 사건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거나 지방 풍속, 생활, 경물 등을 묘사하는 등 여행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주제 금강산 유람 경험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동

구성

- 서사: 금강산 여행의 동기
- 본사 1: 금강산까지의 여정
- 본사 2: 금강산에서의 유람 경험
- 결사: 금강산 여정에 대한 감회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을 인용한 부분 ‘만물초 가는 길이 ~ 분하지 않겠는가’를 통해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물초를 구경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총석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여행 계획이 변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금강산의 폭포를 보며 감탄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경관에 대해 점차 심화되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② 여행지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연 풍경을 감상하지만, 이로부터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시간의 선후 관계를 드러내며 공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장오고개에 대해 길이 굽어지고 가파르다는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풍속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메산골의 풍속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화자가 관찰한 폭포에 대해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이라는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으나, [B]에는 안개로 인해 만물초를 구경하지 못한 화자의 경험이 드러나 있을 뿐 관찰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금강산의 폭포를 묘사한 부분으로,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B]는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내려갔다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여 총석으로 향하는 부분으로 공간 이동에 따른 경물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A]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B]는 화자가 직접 들은 말을 인용하여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내려갔던 상황을 실감 나게 전하고 있다.
- ④ [B]는 화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상상을 바탕으로 시·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A]에는 ‘삼천 척’, ‘백여 길’ 등 구체적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폭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뿐,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B]는 ‘왕복 칠십 리’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만물초 가는 길을 나타낸 것인지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또한 ‘만이천 봉우리’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금강산 봉우리를 나타낸 것인지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0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화자가 ‘수십여 간’ 놓여 있는 ‘다리’를 기준으로 한쪽은 김성이고, 다른 한쪽은 회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으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두메산골’의 ‘풍속이 수수하여 /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 ② 화자는 일행과 ‘장오고개 넘어갈 때 / 길은 굽어지고 돌사다리가 험하’고 언덕이 가파르고 높다며 장오고개를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 ④ 화자는 ‘주막집 바로 곁에’ 있는 ‘우물집’을 구경한 후에 만물

초를 구경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지만 기상 상황으로 인해 발길을 돌린다.

⑤ 화자는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하였으나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만류하는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보러 가기로 한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는 화자가 여정 중에 살펴본 지역에서 넉넉하게 사는 집의 형태가 어떤지 설명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 문화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철원을 지나 금강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찰한 지역민의 농사짓는 모습을 지역의 밭 특성과 관련지어 묘사한 부분이다.

③ ㉢은 초사일 저녁 날씨 상황과 일행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일기 형식을 통해 여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은 화자가 이동 중에 본 하루의 모습과 이와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

⑤ ㉤은 금강산 폭포를 구경하고 금강문에 내려와서 남여를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고,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되는 거리에 있는 주막집으로 가는 화자의 이동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09 고전 시가

본문 67~69쪽

01 ⑤

02 ④

03 ②

가 작자 미상, 「나물 캐는 노래」

〔해제〕 이 작품은 주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산이나 들에서 나물을 캐면서 불렀던 노동요로, 독창 또는 교환창 형식으로 가창되었다. ‘나물 캐는 노래’로 불리는 노동요는 전국에 두루 나타나는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나물을 많이 채취하게 해 달라고 하는 기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의 연애가 주 내용인 노래인데, 본문에 수록된 노래는 후자에 해당한다. 남녀의 연애를 주로 다루는 「나물 캐는 노래」는 흥겨움을 더해 나물 캐기라는 노동의 고단함을 줄여 주는 한편, 나물 채취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젊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적절히 해소해 주기도 했다. 이 작품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에서 1982년, 신만영이 가창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주제 젊은 남녀들의 나물 캐기와 그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인정과 연정, 유희의 정서

구성

- 서사(1~3행): 강원도 금강산으로의 유람을 권유함.
- 본사 1(4~7행): 이른 아침에 출발해 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나물 캐기의 과정
- 본사 2(8~14행): 젊은 남녀들이 서로 점심밥을 나누어 먹는 모습
- 결사(15, 16행): 젊은 남녀들의 다양한 모습과 유희

나 작자 미상, 「사랑을 찬찬 엮동여 ~」

〔해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일이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힘들어도 사랑을 이어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추상적 대상인 사랑을 동여매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특징으로, 화자는 임을 사랑하는 일을 무거운 짐을 몸에 친친 동여매고 높은 산의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에 빗대어 그 일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남들이 만류할 만큼 그 일이 힘들지만 힘들어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사랑을 향한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주제 임을 사랑하는 일의 힘겨움과 임과의 사랑을 지속하려는 의지

구성

- 초장: 동여매 지고 가는 짐과 같은, 임을 향한 사랑
- 중장: 남들이 만류할 만큼 임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
- 종장: 임을 향한 사랑을 단념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다 작자 미상,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

〔해제〕 이 작품은 모시 삼기라는 여성의 노동을 소재로 사용해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추상적 대상인 사랑을 구체적 사물인 모시실에 빗대어, 임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진 모시실을 이어 붙이듯이 그 사랑을 다시 잇겠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주제 임과의 사랑을 오래 이어 가려는 소망과 의지

구성

- 초장: 모시실을 삼는 모습
- 중장: 모시실을 삼다가 그 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음.
- 종장: 임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진 모시실을 이어 붙이듯이 그 사랑을 다시 잇겠다는 의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와 (다)의 공통 제재는 임과의 사랑이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이지만 (나)의 화자는 그것을 지고 가다가 ‘자 질려 죽을’지도 모를 만큼 힘겨운 짐에 빗대어, (다)의 화자는 끊어지면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는 모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처럼 추상적 대상인 사랑을 그 속성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임과의 사랑이 지닌 '힘듦'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사랑이 끊어져도 다시 이어 가겠다는 바람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 힘든 사랑을 무거워서 지고 가기 힘든 짐을 통해 표현한 것, (다)에서 끊어져도 다시 잇고 싶은 사랑을 끊어져도 다시 이을 수 있는 모시를 통해 표현한 것은 모두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첫닭의 울음으로 이른 아침을 나타낸 것은 첫닭의 울음과 아침이 오는 현상이 서로 인접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유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임과의 사랑에 '버리고 가'야 할 무거운 짐으로 표현한 것은 임과의 사랑과 무거운 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라는 말은 임과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에 대한 벗님네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해당 구절이 화자의 체념을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백년 기억이 완연하네'라는 말은 점심밥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젊은 남녀 사이에 싹트는 연애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된장 한 술을 붙여 놓고'라는 말은 앞에 나온 '수박씨 같은 콩보리밥에'라는 구절과 연결되어 남 도령의 초라한 점심밥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지, 남녀 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아니다. (다)의 '한가운데 푹 끊어지거늘' 역시 은유적으로 쓰인 표현이 아니라 모시를 삼다가 모시의 올이 끊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말이다.

④ (나)의 '그 모른 벗님네'는 입 향한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입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와 무관하며 화자의 태도를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다. (다)의 '호치단순으로 흠뻑며 감뻑아'라는 말도 작품의 맥락에서는 끊어진 모시의 올을 잇는 실제 동작을 묘사한 표현일 뿐, 모시 삼는 여성의 모습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은 먹음직스러운 점심밥을 싸 온 서 처녀와 초라한 점심밥을 싸 온 남 도령이 서로의 점심밥을 나누어 먹는 장소이므로 서로 인정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니 놀고서 뭇 할 건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즐거운 유희의 공간이기도 하다. (나)에서 화자는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라고 말할 만큼 힘든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찬찬 엮동여 뒤섞어 지고 / 태산준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은 화자가 상상을 통해 가상으로 설정한 상황 속에 등장하는 공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나물을 캐고 유람을 하기 위해 남 도령, 서 처녀가 향한 장소이다. ㉡으로 간 목적에 나물 캐기가 있으므로, ㉠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은 입을 사랑하는 일이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는 일처럼 힘든 것을 입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화자가 가상으로 설정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 생계를 위한 노동의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나물을 캐러 온 젊은 남녀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백년 기억' 즉 혼인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완연'한 장소이다. 따라서 ㉠을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은 사랑에 수반되는 힘겨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시된 가상의 공간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임과의 사랑이 마치 짐을 지고 ㉡을 넘는 것만 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은 삶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부각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가)의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아니 놀고서 뭇 할 건가'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은 경치를 감상하며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은 삶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과는 무관하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쓰고 뚫은 돌가지나물'에서 '쓰고 뚫은'은 화자가 캐는 나물 중 하나인 돌가지나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나물 캐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처럼 나물 캐기에 필요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표현에는 '올방돌방에 사까리나물'의 '올방돌방'이 있다. '둥글둥글'의 뜻을 지닌 '올방돌방'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물 캐는 사람들은 자신이 캐야 하는 사까리나물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올라가면서 올고사리'에서 '올라가면서'는 나물의 특징을 알려 주지도, 나물 캐기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지도 않는다. 이 표현은 말소리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산 밑에 남 도령', '서산 밑에 서 처녀'는 말소리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를 통해 노동 행위를 할 인물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노랫말의 놀이적 성격이 두드러진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늦개사리', '사까리나물'은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나물의

이름으로, 나물 캐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사실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노랫말 안에 열거되는 나물 이름들에서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가)는 먹음직스럽게 잘 갖춰진 ‘서 처녀 밥’과 엉성하고 초라한 ‘남 도령 밥’을 대비하여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아울러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도 살리고 있다. 따라서 대구와 대조를 활용한 표현을 사용해 노랫말의 놀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여우 같은 쌀밥’, ‘수박씨 같은 콩보리밥’은 각각 ‘서 처녀’의 먹음직스러운 점심밥과 ‘남 도령’의 초라한 점심밥을 ‘여우’와 ‘수박씨’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우’와 ‘수박씨’의 비유를 사용해 점심밥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다 재미있게 드러냄으로써 노랫말이 지닌 놀이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결사: 한왕이 불살항군 한다 해도 갈 곳 없는 초패왕의 가련한 상황을 드러냄.

ㄴ 정철, 「장진주사」

〔해제〕 이 작품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사실시조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작가 정철의 호방한 성품이 잘 드러나는 권주가로 분류된다. 초장에서는 꽃을 꺾어서 술잔 수를 셈하는 낭만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중장에서는 죽은 후에 무덤에 가는 모습과 세월이 지나 무덤에 찾아와 술을 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종장에서는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밝히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현재의 즐거움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술을 권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잊으려 함.

구성

- 초장: 술을 권하며 술에 취할 것을 권유함.
- 중장: 이 몸이 죽은 후에 이 몸에게 술을 권할 사람이 없을 것임을 안타까워함.
- 종장: 살아 있을 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 것을 죽은 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음을 드러냄.

10 고전 시가

본문 70~73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가 작자 미상, 「초한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잡가(좌창)의 일종으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을 때 한신이 진을 치는 장면, 장자방(장양)의 옥토소 소리에 초패왕 항우의 군사들이 사기를 잃게 되는 장면, 항우의 한탄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좌창’은 서도 소리에 해당하며, 앉아서 하는 소리를 말한다. 사설이 길고 대부분 통절로 되어 있으며, 한문 투가 많고 수심이 조로 마무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도 좌창은 원전이 있어 그것을 각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래들은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예능인 집단에 의해 전승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향유층도 양반 사대부 계층이거나 그에 필적하는 경제적, 지적 기반을 가진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 초한승부에서 패배의 위기에 놓인 초패왕의 심정과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병사들의 애통한 상황

구성

- 서사: 만고영웅 호걸들에게 초한승부 들어 볼 것을 권함.
- 본사 1: 한패공의 백만대병이 십만대병하여 초패왕이 장중에서 죽을 위기에 처함.
- 본사 2: 전장검흔이 될 병사들을 떠올리며, 낯을 들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본사 3: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을 기다리는 고향의 부모님과 처자들을 언급하며 살아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을 밝힘.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의 화자인 ‘나’는 ‘오묘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 하는’ 사람으로, 전체 맥락상 ‘초패왕’이나 그의 부하 장수로 볼 수 있다. [C]는 죽을 처지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는 낯두리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청자는 화자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 화자가 ‘초강 백성’들을 청자로 삼아,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화자는 청자를 ‘만고영웅 호걸들아’라고 호명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때 청자는 잡가를 듣는 관객들이나 잡가를 읽는 독자들로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이들을 ‘만고영웅’, ‘호걸’에 빗대어 추켜올리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작품의 내용과 관련지어 ‘절인지용’보다 ‘순민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B]의 청자는 ‘잠 못 드는 저 군사’이다. [B]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자 또한 ‘변방만리’에서 ‘패왕’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에서 화자는 ‘초패왕’의 패배와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초한승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와 [B]의 화자는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초’나라나 ‘한’나라에 속해 있는 인물은 아니다.
- ⑤ [C]는 초패왕이나 그의 부하 장수를 화자로 삼아 속마음을 드러낸 부분이다. ‘내 평생 원하기를’의 ‘나’는 전쟁에 이겨 ‘금고를 울리며’ 돌아가는 상황과 전쟁에 패망하여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초한승부’에서 이기지 못한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시적 상황에서 ‘애비’는 초패왕을 따라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군사들을 의미한다. ‘어린 자식’이 젓 달라 보채고, ‘철난 자식’이 슬피 우며 애비를 불러 대는 것은 아버지가 전쟁에 동원된 후 가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어미’의 고달픈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집이라고 들어가’ 자식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주체는 ‘애비’가 아니라 ‘어미’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1, 2행에서 초패왕의 ‘절인지용 부질없’음을 언급한 뒤 초패왕이 처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행의 내용을 통해 ‘한패공의 백만대병’이 ‘초패왕을 잡으’려고 ‘거리거리 북병이요 두루두루 매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5행에 언급된 ‘한신’, 9, 10행에 언급된 ‘이좌거’와 ‘장자방’은 모두 한나라 진영의 신하들로 ‘초한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③ ‘장자방’은 ‘옥통소를 슬피 불어’ 초패왕의 군사들인 ‘팔천제자’를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11~14행에 제시된 상황은 ‘사면초가’라는 고사와 관련이 깊다.
- ④ 30행에 제시된 ‘부모님’은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의문하여 바라보’고 있고, 31행에 제시된 ‘처자들’은 남편을 기다리며 ‘이마 우에다 손을 얹고 뒀에 올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초패왕’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있기에 행복할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의 ‘이 몸’의 경우 인간이 제한된 시간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몸’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젠가 올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초패왕은 한패공에게 패배한 후 ‘역진하여 장중에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나)의 ‘이 몸’은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술을 마시고 있다. ‘초패왕’은 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자신 또한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몸’은 술을 마시면서 ‘이 몸 죽은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계속 마실 수 있는지 상상해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상황은 자신 또한 언젠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초패왕은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올리면서 ~ 어이 보리’에서 알 수 있듯이 불행히 패망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나)의 ‘이 몸’은 죽어서 무덤에 ‘가기곳 가면’ 누가 자신을 찾

답 ⑤

아와 ‘한잔 먹자’고 권할 것인지, 죽은 후의 상황을 떠올리며 염려하고 있다.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한탄하거나 죽음으로 인해 좋아하는 것을 못 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초패왕은 패망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진하여 장중에 죽’을 듯이 싸우려 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살아 있는 지금 ‘한잔 먹새그러’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 ‘지금-여기’, 즉 살아 있는 순간에 대응하는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 ⑤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어테로만 같거나’라고 하며 초패왕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이 몸’은 종장에서 자신의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부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상상이다. ‘초패왕’의 고민이 계속 살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몸’의 상상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린 것이다.

0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①은 이웃집 사람이 자기가 빚은 술을 가지고 와서 함께 마시려고 할 때, 그 술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누구’, 즉 이웃(‘장부’)이 전쟁 중에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①은 화자(‘이 몸’)가 죽은 이후에 화자의 무덤에 찾아와 ‘한잔 먹자’라고 말할 사람(‘누’)이 아무도 없는 상황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①은 ‘어느 장부’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①은 ‘이 몸 죽은 후’에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③ ①이 ‘남산하에 장찬 밭’을 갈아 줄 ‘장부’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장부’가 떠나 버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①이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술을 담글 사람이 없어서 술을 함께 마시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 ④ ①의 경우 ‘이웃집’에서 술을 빚어 놓은 것은 맞지만, ‘누구’를 위해 술을 준비해 둔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려는 표현은 아니다. ①의 경우 ‘이 몸’의 무덤을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권할 친구들이 없을 것임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우정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다.
- ⑤ ①에 제시된 상황이 전란으로 인해 술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의 ‘가랑비, 굵은 눈, 쇼소리바람’은 술 한잔이 떠오르는 상황들을 나열한 것으로, ‘가랑비, 굵은 눈, 쇼소리바람’으로 인해 술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11 고전 시가

본문 74~76쪽

01 ②

02 ③

03 ③

가 임제, 「잠령민정」

〔해제〕 이 작품은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대장부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이 드러난 오언 고시이다. 작가는 임진왜란을 눈앞에 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변방에서 각각 세력을 키워 발호하고 있는 일본과 여진족을 바라보며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작가는 일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소인들이 넘치는 조정을 걱정하며 자신의 웅대한 뜻과 능력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1, 2구: 외부의 적이 도사리는 위태로운 조선의 현실
- 3, 4구: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조선의 변방 상황
- 5, 6구: 자신의 몸보신만 생각하는 조정에 대한 비판
- 7, 8구: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 9, 10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대장부로서의 포부와 현실에 대한 근심

나 이덕일, 「우국가」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혼정을 보고 고향에 돌아와 나라의 미래를 근심하며 지은 총 28수의 연시조이다. 작가는 임진왜란과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의 실상과 우국의 마음, 당쟁에 대한 비판과 피폐해진 현실에 대한 개탄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나라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걱정

구성

- 제1수: 나라의 위태로움에 대한 안타까움
- 제3수: 나라의 문물을 훼손한 왜적을 향한 비분강개의 마음
- 제5수: 피폐한 인심에 대한 개탄
- 제11수: 백성들의 고통과 선정에 대한 바람
- 제12수: 조정 대신들에 대한 비판
- 제19수: 당쟁에 대한 비판과 임금의 역할

01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패잔병’은 울고 있는 대상으로, 국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비애감을 유발한다. (나)의 ‘의관문물’은 더럽혀져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분노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적자들’은 배고파 서러워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동정심

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의 ‘큰 고래’는 화자가 동쪽의 바다에 있다고 여기며 근심하는 대상일 뿐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다.

③ (가)의 ‘대장부’는 몸보신만 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두 편’은 싸움을 지속하는 대상일 뿐 화자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대상이 아니다.

④ (가)의 ‘조정’은 좋은 계책을 세우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대신네’는 화자에게 있어 ‘공명과 부귀’를 ‘여사로’하고 ‘진심국사’ 하기 바라는 대상일 뿐, 화자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이 없다.

⑤ (가)의 ‘베옷’은 ‘이 사람’이 입고 있다는 점에서 은거하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베’는 세금을 내는 ‘적자들’의 처지를 보여 줄 뿐, 은거하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11수>에서 베를 짜고 쌀을 짚어 세금을 납부하는 장면은 적자들이 배고파 서러워하는 장면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수>의 초장은 ‘학문을 후리치고 만무’를 한다는 화자의 주제적 행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제5수>의 중장에는 누가 힘써 할지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에는 인심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날 뿐 의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제12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앞으로 대신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이 나타나 있을 뿐, 대신들의 과거 행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제19수>의 초장에 ‘두 편’에 대한 화자의 관찰은 나타나지만, 중장에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삼척검 둘러메고 진심보국’ 하려 하는 주체는 작가 자신으로, 작가는 ‘한 일도 하움이 없’다는 것을 통해 자조적인 탄식을 드러낼 뿐, 이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위정자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말 잘 보는 한풍자가 다시 안’ 난다는 것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안목 있는 존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절영마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다는 것은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다.

② (가)의 ‘웅대한 뜻 하루 천리 달리는 줄’은 작가가 나라의 안정

을 도모하는 뜻을 품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를 ‘누가 알리’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나라를 위한 자신의 뜻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나)의 ‘이 싸움’은 당쟁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를 통해 군주가 모범이 될 때 두 편으로 나뉘 싸우는 것이 그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해안’에 ‘군센 보루 전혀 없’다는 것과 (나)의 ‘도적 오다 뉘 막으리’는 모두 외부의 침입을 막기 힘든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 준다.

01 현대시

본문 77~79쪽

01 ①

02 ②

03 ④

01 심훈, 「그날이 오면」

해제 이 작품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각 연은 8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복이 도래한 후 느끼게 될 화자의 기쁨을 민족적 환희와 더불어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기쁜 소식을 울리겠다고 하는 것이나, 드는 칼로 자신의 가족을 벗겨 북을 만들어 둘러메고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고는 것, 우렁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표현 등은 광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구성

- 1연: 광복의 ‘그날’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
- 2연: 광복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

02 조지훈, 「산상의 노래」

해제 이 작품은 1945년에 발표된 것으로 당시 광복의 감격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비유적인 표현과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통해 광복을 맞이한 데 대한 감격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에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며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인의 지사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주제 광복을 맞이한 현실에 대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

구성

- 1연: 광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
- 2, 3연: 광복을 맞이한 감격과 기쁨
- 4,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 6연: 광복을 맞이한 조국의 바람직한 모습
- 7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모색과 기대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종로’와 같은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에서, (나)의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하여 작품 전반에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는 ‘시월상달’이라는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떠올릴 수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작품 전반에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는 명령형의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는 ‘셋별아 숨으라’에서 명령형의 어미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청자인 ‘셋별’에 대한 요구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후각적 이미지가 제시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등에 청각적 이미지가, ‘향기로 온 싸릿순’에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며 이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화자가 바라는 ‘그날’이 도래한 후, 화자가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 북을 치고자 하는 장소이므로 여러 사람과 더불어 화자의 감정을 발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긴 밤’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화자가 ‘홀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울어’ 온 장소이므로 혼자서 부정적 현실을 감내해 온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광복이 된 후 화자가 기쁨과 같은 감정을 여러 사람과 발산하는 장소로 화자가 특정인과의 과거 대화를 상기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화자가 ‘홀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울어’ 온 장소로 특정인에 대한 호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 광복이 된 후 화자가 느끼게 되는 기쁨의 감정을 여러 사람과 발산하는 장소이므로 화자의 내면을 다른 이들로부터 숨기기에 용이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은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긴 밤'을 화자가 '홀로' '무엇을 간구하며' '올어' 온 장소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화자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에 용이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은 광복이 도래한 후 화자가 기쁜 감정을 발산하는 장소이며, ㉡은 '긴 밤'으로 표현된 고통스러운 시기를 화자가 '홀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올어' 온 장소이므로 둘 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화자가 후회를 느끼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은 광복이 된 후 화자가 기쁨의 감정을 발산하는 장소이므로, 추구하는 가치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은 '긴 밤'으로 표현된 고통스러운 시기를 화자가 '홀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올어' 온 장소이므로 추구하는 가치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는 '인정'을 머리로 들이받아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과격한 행동 표현으로 나타나는 격정적 어조를 통해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에는 '햇살'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 즉 광복이 도래한 후의 감격과 기쁨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울분이나, 광복 이전에 가졌던 광복에 대한 염원을 차분하면서도 다소 냉담한 어조를 통해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오면은'은 가정을 나타내는 '오면'을 변형한 것으로 이는 '오면'의 변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주가 '와 주기만 한다면'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은 '그날'이 도래한 것과 같은, 가정의 상황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죽사오매'와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이를 활용하여 광복을 염원하는 화자의 내면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부정적 의미의 '시들은 핏줄'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햇살'이 있는, 긍정적 의미를 함의한 '환히 트이는 이마'는 일제 강점기 이후 찾아온 광복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신의 가족을 벗겨 '복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는 것은 행위의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맑은 바람 속'에 있다는 것은 광복과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며, '홀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광복 이후에 찾아올 더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사적 태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02 현대시

01 ③

02 ⑤

03 ④

가 이육사, 「황혼」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골방'에서 맞이한 '황혼'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관심이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황혼의 품에 안긴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를 드러낸 시이다. 비유와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등을 통해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포용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느끼는 연민과 애정

구성

- 1연: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
- 2연: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 3, 4연: 소외된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
- 5연: 사라지는 황혼을 보며 느끼는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나 최두석, 「성애꽃」

해제 이 작품은 차창에 피어 있는 '성애꽃'을 보며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새벽 시내버스'는 '엄동 혹한'으로 암시되는 힘겨운 시대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타고 있었던 곳이다. 화자는 그들이 남긴 흔적인 '성애꽃'을 보며, 고통스럽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 시의 마지막에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암울한 시대상이 암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구성

- 1~10행: 성애꽃을 보고 서민들의 숨결을 떠올리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 11~19행: 성애꽃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감동함.
- 20~22행: 뜻을 같이했지만 지금은 감혀 있는 친구를 떠올림.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중소리 저문 삼림 속', '암암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등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시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 관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가?'라는 확인 질문을 던진다면, 맞는 답은 '예'이다. 한편 (나)에서는 '털썩거리는 창'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흰 갈매기들’, ‘녹음’, ‘푸른 커-튼’ 등에서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해 대상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② (가)의 2~4연은 의인화된 청자인 ‘황혼’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 힘껏 내밀라’, ‘~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처럼 청자인 ‘황혼’에게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이 사용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가)에서는 ‘~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등을 통해, (나)에서는 ‘~ 막막한 한숨이 던가’, ‘~ 정열의 숨결이던가’ 등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 (가)의 화자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제약이 가해진 처지에 있기에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헤아려 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나)의 화자가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등이 토해 냈을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에 대한 연상 끝에 떠올린 대상임을 고려할 때, 소외된 이들을 위해 노력하다가 억압적인 사회 현실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가 되어 ‘지금엔 면회마저 금지된’ 사람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 화자가 떠올리게 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가)의 화자가 떠올리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자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은 (나)의 화자가 차창에 낀 성에를 보다가 떠올리는 친구이므로 화자 자신의 과거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가)의 화자에게 ㉠은 연민의 대상이지 윤리적 귀감은 아니다. 또 ㉡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노력하다가 갇혀 있는 친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일 뿐 화자의 자유를 박탈한 주체일 수는 없다.
- ③ ㉡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의 화자와 함께 애쓰다가 현재는 갇힌 채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지향했던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은 (가)의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소외된 대상일 뿐 화자의 고독을 위로해 주는 존재는 아니다.
- ④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 ㉡이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드러내는 희망의 근거일 수는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화자는 ‘의지가 지없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껴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자신의 ‘입술을 보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서 ‘은밀히 만나’는 것은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소외된 존재들이 간밤에 내뿜었을 ‘입김과 숨결’이 서로 만나던 것을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가 ‘커-튼을 걷’는 것은 ‘황혼’을 자기가 있는 골방 안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행위이고, (나)의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은 유리창마다 ‘선연히 피는 성에꽃’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한 행위이다.
- ② (가)의 2연과 4연에 따르면 ‘황혼’은 ‘부드러운 손’과 ‘부드러운 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의 1행에서 ‘성에꽃’은 ‘찬란한 치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③ (가)의 ‘활 쏘는 토인들’은 ‘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 ‘중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와 함께 ‘의지가 지없는’ 존재이기에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의 ‘실업자’도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와 나란히 제시되어,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을 토해 냈을 민중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현재 ‘골방’에 있으나 그의 상상은 그 ‘골방’ 밖에 있는 여러 공간, 즉 ‘지구의 반쪽’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보기>의 설명대로 여러 곳에서 황혼이 지는 시간대를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현재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있지만, 그의 상상은 그 시내버스를 ‘간밤’에 탔었을 여러 존재에게 미치고 있다. 이는 <보기>의 설명대로 동일한 공간인 시내버스 안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환을 통해 상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03 현대시

본문 83~85쪽

01 ⑤

02 ③

03 ⑤

가 정지용, 「불사조」

(해제) 이 작품은 인간에게 ‘비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탐구

한 시이다. 화자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인 비애를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신부’에 빗대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또 비애를 ‘불사조’에 빗대어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인 비애를 지니며 사는 것을 숙명으로 여긴다. 한편 이 작품은 작가의 종교관이 반영된 작품으로도 해석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애를 지니고 살아가므로, 초월적 존재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주제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비애

구성

- 1연: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비애
- 2연: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비애
- 3연: 행복이 싫어하는 비애
- 4연: 나의 마음에 깃든 비애
- 5연: 나의 청춘과 함께 죽은 비애
- 6연: 부활하는 비애

나 문병란, 「꽃씨」

해제 이 작품은 가을날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 만들어진 ‘작은 꽃씨’를 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려하게 빛나는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은 외롭고 쓸쓸함을 주지만 무언가 머물어 가는 계절이다. 화자는 소멸의 계절인 가을에 외로움마저 머물어 가는 것을 성찰하며 인간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는 비움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처럼 가을을 쇠락이 아닌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계절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다.

주제 완전한 성숙에 대한 염원

구성

- 1연: 꽃씨의 존재 인식
- 2연: 꽃씨에 담겨 있는 가을
- 3연: 꽃씨의 생성 과정
- 4연: 가을날 성숙해지는 화자
- 5연: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마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오오 나의 신부!’, ‘오오 비애!’에서 감탄사인 ‘오오’와 느낌표를 사용하여 ‘비애’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나)도 ‘꽃씨 한 알!’, ‘빛나는 외로움!’에서 영탄법을 활용하여 가을날 꽃씨를 보며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이제’, ‘어느 날’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쓰이고, (나)에도 ‘여름의 오후’, ‘오늘’, ‘어젯날’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쓰였다. 그런데 (가)와 (나) 모두 이를 통해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나)의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는 관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낸 것일 뿐,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에는 여름과 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만,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④ (가)는 ‘비애’를 ‘새’에 빗대고 있지만,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꽃들’을 마치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 ‘박힌 화살’과 ‘날지 않는 새’는 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로, 이는 비애가 화자에게 늘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B]에서 ‘꽃들의 몸부림’, ‘입김이 머물어’는 동적 이미지로, 꽃씨가 생성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추상적 대상인 ‘비애’를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처럼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여 비애가 지닌 속성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B]도 추상적 대상인 ‘여름’을 ‘빛나는’ 존재로 표현하여, 여름의 속성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② [A]는 화자의 부정적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인간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B]는 자연 현상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의 부정적 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처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B]는 ‘핏빛 꽃’, ‘뜨거운 노을’처럼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는 각각 대상이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A]는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B]는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꽃씨’는 앞으로 자라서 새로운 결실을 가져올 존재로, ‘기린 기다림의 창변’에 ‘꽃씨’를 묻었다는 것은 결실, 즉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완전한 내적 성숙이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너’는 비애를 이르는 것으로, 비애가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고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비애’가 인간의 근원적 감정임을 표현한 것이다.

② (가)에서 화자는 '비에'를 '나의 신부'에 빗대어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비에'가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죽었다는 것은 '비에'를 젊은 시절에 늘 자기와 함께 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여긴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③ (가)에서 화자는 '비에'를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불사조'에 비유하고 있다. 즉 불에 탔지만 나래를 다시 편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사조'는 소멸하지만 곧 새롭게 생성되는 속성을 지닌 '비에'를 표현한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작은 꽃씨'가 '잎'과 '꽃',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자연 현상을 통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소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04 현대시

본문 86~88쪽

01 ②

02 ⑤

03 ⑤

가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해제】 이 작품은 전원적인 소재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회화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으로, 가을밤 달빛이 비치는 들의 정취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1연과 5연의 '순이'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소박하고 감각 어린 이름의 여인으로, 화자가 호명하는 대상이면서 달빛이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감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 가을밤의 정취와 서정

구성

- 1연: 달빛이 비치는 고풍스러운 들
- 2연: 달의 모습과 향기
- 3연: 깊고 푸른 가을밤
- 4연: 달빛 아래 곁에 익어 가는 포도
- 5연: 달빛 아래 호젓한 잎새

나 최하림, 「아침 시」

【해제】 이 작품은 아침 시간대에 깨어나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을 주로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이 병고에 시달릴 때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며, 시인은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바람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굴참나무와 아이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생의 활력

구성

- 1연: 굴참나무의 활력 넘치는 모습
- 2연: 굴참나무와 마찬가지로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달'을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무정물인 '달'이라는 소재를 유정물처럼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뜰을 비추고 있는 달의 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와 같이, 무정물인 '굴참나무'를 유정물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굴참나무'의 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무정물인 소재를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1연과 5연에서 '순이'라는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시상의 시작과 마무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나)는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1연과 5연에서 '순이 ~에', '~이 ~구나'와 같은 어구를 반복하여 구조적 완결성이라는 수미상관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시의 처음과 끝부분에 동일한 어구의 반복을 통한 수미상관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는 '밤'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가 나타나고 있지만, '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간의 역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는 '그때쯤이면'의 '그때'와 같이 시간상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역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는 관찰 대상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 것으로, '뜰'이라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변화에 따라 관찰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는 '네거리', '시장통과 / 철길', '천관산', '숲' 등과 같이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관찰 대상이 '굴참나무'에서 '아이들'로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찰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①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대상으로, 순수하면서도 토속적인 '순이'라는 이름이 순박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① '불이 붉은 막내'는 '아이들' 가운데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으로, '불이 붉은'의 시각적 이미지와 '막내'가 환기하는 어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랑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은 화자가 이름을 부르는 대상이기는 하나 다시 만나기를 소

망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은 화자가 주목하는,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화자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가), (나)의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 ㉡을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가)는 과거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나타나지 않으며, ㉠ 역시 화자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나타나지 않으며, ㉡은 화자가 주목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므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 즉 의심이 드는 느낌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은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며 존재를 떠올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주목하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서 화자가 가련하게 생각하는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 풍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 저 가지로' 난다고 표현한 것은 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과 자연물인 '종다리', '비둘기' 등과의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 풍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 저 가지로' 난다고 표현한 것이 아이들과 굴참나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버레 우는'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트락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에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달'이라는 대상을 '향그럽다'와 같이 후각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동해 바다 물처럼 / 푸른 / 가을 / 밤'은 가을밤을 동해 바닷물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가을밤에 대한 느낌을 다채롭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굴참나무'와 같은 대상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상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 오르다'는 '솟아오르므로', '오르다'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움직임을 상승적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현대시

01 ①

02 ②

03 ⑤

04 ②

가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해제 이 작품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드러낸 시로, 화자는 모든 것이 죽어 가는 극한의 공간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 그곳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와 태도를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주제 생명과 삶의 본질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

구성

- 1연: 생명과 삶에 대한 회의
- 2연: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적 공간인 사막
- 3연: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는 비장한 의지

나 이정록, 「희망의 거처」

해제 이 작품은 옥수수과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견뎌 내고 그 상처를 삶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생'에 대한 깊은 인식을 끌어내고 있다.

주제 시련을 이겨 낸 삶에 대한 예찬

구성

- 1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옥수수대
- 2연: 옥수수대 뿌리의 강인한 생명력
- 3연: 상처를 견디고 극복하는 버드나무
- 4연: 버드나무와 옥수수대를 통해 깨닫는 생의 의미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인칭 대명사 '나'를 빈번하게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는 인칭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는 '호울로 서면'에서 가정적 진술이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본질적 자아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나와 대면케' 되는 것과 같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가정적 진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주시하는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나)는 '울컥울컥'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주시하는 대상인 ‘옥수숫대’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가), (나)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전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 (나)는 모두 한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거기’는 ‘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양의 미하는 ‘백일’이 타오르고, 모든 것이 모래 속에서 죽어 간 극한의 공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극한의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 고독과 고통을 느끼려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기’는 화자로 하여금 자기 단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극한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옥수수밭 두둑’은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자신의 흙집에 박는 버드나무를 보게 되는 공간이다. 버드나무는 상처와 시련을 통해 이르게 되는 자아 성숙의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자연물을 통해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는 화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대상을 발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열사의 끝’,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극한의 공간을 가리킨다. 화자는 그곳을 스스로 찾아가 고독과 고통 속에서 본질적 자아를 만나고자 한다. 화자가 ㉡에서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 자아와의 대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화자가 기대하는 세속적 행복을 만끽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는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자신의 흙집에 박는 버드나무, 상처와 시련을 통해 이르게 되는 자아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는 버드나무를 보게 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버드나무를 통해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가 화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는 ‘열사의 끝’, ‘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죽어 가는 극한의 공간이다. 화자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아, 즉 본질적 자아를 만나고자 한다. 화자가 모든 것이 죽어 가는 ㉡에서 본질적 자아 이외의 다른 대상을 만나기는 어려우며, 본질적 자아 이외의 대상이 공동체적 연대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는 상처와 시련을 통해 자아 성숙에 이르는 ‘버드나무’를 발견하는 공간이다.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는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의 ‘버드나무’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는 화자가 고독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 즉 본질적 자아를 만나고자 스스로 찾아가는 극한의 공간이다. 모든 것이 ‘사멸’

하는 ‘거기’라는 공간에서 현실의 부조리를 경험하기는 어려우며 그로 인한 절망을 경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는 ‘버드나무’를 통해 자아 성숙의 과정과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공간이다.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내용이 작품 속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는 의로움의 가치를 ㉢에 있는 ‘버드나무’가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는 의로움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는 화자가 스스로 찾아가 고독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 즉 본질적 자아를 만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해 가는 곳으로, 화자는 그곳을 본질적 자아를 대면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더라도 ㉢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흙집에 박’으며 ‘상처의 지붕’과 ‘주춧돌’로 삶의 ‘기둥을 세’우는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화자는 ㉣에 있는 ‘버드나무’를 통해 자아 성숙의 과정과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버드나무와 옥수수 / 푸른 이파리들’이 눈을 맞추는 것은 서로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생이란, /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 꺼내는 것이라고’에 대한 동감 내지는 동병상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감, 동병상련이 인간과 공생하기 위한 대상 간의 소통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화자는 ‘병든 나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생명이 버겁다고 느낄 때, 즉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고 결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화자로 하여금 그러한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화자가 향하는 공간인 ‘거기’에 대해 ‘일체’, 즉 모든 것이 ‘사멸’하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의 ‘열렬한 고독’이란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공간인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나’가 떠올리게 되는 ‘고독’을 의미한다. 이를 ‘열렬한’, 즉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맹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독’의 정도가 매우 강렬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에서 ‘땅에 닿지 못할’지라도 ‘부텃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모습은 화자가 ‘옥수숫대’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화자는 ‘~는 것이다’와 같은 선언적 진술을 활용하여 ‘옥수숫대’의 특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겠다는 화자의 결심은 본질적 자아와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본질적 자아와의 대면이 이루어진 이후에 느끼게 되는 만족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는 상황은 삶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로 인해 ‘생명이 부대’끼다며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아라비아의 사막’과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고통과 고독의 상황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뿌리가 ‘땅에 닿지 못’하는 상황은 실패나 시련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패나 시련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의미 있게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아의 성장을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운명처럼’ 대면하게 되는 ‘나’는 화자가 찾기를 바라는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므로, ‘호올로 서면 /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되는 상황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땅에 닿지 못’하는 상황은 시련의 상황을 나타내며, ‘햇발일지라도 /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는 것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루려는 것에 대한 시도나 노력을 의미하므로, 쉽게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화자가 찾기를 원하는 본질적 자아, 즉 순수하고 참된 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려 애쓰는 과정은 자아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은 ‘허방’임에도 내딛기를 주저하지 않는 옥수숫대 뿌리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6 현대시

01 ④

02 ⑤

03 ⑤

가 신석정, 「역사」

해제 이 작품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며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민중의 연대 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구성

- 1연: 하잘것없지만 멸하지 않는 달래꽃
- 2연: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달래꽃
- 3연: 연대와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달래꽃

나 송수권, 「지리산 삻새」

해제 이 작품은 지리산 삻새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설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지리산의 한 곳에서 삻새가 울음을 토해 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 올리며, 그 울음이 지리산 세석의 철쭉꽃밭으로도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산에서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화자 자신도 설움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제 지리산 삻새의 울음에서 깨닫게 되는 설움의 정서

구성

- 1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알게 된 삻새 울음의 진실
- 2연: 한 마리 삻새의 울음이 여러 마리의 삻새의 울음으로 들리는 이유
- 3연: 삻새의 울음 끝에 열리는 강
- 4연: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섬진강의 힘센 물줄기
- 5연: 울음 끝에 서러운 빛깔로 남아 버린 세석의 철쭉꽃밭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와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등의 시구에서 반복과 변주를, (나)는 ‘울음 울어’와 ‘떼로 울음 울어’ 등의 시구에서 반복과 변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적 상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인간과 자연물을 비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는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 ② (나)는 독백조의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 나는 길 뜬 설움에 맛이 들고'에서 시간의 경과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저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한 작품으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는 삐죽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온 민중이 역사를 생성하는 주체임을 깨닫는 작품으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낸 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달래꽃'이나 ㉡의 '철쭉꽃밭'이 특정한 계절에 개화하는 꽃이므로 계절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과 ㉡에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음성 상징어 '홀홀'을 통해 달래꽃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② ㉠에서는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자작나 무 허울 벗듯 홀홀 벗고'에서 직유법(허울 벗듯)을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읊아매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뜻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는 직유법이 나타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에서는 '서러운'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④ ㉠의 '푸른 수의'에서 '푸른'은 색채어에 해당하고, ㉡의 '삐죽새 울음'은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이 반목과 대립을 일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나)의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우는 것은 민중의 설움이 퍼져 나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반목과 대립을 일삼던 존재들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달래꽃을 보며 '저 허잘것없는'이라 말하고 있는데, 달래꽃을 민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때,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민중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자 영속적 존재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달래꽃은 '바윗돌처럼 공공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한 마리 삐죽새의 울음이 여러 마리의 삐죽새의 울음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은 민중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삐죽새의 울음이 단지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이 열리고'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므로 삐죽새의 울음이 의미하는 민중의 설움이 역사에서 변화와 생성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7 현대시

본문 95~97쪽

01 ②

02 ④

03 ④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해제〕 이 작품은 화자인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내'를 만나 는 상황을 통해, 고국을 떠나 북방에서 유랑하는 이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 낸 시이다. 화자는 '북간도 술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자신과 전라도 가시내가 각기 살던 곳을 떠나 그곳으로 오기 까지 겪은 힘든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데, 이 점에서 작품이 서사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성격은 일제 강점하에서 고향을 잃고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

구성

- 1연: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의 만남
- 2연: 함경도 사내가 북간도에서 처한 불안한 상황
- 3연: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내와 이야기를 나눔.
- 4연: 전라도 가시내의 비극적인 삶
- 5연: 전라도 가시내에 대한 함경도 사내의 연민과 위로
- 6연: 암담한 현실에 맞설 함경도 사내의 비장한 모습

나 신경림, 「나목」

해제 이 작품은 잎이 모두 진 채 서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나무들을 관찰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화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깊은 울음'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떠올리고는,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나무들이 지니는 동질성을 환기한다.

주제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

구성

- 1, 2행: 햇빛은 채 서 있는 나무들
- 3~5행: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화하는 나무들
- 6~10행: 나무들의 몸에 새겨진 고달픈 삶의 흔적
- 11~13행: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경우 '나무들'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무들이 묘사하는 이들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에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도치가 드러나지 않으며, (나)의 경우 11~13행에서 도치가 활용되어 '나무들'이 묘사하는 이들이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의 존재를 알았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며, (가)의 경우 청자인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유랑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사라질 게다'를 반복하여 곧 떠나야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특정한 시구의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의 경우 화자가 북간도 술막으로 오기까지의 공간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통해 정서가 고조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나)의 경우 화자가 '나무들'을 관찰하는 위치에만 머물러 말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02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유랑하면서 세파를 겪고 있는 가시내의 복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시내가 염원하는 미래의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은 발에 느껴지는 혹독한 추위를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함경도 사내인 화자가 살던 곳을 떠나 북간도

로 오면서 겪은 시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㉒은 '시름'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시름'을 유발한 상황, 즉 삶의 고단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응 방식을 통해 화자의 강인한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③ ㉓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가시내의 삶에 대한 아픈 기억과 그녀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㉔을 '나는 헤매이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화자가 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㉕은 술막에서 가시내를 만나고 있는 화자가 '이윽고 얼음길에 밝으면' 길을 나설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다. 또한 '눈포래 휘감아 치는 별판'이 화자가 맞닥뜨릴 시련을 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공간에 '우줄우줄 나설' 것이라는 표현은 시련에 결연하게 맞서는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를 참고하면 (나)의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아픔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가시내가 자라난 고향인 바닷가의 이미지를 보여 주므로, 가시내가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겪은 아픈 삶의 기억을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까무스레한 네 얼굴'은 '함경도 사내'인 화자가 유랑하던 도중에 만난 가시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나)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햇빛은 나무들은, 나무들의 그러한 외양이나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을 고려하면 화자가 겨울에 바라본 시적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가시내의 전라도 출신이고 화자는 함경도 출신이지만 모두 고국을 떠나 타국 땅인 '북간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의 동질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우는 것으로 묘사한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울음은 화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화자와 나무들의 유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는 방방곡곡 단풍이 물든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올 때 가시내가 느꼈을 외로움과 슬픔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화자가 '깊은 울음'을 통해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깊은 울음'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전라도 출신인 가시내의 고향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함경도 출신인 화자에게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나무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표상한다. 이들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통해 자신을 ‘말끔히 씻어 내’고 있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8 현대시

본문 98~99쪽

01 ③

02 ③

03 ④

가 윤동주, 「병원」

〔해제〕 이 작품은 병원 뒤뜰에서 본 젊은 여자 환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여자 환자의 병과 자신의 병이 닳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몰이해에 대해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성내서는 안 된다’고 분노를 자제한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3연의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현재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묘사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이 돋보인다.

주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구성

- 1연: 병원 뒤뜰에서 일광욕하는 여자 환자를 봄.
- 2연: ‘나’의 오래된 아픔에 대해 생각함.
- 3연: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함.

나 김기택, 「벽」

〔해제〕 이 작품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벽’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 비판

구성

- 1~5행: 전동차에서 내리려 애를 쓰는 할머니
- 6~11행: 빈틈없는 승객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
- 12, 13행: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한 할머니
- 14~17행: 할머니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벽이 되어 가는 승객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는 만원 전동차에 있는 할머니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할머니를 둘러싼 승객의 벽은 점점 더 높고 튼튼하며 견고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통해 할머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에서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관찰한 내용과 내면 의식이 제시되어 있을 뿐 대조의 방식을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부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나) 모두에서 어순의 도치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에서 현재형 어미가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젊은 여자’를 비롯한 여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자조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와 (나)에서 화자가 느끼는 긴장감이 나타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나)에서는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에서는 점층적 시상 전개를 확인할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늙은 의사’와 화자인 ‘젊은이’가 대비를 이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자신도 모를 아픔을 참다가 병원에 온 것이므로 ‘늙은 의사’를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얀 다리’는 가슴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의 흰옷 즉, 병원복 아래로 드러난 것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생기를 잃어버린 환자의 이미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서 환기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젊은 여자의 병약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살구나무 가지’와 관련한 현상을 통해 병원에서 느껴지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태아의 발가락’은 작고 연약한 태아의 신체 기관으로 매우 미약한 움직임만을 보일 수 있다. 승객들로 에워싸여 움푹달라지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할머니의 움직임에 ‘태아의 발가락’에 비유했다는 것은 할머니의 시도가 매우 미약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빈틈’은 할머니가 승객들의 벽으로부터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을 승객들이 더 세계 조이고 있으므로 ‘빈틈’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은 곧 할머니가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므로 (가)의 화자를 ‘젊은 여자’와 대비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또 (나)의 화자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할머니에게 견고한 벽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 기원이라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금잔화’를 가슴에 ‘꽃’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는 화자의 행위는 곧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서 부정적 상황이 극복되기를 희망하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나)는 전동차에서 미약하고 소외된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소외되는 모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높고 튼튼한’, ‘더욱 견고한 벽’이 되어 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제시한 것은 이러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젊은 여자’는 ‘가슴을 앓고’ 병원에 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롭고 고독하며 소외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작은 할머니’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승객들로 이루어진 벽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소외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화자가 찾은 ‘병원’은 본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공간이지만, 화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나)의 ‘전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밀착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작은 할머니’는 다른 승객들로부터 외면되고 소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병원’과 (나)의 ‘전동차’는 모두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슬픔의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구성

- 1연: 순결한 생명에 대한 염원
- 2연: 순수 결정체로서의 눈물
- 3, 4연: 절대적 가치로서의 눈물
- 5연: 꽃이 시들어 열매를 맺는 신의 섭리
- 6연: 순결한 생명으로서의 부활과 눈물의 의미

나 김춘수, 「강우」

〔해제〕 이 시는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를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쏟아지는 비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구성

- 1~10행: 부재한 아내를 애타게 찾음.
- 11~13행: 아내의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임.
- 14~19행: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체념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불안정하게 문장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전달하고 있고, [B]에서는 ‘비가 온다’, ‘못 보게 한다’, ‘퍼붓는다’에서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와 [B]에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지 않다.
- ② [A]와 [B]에는 모두 다른 인물의 사연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B]에서 ‘어둠’은 밤이라는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이지만 [A]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④ [B]에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아내의 죽음을 인정한 화자의 슬픔과 체념을 형상화한 것이지 화자가 기대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슬픔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적인 성숙을 이끄는 대상이고, ㉡은 아내를 잃은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내면적 갈

09 현대시

본문 100~102쪽

01 ⑤

02 ③

03 ①

가 김현승, 「눈물」

〔해제〕 이 시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자식을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절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슬픔을 승화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담담하게 따르고자 하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가)와 (나)는 모두 불의한 시대를 소재로 한 시도 아니고, ㉠과 ㉡이 불의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저항적 태도를 함축하고 있지도 않다.

④ ㉠은 화자가 신의 섭리를 통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소재이고, ㉡은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화자의 슬픔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⑤ ㉠은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소재이지 신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은 아내의 죽음을 환기하게 하는 소재가 될 수는 있으나 화자의 선망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의 전체’와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은 ‘눈물’을 지칭하는 것이지 절대적 존재로서 신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자 신의 섭리로, 이를 통해 화자는 소멸과 생성, 슬픔과 기쁨의 순환이 신의 섭리임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에서 죽음으로 인해 아내가 부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화자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에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④ ‘넙치지지미 뻘뻘한 뉘새’와 ‘열구리 담괴’는 아내와 관련된 것으로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소재이다.

⑤ (가)의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에서 화자는 자신의 눈물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원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고, (나)의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는 아내를 잃은 화자의 압담하고 절망적인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0 현대시

본문 103~10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③

01 김수영, 「피발 가에서」

해제 이 시는 붉은 피발에서 돌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조리한 현실과의 결별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 비유와 역설의 표현 방식,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려는 의지

구성

- 1연: 묵은 사랑을 잃을 때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 2연: 묵은 사랑의 힘을 떨치고자 하는 의지
- 3연: 묵은 사랑에 대한 반성과 극복 의지

02 김용택, 「들국」

해제 이 시의 화자는 서리를 맞으며 가을이 깊어 가도록 들판에 피어 있는 들국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쓸쓸하고 허망한 심정이 시 전반에 깔려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막막한 기다림

구성

- 1~9행: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조적인 화자의 마음
- 10~15행: 임이 없는 상태의 암담하고 막막한 심정
- 16~19행: 부질없는 기다림의 허망함과 안타까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는 의인화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가)가 현실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아라’를 연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단풍’, ‘억새꽃’, ‘서리’와 같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뒤편다요’, ‘도망가불고’, ‘헛짓이다요’와 같은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매 연마다 ‘~이 ~때 ~보아라’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면 뒤편다요’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묵은 사랑이 변화하는 시점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고, 이를 통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또한 ㉡은 입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화자에게 희망을 떠올리게 할 뿐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고, ㉡은 입과 이별한 상태인 화자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

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은 화자에게 희망을 떠올리게 하므로 과거보다 미래를 환기하게 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새로움을 향한 화자의 희망과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를 성장하게 하는 밑바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은 입을 보지 못하여 좌절한 화자의 현재 모습일 수는 있어도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화자가 '푸른 새싹'을 바라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얀 들국'은 입을 잃은 화자의 현재 상태이므로 ㉡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마른 지푸라기'는 입을 그리워하다 바싹 마른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자가 여전히 입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입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화자의 정서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먼지 얹은' 모습은 '석경'이 오래 방치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뒤이어 제시되는 묵은 사랑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② '새벽'에 준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남아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대낮'은 '새벽'과 연결되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인식하게 한다.

③ '산그늘'이 도망갔다는 것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화자를 떠난 입을 떠올리게 한다.

⑤ 서리의 하얀 이미지와 들국의 하얀 이미지가 연계되어 시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산마다 단풍', '하얀 억새꽃'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입의 부재 상황에는 화자에게 소용없는 대상이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입을 빚낸 대상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묵은 사랑이' 벗겨지고 움직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감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는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 사랑과 결별해야 한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

는 것이다.

④ (나)에서 '당신', '그대'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는 입과 헤어진 화자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현대시

본문 106~108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⑤

가 문정희, 「흙」

해제 이 작품은 흙이 지니고 있는 모성(母性)을 예찬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흙의 이름을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라'고 말한다. [흙 흙 흙]이라는 발음이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심장 저 깊은 곳'에서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 온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2연에서 화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닌 속성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귀의처'이기도 하며, '한 줌의 씨앗'을 '한 가마의 곡식'으로 돌려주는 곳이다. 3연에서 화자는 울음소리처럼 발음되는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며 모성을 떠올리고 있다. 바로 그 모성으로 인해,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성이란 '자신을 퍼 올리는'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다'는 것이다.

주제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한 예찬

구성

- 1연: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흙의 이름
- 2연: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
- 3연: 흙이 지닌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성

나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해제 이 작품은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화자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

구성

- 1연(1~12행): 느티나무로부터 느껴지는 동질감
- 1연(13~22행): 상처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
- 2연: 타자를 배려하는 삶에 대한 의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자연물인 '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생명의 태반이자 귀의치라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 낸 후 모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관찰하여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에서 힘겨운 삶이라는 속성이나 성질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껍질 안쪽으로 썩어 몸통이 비어 있는 부분을 보며 상처라는 속성을 이끌어 낸 후 다른 생명을 품게 하는 모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가 내면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가)에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경우 화자는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신발 끈을 매는 행위를 통해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다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내면의 갈등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와 (나) 모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제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나)의 경우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타인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에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떠오른 시상을 형상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특징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볼러 보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흙'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에는 '걸어왔던 뜻이리라'에서 추측의 의미를 지닌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느티나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거나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나타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 ② [B]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느티나무의 모습이 '뿌리', '나무의 발등' 등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선의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이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B]에서 '매미 울음꽃 피우는'의 '매미'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A]에서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에서는 흙과 관련하여 제일 부러운 것이 이름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

만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는 느티나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껍질 그 안 쪽으로 /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 가는데'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느티나무의 모습으로, 이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흙이 생명의 태반이자 귀의치라는 것은 흙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삶(생명의 태반)과 죽음(귀의치)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흙 흙 흙'은 '흑흑흑'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눈물에서 연상되는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느티나무를 보며 '너와 나와는 / 참 멀리 왔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느티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며 교감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는 미래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신발끈을 맨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흙의 모성성을 나타낸 것이므로 '씨앗'을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며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배에 피꽃을 피'우는 모기는 화자의 발등에 앉아 피를 빨아 먹는 존재이므로 모기를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며 자기를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도공이 밤낮으로 주물러 만든 달덩이는 도자기를 의미한다. 흙이 없으면 도자기를 만들 수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흙은 생성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우물에 있는 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리면 우물 속의 물은 줄어드는 반면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에서 하늘이 자신이 파 놓은 우물 속의 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리는 것은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느티나무의 부러진 가지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 있는 부분에서 풀 몇 포기 꽃을 피운 모습을 보며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삶의 고통과 상처가 다른 생명을 포용하게 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삶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발등에 앉아 자신의 피를 빨아 먹는 모기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른 생명체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1 고전 산문

본문 109~112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③

■ 작자 미상,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해제〕 이 작품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인물이 수도하여 성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 당시 불교적 세계관이 어떠한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설화는 부처가 되기 위해 홀로 수도에 정진하고 있는 선방으로 밤에 찾아온 한 여인을 대하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먼저 성불한 부득이 친구인 박박을 도와줌으로써 함께 성불을 이룬다는 내용은 도반 서사의 구조 속에서 작품의 주제 의식인 불교의 자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주제 수도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

전체 줄거리 백월산 근처에 살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평소 부처가 되기를 염원하였는데, 같은 꿈을 꾸게 되고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따로 살며 수행을 시작한다. 어느 날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달달박박을 찾아와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자 달달박박은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거절한다. 그 후 여인은 노힐부득에게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니 노힐부득은 중생을 돕는 것도 보살행이라며 청을 받아들인다. 이어서 여인은 집 안에서 출산하고 목욕을 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노힐부득은 그 부탁까지 들어준다. 그런데 목욕물이 금색으로 변하니 여인은 자신이 관음보살임을 밝히고 사라진다. 달달박박이 노힐부득을 찾아가 보니 노힐부득은 부처가 되어 있었다. 달달박박이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노힐부득에게 부탁하자 노힐부득은 달달박박을 그 목욕통에서 목욕하게 하였으며, 드디어 두 사람 모두 성불한다. 두 사람은,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법을 펼친 후,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으며 신라 경덕왕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절을 짓게 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달달박박은 여인이 자신의 거처를 찾아온 것을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세속적 유혹이라고 생각하여 여인을 그냥 보내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는 ‘계율을 더럽힐 만한 유혹을 물리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늘 밤 노힐이 반드시 계율을 더럽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를 통해 비슷한 유혹에 노힐부득은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달달박박이 예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모두 ‘스무 살’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다음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며’ 살았다.

② 노힐부득이 꿈을 꾸는 것을 계기로 하여 달달박박에게 산골로 들어가 살기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꿈이 똑같았으며’ 이에 ‘백월산 무등곡’으로 함께 들어갔다.

③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모두 ‘속세에 얽매인 것을 벗어 버리고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서로 말하였’으며 같은 꿈을 꾸는 다음 두 사람 모두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

④ 달달박박은 자신에게 찾아온 여인의 요청에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 빨리 떠나시오.’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 단번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반해 노힐부득은 여인을 그의 거처에 들인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는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므로, 주저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지 않은 채 낭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02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목욕통’과 ‘연화대’는 서사에서 중요한 소재이지만, 이 작품에서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로 볼 수는 없다. 이 작품에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관련 증거물로 제시된 것은 ‘백월산담사’라는 사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은 선천촌, 백월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을 밝힌 제한된 공간이 서사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설의 갈래적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② 이 작품은 대상이 되는 인물을 소개하며,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 어머니의 이름은 범마였다.’와 같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부모님 이름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삶의 이력으로서 출가 및 수행과 ‘성불’에 대해 드러내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절인 ‘백월산담사’를 세운 유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보기>에서 인공물 혹은 인물의 유래나 이력을 제재로 삼는다고 설명한 내용을 참고할 때, 이 작품이 전

설에 속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③ 이 작품은 '성덕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 '신라 경덕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에'와 같이 인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보기>를 참고할 때, 사실과 관련한 특정한 시간을 밝히는 역사 서술과 유사한 전설의 면모로 볼 수 있다.

④ 이 작품은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 '관음보살'을 대면하거나, '부처'가 되어 '구름을 타고 가 버'리는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상상을 넘나드는 사건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보기>를 참고할 때, 전설로서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이 사실 위주의 역사 서술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는 화자가 암자에 머물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B]에는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나타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와 [B] 모두 물음의 방식이 아니라 '마십시오', '마시오'와 같이 명령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남자가 스님에게 바라는 바를 화자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② [A]에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정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B]에는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정체를 비유적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의 경우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 길 막히고'에서, [B]의 경우 '해 저문 깊은 산길에 / ~ 그들은 더욱 깊은만'에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어두워진 산속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특징이 함께 제시되어 사건 발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 모두 남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노힐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한 것에 반해,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염불'하는 수행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수행 방식의 차이는 두 사람 사이의 정신적 거리를 보여 주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그 거리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서로 벗이 되어 사이 좋게 지냈'으며 '서로 오'가면서 '정신을 수양'했다. 이에 이 작품이 두 사람이 친

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며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도반 서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달달박박은 '북쪽 고개 사자암'의 '판잣집'에 살면서 수행했고, 노힐부득은 '동쪽 고개 돌무더기 아래의 물이 있는 곳'의 '뇌방'에서 살면서 수행했다. 두 인물이 서로 떨어져 산 것은 인물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달달박박은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계율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여, 어려움에 처한 여인을 돕지 않은 결과 성불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노힐부득은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밤중에 찾아온 여인을 '측은한 생각'으로 돕는 것을 우선시하여 마침내 성불하였다. 두 사람의 행위가 낳은 결과는, 진정한 구도의 정신은 계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비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 준다.

⑤ 달달박박은 성불한 노힐부득에게 '옛날의 교분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노힐부득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 두 사람은 함께 부처가 되어 입적한다. 이러한 결말은 친구의 도움으로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물리적, 정신적 거리가 화합으로 극복되는 도반 서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02 고전 산문

본문 113~116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③

■ 이현기, 「채생기우」

【해제】 조선 후기의 문인인 이현기가 지은 야담으로, 소설적 경향이 두드러져서 야담계 소설로도 분류되는 작품이다. 몰락해 가는 양반 계급을 대표하는, 채생의 아버지와 성공한 중인 계급을 대표하는 김령을 등장시켜 그 대조적인 생활 정경과 인물의 성격 및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 준다. 제목인 '채생기우(蔡生奇遇)'는 '채생의 기이한 만남'을 뜻한다.

【주제】 남녀의 기이한 만남, 몰락 양반과 성공한 중인의 대조적 삶의 태도와 생활 정경

【전체 줄거리】 조선 영조 때 송례문 밖 만리현(현 만리재)에 채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채생을 엄하게 가르쳤다. 한식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성묘를 하러 가는 길에 채생은 어느 대저택으로 납치되어 아리따운 청춘과부와 비밀 결혼을 하게 된다. 채생이 아버지 몰래 소설로 맞이한 청춘과부는 역관이자 큰 부자인 김령의 외동딸이었다. 김령은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어 과부가 되어 버린 딸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겨 딸을 재

흔시키고자 새벽에 하인들을 거리로 내보내 처음 만나는 젊은 남자를 강제로 데려오게 했는데 우연하게도 그 대상이 채생이었던 것이다. 채생의 아버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격노하여 아들을 혼내고 김령을 불러 꾸짖는다. 채생의 아버지가 몹시 흥분한 것과 달리, 김령은 시종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채생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두 집안 사이의 인연을 끊기로 한다. 그러나 이후에 김령은 극심한 기난에 시달리는 채생 집안을 적절한 때 표 나지 않게 도우면서, 시종일관 사려 깊은 태도, 능수능란한 대처 능력,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 주어 채생의 아버지가 차츰 고집을 꺾고 마침내 김령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김령의 슬기롭고 교묘한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됨에 따라 김령의 딸은 채생 집안의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채생은 김령의 물질적 지원에 힘입어 과거 공부에만 전념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하여 공명을 이룬다.

0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채생은 ‘김 노인(김령)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김 노인의 딸을 만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보니 아내가 초라하게 보여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읊조린 시가 바로 [A]인데, [A]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원진이 쓴 ‘이사(離思)’의 일부이다. 채생은 [A]를 인용함으로써 김 노인의 딸을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달라져 전에는 다정하게 대했던 아내에게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언급된 ‘넓은 바다’를 건너고, ‘무산을 보’는 것과 같은 자연에서의 경험은, 시인인 원진이 주제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유명한 고사(故事)이며, 채생이 자연에서 경험한 일은 아니다.

② [A]는 채생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인용한 시로, 부정적 세태의 풍자와는 거리가 멀다.

④ [A]를 통해 채생은 아내를 대하는 자신의 달라진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다. 채생이 [A]를 읊조린 까닭은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하다.

⑤ [A]는 ‘김 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의 기억 때문에 현재 자신의 처지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채생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인용되었다.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채생이 느끼는 후회의 감정은 무관하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처음에 채생의 아버지는 김령이 마련해 준 화려한 ‘새집’을 거

부하고 자신이 본래 살던 남루한 ‘작은 집’에 혼자서라도 살기를 고수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집’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점점 더 마음이 가고, 홀로 ‘작은 집’에 사는 일의 불편함을 예민하게 자각하게 된다. 그 결과, 마침내 ‘작은 집’을 떠나 ‘새집’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다시 말해 ‘작은 집’에 대한 채생의 아버지의 태도는 ‘지킴’에서 ‘떠남’으로, ‘새집’에 대한 태도는 ‘거부’에서 ‘수용’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B]에 채생 집안의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무너져 가는 두어 칸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기만 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채생의 아버지는 김령이 마련해 준 ‘새집’의 안락함을 경험한 뒤부터 자신의 ‘작은 집’을 편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아울러 채생의 아버지가 ‘새집’으로 거주 공간을 옮긴 이유도 겉으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 ‘새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④ 김령이 마련해 준 ‘새집’에는 채생의 아버지가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별당이 있었다. 그러므로 ‘새집’에 채생의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채생의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에게 ‘당신 혼자 가시오’라고 말했을 때에도 남편을 ‘작은 집’에 둔 채 두말없이 ‘새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남편이 생각이 바뀌어 뒤늦게 ‘새집’으로 옮겨 올 때도 ‘다른 말이 없’었다. 이렇듯 [B]에는 채생의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남편을 염려하는 장면도, 남편이 ‘새집’으로 오도록 설득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성모를 다녀오기 이전에 채생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채생의 마음이 달라진 데서 비롯된 반응이다. 채생의 아내가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 주었는데’라고 한 말에서 김령의 딸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생이 아내와 사이가 좋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모를 다녀오기 이전에 채생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글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채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채생이 집중하지 못하는 까닭은 김령의 집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채생의 아내가 남편의 주머니를 열어 본 이유는, 남편

의 전과 다른 행동을 대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평소에 못 봤던 물건들이 발견되자 채생의 아내가 화를 낸 것은, 자신의 짐작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에서 채생의 아내가 보인 반응이다.

④ 채생이 김령의 집에서 겪었던 일을 채생의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은 ㉔ 이후의 일이다.

⑤ 김령이 ㉔의 발언을 한 까닭은 몹시 화가 난 채생의 아버지를 설득해 그의 화를 가라앉히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㉔의 발언을 통해 김령은 현재 양쪽 집안이 모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으니 서로 비난하고 다투느라 양쪽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자고 제안한다. 김령의 말에 채생의 아버지는 반박을 못 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㉔이 두 집안이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밝히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김령이 ‘피차간의 불행’이라고 말한 것은,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만 탓하는 채생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양쪽 집안 중에서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의 가족도 피해를 입었음을 차분히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김령은 그 말에 뒤이어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내지 말자고 제안하면서 양쪽이 다투어 봤자 서로 좋을 일이 없음을 말하며 문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령이 이와 같이 대응한 것은, 양반층이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여 자신의 딸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도덕적 명분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채생의 아버지와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냉정하게 합리적 제안을 하는 김령의 성격이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작품에서 ‘아내의 방’은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그 틈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벼룩이 들끓’는 ‘부들자리와 삼베 이불’로 묘사된다. 이는 ‘김 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과 대비되어 몰락 양반과 성공한 중인의 대조적인 생활 정경을 부각한다. 양쪽의 대조적인 생활상을 경험한 채생은 김 노인의 집에서 누렸던 안락한 생활을 잊지 못하면서, 자기 집안의 빈곤한 생활에 대해 불만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② 채생의 아버지가 김령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여도 김령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예의를 갖추 채생의 아버지를 대한다. 그뿐 아니라 채생의 가족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마침내 채생의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과부가 된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채생의 아버지가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 까닭은 ‘별당’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 그에게 유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결국 억지로’ 돌아온 까닭은 남이 마련해 준 안락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생의 아버지는 도덕적 떳떳함에 따라 판단하여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쓸쓸함을 느끼면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다. 이것은 그가 ‘별당’의 안락함이라는 물질적 가치와 남의 힘을 빌려서 누리는 안락함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채생은 김령에게 ‘비옥한 땅 일천 모’라는 큰 재산을 받아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비로소 ‘과거 공부에만 힘’써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공명을 떨치’게 된다. 가난한 생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룬 인물이 아니라 가난한 생활이라는 물질적 문제가 해결되자 비로소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된 인물이 작중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물질적 능력이 중시되던 조선 후기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03 고전 산문

본문 117~120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①

■ 작자 미상, 「김진옥전」

(해제) 이 작품은 적강 탄생, 군담 등 조선 후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내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이 천정 배필과 결혼하는 데 있어 공주가 방해자로 등장하는 경우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그 두 사람 모두와 결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작품에서는 공주가 계속하여 주인공과 그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는 적대자로 등장한다. 주인공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국난을 평정하고, 신선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물속 세계에서 기량을 발휘할 뿐 아니라 후반부에서 공주의 역모를 해결함으로써 비범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주제 진옥의 영웅적 면모와 위기의 극복

전체 줄거리 명나라 김시광의 아들 진옥은 남 선수가 일으킨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진다. 이후 화산 도사를 만나 수학한 뒤 진옥은 천정배필인, 유 승상의 딸과 인연을 맺고, 과거에 급제한다. 하지만

황제는 진옥에게 공주와 결혼할 것을 명하고 진옥은 이를 거절하여 하옥된다. 유 소저 어머니의 도움으로 풀려난 진옥은 유 소저와 혼인하고 다시 남 선우가 쳐들어오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화산 도사의 지시에 따라 홀로 배를 타고 오다가 무인도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진옥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남해 용왕의 부탁에 따라 동곡 용왕의 침범을 물리치고 승전 이후의 용궁 잔치에서 여러 신선의 선물을 받는다. 이때 유 소저는 공주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진옥은 신선들이 준 선물로 아내를 구한다. 화산 도사의 도움으로 어머니도 만나게 된 진옥은 행복하게 지내지만, 공주가 태자를 독살한 뒤 진옥에게 누명을 씌워 위기에 처한다. 진옥은 화산 도사가 준 약으로 태자를 회생시키고 역모에 가담한 모든 죄인을 벌한다. 이후 진옥의 집안은 대대로 공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산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동곡 용왕은 동해에서 진옥을 보고 '대호'하며 '네 무삼 재주를 가졌관대 감히 나를 대적하러 하나뇨? 죽기를 아끼거든 일찍이 항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과 대적하려고 하는 진옥의 기세에 압도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옥은 아버지와 용궁에서 용왕의 환대를 받는데, 이때 한 신하가 용왕에게 '동곡 대병이 벌써 지경을 범하였사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라고 하였고, 이에 용왕이 진옥에게 '그 강병을 막아' 달라고 하고 있다.
- ② 유 승상은 '원수의 표풍함'에 대해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 돌아오음을 축수하'었다고 하였다.
- ③ 우양 공주는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의 부마 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고 있었다고 하였다.
- ⑤ 용왕은 진옥이 동곡 용왕에게 승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 사례'하며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 과인이 저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 만년유택을 안보게 하시니, 여자 대공을 장차 무엇으로써 갚사오리잇가?'라고 말하고 있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황성'에서 천자는 '원수의 탄 배 표풍'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이를 '슬퍼하시고 괴히 여'겼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정궁'은 황성으로 향하던 진옥이 들른 곳이라는 점에서 진옥이 황성으로 가는 경유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정궁'은 용왕이 진옥과 부친을 초대하여 '주과를 내'오며 대접하는 곳이며, 동곡 용왕이 지경을 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진옥에게 동곡

용왕과의 전쟁을 부탁하는 곳으로 용왕이 진옥을 시험하는 공간이 아니다.

③ '옥중'은 유 소저가 공주로 인해 갇힌 곳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향한 위협을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옥중'에서 유 소저가 '한림의 돌아오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때 진옥이 '오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옥중'은 진옥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공간은 아니다. '옥중'에서 유 소저는 꿈에서 선녀를 만나 '설움 끝에 영화가 돌아오리니'라는 말을 듣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데, 이는 이후 진옥이 돌아올 것을 암시하지만 유 소저가 진옥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④ '동해'는 진옥이 용왕의 부탁을 받아 '동곡 용왕'과 전쟁을 벌이는 곳으로, 천자의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다.

⑤ '본진'은 전쟁 중 동곡 용왕이 운무로 진옥의 시야를 가려 진옥이 지척을 분별치 못하자 돌아온 곳으로, 제장의 전갈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며 제장이 동곡 왕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도 아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의 '김진옥이 월국을 항복받고 돌아오는 체하다가 이제 도망하였'다는 것에는 진옥이 겪은 과거의 일을 거짓으로 전달한 내용이 드러나 있으며, 천자가 이를 듣고 '유 승상을 삭탈관작'하고 '유 소저를 잡아다가 죽이려' 했다는 것을 통해 [A]가 상대방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의 '설움 끝에 영화가 돌아'온다는 것에는 상대방이 겪은 미래의 일이 드러나 있으며, '옥보방신을 보호하여 지레 손상치 말으소서.'에는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진옥이 처한 상황을 거짓으로 들고 있으며 '그 뜻을 불가측이니 이는 역신이라.'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양 공주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B]는 '인간 고행'을 통해 유 소저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녀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B]는 '인간 고행이 어떠하니잇고?'를 통해 유 소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옥보방신을 보호하여 지레 손상치 말으소서.'를 통해 유 소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는 진옥에 대한 천자의 걱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A]는 천자와 진옥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양 공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B]는 선녀가 유 소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과 유 소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A]는 우양 공주가 진옥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드러내며 천자의 인식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B]는 선녀가 유 소저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용왕은 천상계의 존재이지만, 용왕이 '정병 팔십만을 조발하여 주고 천리비룡마와 백리희소검을' 하사한 것은 진옥이 동국 용왕과의 전쟁을 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진옥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진옥이 용궁에서 용왕의 부탁을 받아 참전하기로 한 때 우양 공주가 '원수의 표풍하여 사생을 모름을 듣고' 천자에게 진옥을 참모하는 말을 하고, 이를 들은 천자가 유 소저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는 것을 통해 주인공의 결연에 위기가 발생하는 데 전쟁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진옥이 제장에게 '용왕의 조화가 불측하니 마땅히 계교로 잡을 것이라. 이제 용왕이 우리 패함을 업신여겨 태만하리니, 이때를 당하여 검착하면 승전하리라.'라고 하며 제장에게 각각 계교를 가르친 것과, 이후 진옥이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달려들어 왕의 꼭 뒤를 잡아 었지르'자 군사가 달려들어 동국 왕을 결박했다는 것을 통해 전쟁을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진옥이 용왕과 동국 왕 간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후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자 용왕이 '양계에 인제 많은 줄' 알았다며 '원수로 동해군을 봉하'였다는 것을 통해 지상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월적 세계 간의 전쟁을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용왕이 연 잔치에서 선관이 진옥에게 '삼신산 백운동에서 바둑 두던 친우들을 어찌 모르나뇨?'라고 하며 실과를 주고, 진옥이 이 실과를 먹은 뒤 '전생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로 연결된 세계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향과 이선의 만남과 사랑의 완성은 결국 천상에서의 인연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하늘이 정해 둔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투영된 것이다.

주제 천상의 예정에 따른 남녀 간의 애정 실현, 속향과 이선의 위기와 위기의 극복 과정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때 김전은 어부들이 잡은 거북을 살려 준다. 김전은 장희의 딸과 결혼하여 속향을 낳는데, 관사가 양구가 속향을 보고 '월궁의 선녀가 적강하여 인간으로 환생한 것이며, 여러 위기를 겪은 뒤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임'을 예언한다. 속향이 다섯 살 때 금나라가 쳐들어와 속향은 가족과 헤어진다. 도적들은 어린 속향을 거두어 마을에 버리고 떠나는데, 선녀가 나타나 앞으로 십오 년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가 닥칠 것임을 알려 준다. 지식 없는 장 승상에게 기탁하게 된 속향은 사향의 모함으로 그 집에서도 쫓겨난다. 이리저리 떠돌던 속향은 갈대밭에서 불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화덕진군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고, 마고선녀(할미)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한편 병부 상서 이 위공의 아들 선은 속향이 높은 수를 보고 속향을 찾아 나선다. 할미의 집에서 속향을 만난 이선은 고모의 주관으로 속향과 결혼을 하지만, 아버지 이 위공의 반대로 속향과 헤어져 태학에 들어가게 된다. 속향은 아버지 김전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할미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할미는 청삼살개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고, 속향은 이선의 어머니를 만나 오해를 풀고 결혼을 인정받는다. 과거에 급제한 이선과 함께 부임한 속향은 장 승상을 만나고, 김전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눈다. 이선은 황제의 불사약을 구하는 일에 추천을 받아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며 불사약을 구하게 된다. 이선과 속향은 칠십 세에 신선이 따로 준 약을 먹고 하늘로 올라간다.

04 고전 산문

분문 121~124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 작자 미상, 「속향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한글 소설로, 속향이 여러 차례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인 이선과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속향의 위기와 고행은 천상 세계에서 월궁 선녀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속향은 끊임없이 수난을 당하지만, 천상의 인연이나 신이한 힘이 관여하여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이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도록 관련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속향이 십 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며 살다가 억울한 참소를 당하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했다는 것은 이생에게 전해진 속향의 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월하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백년을 의탁하려 한 이후에 낭군과 이별하게 된 것은 앞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 또한 이생이 낭자와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속향이 낭군님의 미움을 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속향의 말을 보면, 속향은 '전생의 죄가 무거워' 여러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속향은 할미에게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오리까?', '길이라도 가르쳐 주소서.'와 같이 앞으로의 고난을 견디기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② 속향과 할미가 나는 대화와 속향이 쓴 글에서 속향의 고난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살에 부모를 여의고’ 구걸하러 다닌 것은 숙향이 쓴 글에 제시되어 있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부친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것은 할미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숙향과 할미의 대화에서 숙향이 할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것과 숙향이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할미가 사라진 후 숙향이 한탄하는 말에서 혼자 무섭고 쓸쓸하게 지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숙향은 외로운 마음을 써 둔 글에서 ‘살아생전에 낭군을 다시 볼 길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생에게 소식조차 전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파랑새’는 남자가 낙양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남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하여, 남자의 목숨을 구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청삽사리’가 이생이 태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생은 ‘청삽사리’를 통해 자신이 쓴 편지를 남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삽사리’를 남자에게 되돌려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할미의 첫 번째 말에서 ‘파랑새’는 마고선녀가 변신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할미(마고선녀)는 자신이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 남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 밝히고 있다. 결국 ‘파랑새’는 월궁항아의 명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삽사리’는 할미가 일부러 두고 간 것이며, 할미는 ‘청삽사리’를 두고 ‘저 개가 남자의 어려운 일을 돌보리이다.’라며 자신이 일부러 두고 간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② 할미의 첫 번째 말에서 ‘파랑새’가 옥중에 있던 남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이후 부분을 보면 ‘청삽사리’는 남자가 써 둔 글을 이랑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할미의 첫 번째 말에서 ‘파랑새’의 행적을 알 수 있다. 할미의 마지막 말에서 ‘청삽사리’가 할미가 문힐 자리를 남자에게 알려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남자는 할미가 마고선녀인 줄을 몰랐다고 고백하며, 할미가 자신도 모르게 베푼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생은 ‘청삽사리’를 보자마자 그것이 남자 집의 개라고 판단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현실에서의 숙향과의 인연이 다한 할미는 초월 세계의 인물인 천태산 마고선녀로 돌아가기 위해 숙향을 떠나고 있다.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 주고 두어 걸음 걷더니, 문득’ 사라져 버리는 장면은 이러한 상황을 환상적 성격을 넣어 드러낸 것이다. 할미가 숙향에게 주어진 난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초월 세계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숙향은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후 남의 집에서 지내다가 참소를 당해 쫓겨난 뒤 할미와 함께 지내게 된다. 할미는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숙향이 겪을 위기와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초월 세계의 인물이 간섭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할미는 숙향이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 ‘삼신산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는 혼례식에 초월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가 교섭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할미는 ‘부사가 남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 자신이 ‘남자의 닢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지내는 할미가 초월 세계의 인물(마고선녀)로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청삽사리는 할미가 남기고 간 동물로서, 이생과 헤어져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숙향을 위해 이생에게 숙향이 써 둔 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을 동물의 신이한 능력으로 해결하는 장면으로 작품에 환상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04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에서 ‘하늘의 명’이라는 표현은 두 번 제시되고 있는데, 한 번은 할미가 남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하여, 다른 한 번은 할미가 남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다. 할미가 남자와 헤어짐으로 써 남자는 의탁할 사람을 잃어버리고, 할미가 남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남자의 고난은 심화된다. 결국 이 글에 제시된 ‘하늘의 명’은 숙향 남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나 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태산 마고선녀였던 할미는 ‘월궁항아의 명’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다. ‘월궁항아’가 숙향을 위해 마고선녀를 보낸 것은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글의 ‘하늘의 명’은 할미가 숙향과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된 까닭이나 부친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② 숙향 남자가 할미와 재회하는 과정은 이 소설의 핵심 사건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할미가 자신과의 재회를 위해 고난을 견딜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하늘의 명’을 언급한 것도 아니다.

③ 할미는 숙향의 고난에 대해 알고, 숙향을 돕기 위해 이미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또한 ‘청삽사리’를 남겨 숙향에게 도움을 주

려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라고 조언하는 것을 볼 때 할미는 앞으로 숙향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할미는 숙향 남자가 앞으로 갈등 상황을 겪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액운이 곧 끝나서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날 것이라 위로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조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충고하기 위해 ‘하늘의 명’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05 고전 산문

본문 125~128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 작자 미상, 「정진사전」

해제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자 미상의 장충형 가정 소설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는 결혼담에 있어서 남 주인공이 여복으로 변장하고 가서 장차 약혼하게 될 여 주인공과 선을 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 주인공 역시 자신의 남성 친척을 여장시켜 남 주인공의 누나와 선을 보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고전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후반부에는 애첩이 여 주인공을 몰아내기 위해 불랑배로 하여금 여 주인공을 납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납치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역시 기존의 고전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만큼 당시에 유행했던 사실적인 표현 방법의 영향을 받아 사건 전개에 대한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남녀 주인공의 결연과 처첩 간의 갈등 해결을 통한 유교적 가치관의 지향

전체 줄거리 충청도 괴산에 사는 정 진사는 창인과 규봉이라는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다. 어느 날 정 진사의 이웃에 사는 박 소저와 최 소저가 규봉을 초대하자, 창인이 규봉 대신 여장을 하고 초대에 응해 밤늦도록 두 소저와 시를 주고받으며 놀게 된다. 창인이 쓴 시를 보고 그가 남지임을 알게 된 최 소저와 박 소저는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께 알리고, 이에 두 소저의 부모와 정 진사는 창인을 박 소저, 최 소저와 혼인시키기로 약조한다. 한편 박 소저의 사촌 광철과 규봉 사이에 혼담이 오가자 박 소저는 광철을 여장시켜 규봉의 집에 방문하게 하고, 규봉과 그의 어머니는 광철을 여자라 믿고 그를 이틀이나 묵게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창인에게 속은 것을 복수한 박 소저는 최 소저와 함께 창인과 혼인하고, 광철과 규봉 역시 혼인을 하게 된다. 한편 이조 판서가 된 창인은 어사의 명을 띠고 찾은 평양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일지라는 간악한 기생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일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집으로 데리고 온다. 창인이 임금의 명에 의해 만리타국에 가 있는 동안 이웃집에 사는 차돌과 사동한 일

지는 간교한 피로 박 부인과 최 부인을 내쫓고 정 판서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타국에서 돌아온 정 판서는 일지로 인한 집안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집안이 다시 화평해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여승은 꿈에 나타난 산신령으로부터 ‘그럴 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 것’이므로 ‘착실히 접대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인은 박 씨에게 ‘내일 밤에 괴상망측한 욕을 당할 것이니 부디 멀리’ 가라고 당부하지만 박 씨는 ‘일시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오면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할 것이고, ‘어미 없는 채순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며 노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② 박 씨는 ‘오늘 밤에 우리 집 문밖에 돌광대 논다 하더이다.’라는 운선의 말을 듣고 ‘이것이 분명 무슨 일 있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염려하였다.

③ 박 씨는 장 씨를 찾아가 자신이 꾸는 꿈을 소상히 말하고, 이후 진사에게 자신과 장 씨가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 씨는 박 씨가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실을 박 씨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진사는 집을 나가 갈 곳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박 씨의 말을 들은 후에 ‘젊은 여자가 친정도 아니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든 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사는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꿈에 나타난 노인에게 ‘내일 밤에 괴상망측한 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박 씨는 운선으로부터 돌광대가 논다는 말을 듣고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다, 해가 저물자 혼자 있기 싫어 장 씨를 찾아가다. 그 후 꿈에 나타난 노인의 인도로 금강산 무술암으로 가게 되어 봉돌에게 납치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은 ㉡에서 발생한 박 씨의 심리적 갈등이 고조되는 시간이고, ㉢은 이러한 박 씨의 심리적 갈등을 야기했던 원인이 사라진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박 씨를 모해하고자 하여 밤마다 차돌과 더불어 의논하더니’라는 구절을 통해 ㉠은 일지와 차돌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지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봉돌에게 납치된다는 점에서 ㉢이 일지와 차돌의 의도대로 그 행

위가 실현되는 시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일지를 납치한 봉돌이 밤새도록 달아나 경기 고양 읍내 사백팔십 리를 들어간다는 점에서 ㉔은 일지가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멀어지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씨는 돌광대가 온다는 운선의 말을 듣고 자신이 머물던 방에서 나와 장 씨가 있는 큰방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㉔이 박 씨가 자신이 머물렀던 곳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박 씨의 꿈에 나타난 노인은 박 씨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일지와 차돌이 꾸민 계락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㉔이 ㉑에서 야기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㉔ 역시 ㉑에서 야기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박 씨는 꿈에 나타난 노인의 도움을 받아 일지와 차돌이 세운 계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봉돌을 통해 박 씨를 납치할 계락을 세운 일지는 오히려 봉돌에게 납치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지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박 씨의 꿈에 나타난 노인은 박 씨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며 집을 떠나 멀리 가라고 말한다. 따라서 ㉔에 나타난 노인은 꿈을 꾸 주체인 박 씨를 돕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승의 꿈에 나타난 노인은 ‘내일 아무 시에 그럴 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 것이니 부디 착실히 접대하라’고 여승에게 말한다. 따라서 ㉔에 나타난 노인은 꿈을 꾸 주체인 여승에게 박 씨를 도울 것을 안내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 나타난 노인과 ㉔에 나타난 산신령 모두 자신과 꿈을 꾸 주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② ㉔에 나타난 노인은 박 씨에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벗어날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꿈을 꾸 주체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㉔에 나타난 산신령은 꿈을 꾸 주체인 여승에게 박 씨를 도울 것을 말할 뿐, 여승이 겪게 될 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④ ㉔에 나타난 노인은 집을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는 박 씨의 말을 들은 후 ‘인명은 재천’이라며 자신이 박 씨를 인도해 줄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꾸 주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운명을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㉔에 나타난 존재인 산신령이 꿈을 꾸 주체인 여승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㉔에 나타난 노인은 ‘임의로 죽지 못하고 씻지 못할 육만 당’할 수 있다며 박 씨가 자신의 말을 따라 집을 나가 멀리 갈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이는 ㉔에 나타난 존재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꿈을 꾸 주체의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㉔에 나타난 산신령은 여승에게 박 씨를 도울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의 말을 따르면 여승의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박 씨가 돌광대를 보러 온 구경꾼을 피해 채운을 업고 장 씨가 있는 큰방으로 피신한 것은 지난밤 꿈에 나타난 노인의 말 때문일 뿐, 봉돌을 시켜 자신을 납치하려는 일지의 계락을 파악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장 씨의 방으로 피신한 박 씨의 행동에서 악녀의 계락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선인의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일지는 금석을 처치하고 상쾌한 중에’라는 구절을 통해 박 씨의 모해를 시도하는 일지가 금석을 죽인 것을 알 수 있고, 금석의 죽음은 ‘온통 집안엔 괴상한 재화가 있사와 ~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으니’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금석의 죽음은 악녀의 계락으로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이 겪은 시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박 씨가 장 씨의 방으로 들어서자 장 씨가 여승으로 변하고, 장 씨가 있던 큰방 역시 박 씨가 평생 보지 못한 방으로 변하게 되어 박 씨는 봉돌에게 납치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 씨가 여승으로 변하는 것과 장 씨의 방이 새로운 방으로 바뀌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인인 박 씨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보기>를 통해 쟁총형 가정 소설에서 악인에 대한 징벌은 악녀의 계락을 발견한 선인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악녀인 일지는 박 씨의 대응과 무관하게 본인의 궁금중 때문에 방을 나섰다가 봉돌에게 납치되어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지에 대한 징벌은 쟁총형 가정 소설의 전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악녀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⑤ 차돌은 봉돌을 앞세워 박 씨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일지에게 알려 준다는 점에서 악녀인 일지를 돕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승은 자신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말에 따라 박 씨에게 거처를 마련해 줌으로써 박 씨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선인의 시련 극복을 돕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06 고전 산문

본문 129~132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②

■ 작자 미상, 「강도몽유록」

【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국치(國恥)로 끝나게 한 위정자의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도가 함락될 때 죽은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위정자들의 죄상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후세에 훈계를 주기 위해 어느 우국지사(憂國之士)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당시의 조정 대신들과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이다. 병자호란에 대한 독창적인 고발 문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주제 병자호란의 국치를 가져온 집권층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적멸사의 청허 선사(燕尾亭)가 강화(강화)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연미정(燕尾亭) 남쪽 기슭에 움막을 짓고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청허 선사는 꿈에서 병자호란 당시 강화에서 죽은 여인들의 혼령이 한곳에 모여 울분을 토로하는 광경을 엿보게 된다. 그녀들은 돌아가면서 위정자들의 실정,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 벼슬아치나 일부 아녀자들의 변절 등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기생이 일어나 전쟁 중에 절의 있는 충신은 하나도 없었고, 부녀자들만이 정절을 지켰다고 말하자 여인들이 일제히 통곡한다. 여인들의 통곡 소리에 놀란 청허 선사는 숲속에 숨어 몸 돌비를 모르다가 꿈에서 깬다.

01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청허 선사는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나,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거나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를 듣지만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청허 선사는 꿈 이야기 안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있으나, 그들의 내면을 파악해 자세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청허 선사는 꿈을 꾸는 인물로 꿈 이야기 안과 밖에 모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물 간 갈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청허 선사는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있으나, 발화에 드러난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청허 선사는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경험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의 경험에 공감할 한 후에 슬픔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절의를 귀히 여겨 한 낭군을 모시며 살다가 뜻밖의 풍파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말한다. 이어서 부인들의 대화를 듣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하며 그들의 절개를 우러르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과거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전쟁의 상처로 인한 한을 품고 울분을 토로하는 여인들에게 절의와 지조는 하늘이 감동할 것이고, 사람이 탄복할 것이므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며 위로를 건네고 있다.
- ② ㉠은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다고 말하며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 ③ ㉠은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졌을 때 임금이 어떤 능욕을 당했는지 물음을 던지며 나라의 수치가 컸다고 말하고 있다.
- ⑤ ㉠은 나라가 수치를 당한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없었던 반면, 여기에 있는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하며 부인들을 칭송하고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는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그 원인을 남편의 무능에서 찾고 있다. [B]는 임금이 항복하게 된 상황에 대해 원통함을 드러내며 강도를 제대로 수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A]와 [B]에는 전쟁의 결과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부인은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다고 하고, [B]에서 부인은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A]와 [B]의 발화자는 모두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A]에서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체찰사의 임무를 맡았으나 공문을 살피지 않고 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하고, [B]에서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중책을 맡았으나 지형만 믿고 군사 일 돌보기를 게을리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와 [B]의 발화자는 모두 사대부가의 부녀자로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남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 ④ [A]에서 부인은 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

도 죄가 남았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B]에서 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남편 홀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원통함을 표현하고 있을 뿐, 가족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죄가 남았음을 언급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B]에서 부인은 ‘이민구’, ‘김자점’ 등 실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에 대한 조정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A]에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청허 선사가 꿈속에서 ‘석장을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다가 우연히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사대부 여인들이 모여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따라서 청허 선사가 거닌 행위 자체를 지배층의 담론 안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허 선사가 병자호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강가에 간 것은 이후 ‘잠이 들어’ 꿈속에서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여인들을 만나는 체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③ 전쟁으로 인해 ‘나라님이 피란’하고 ‘입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한 조선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부인이 재상이었던 ‘남편’이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배층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실패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기녀가 부인들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지조를 높이 우러르며 그들의 죽음을 영예롭다고 표현한 것은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대의 가치관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영웅·군담 소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며, 사건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인 옥통소의 이름인 ‘강릉추월’을 따서 ‘강릉추월전’, ‘강릉추월옥소전’이라는 명칭으로도 전해진다. 천생연분의 남녀가 혼인으로 이룬 가족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이별하게 되고 극적으로 상봉하는 서사 구조 안에 부자 관계인 두 주인공이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영웅적 활약을 펼치며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장쾌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체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주제 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

전체 줄거리 신라 시대 강릉의 사곡봉 아래에 살던 이춘백은 선관을 만나 자신의 전생에 대해 듣게 되고 ‘강릉추월’이라는 옥통소를 얻는다. 어느 날 춘백은 뱃놀이하다가 중국 옥문동에 이르러 조상서의 딸 조 소저를 만나 혼례를 올리고 강릉으로 돌아온다. 그 후 춘백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황해 감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부인과 함께 돌아오던 중 수적을 만나게 되는데, 조 부인은 수적에게 납치되고 춘백은 표류하다가 중국에 이른다. 임신 중이었던 조 부인은 수적의 소굴에서 탈출하여 중이 되고 아들 운학을 낳아 설영국에게 양자로 주어 키우게 한다. 수적의 우두머리 장수백은 어린 운학을 납치하여 해룡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친아들로 속이고 기른다. 해룡(운학)은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어사가 된 후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안 뒤 수적을 소탕하고 어머니를 만난다. 한편, 춘백은 중국에서 도사를 만나 병법을 배우고 축의 승상이 된다. 축이 전쟁을 일으켜 송을 공격하자 이때 운학은 송 황제의 요청에 의해 지원군의 대장으로 참여하던 차에 옥통소를 매개로 부자 상봉을 하게 된다. 춘백과 운학 부자는 난리를 해결한 후 신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온갖 복록을 누리다가 승천한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신이 지난밤에 천문을 ~ 역하면 화 있으리이다.’라는 승상의 말에서 자연 현상에 근거하여 대화의 상대방인 축왕이 천명을 따르도록 설득하려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인공이 도술을 쓰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사건은 나타나지만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경관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사건은 모두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천상의 사건과 지상의 사건을 교차하여 입체적인 서사 진행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인물들 간 갈등 상황에서 인물이 도술을 행사함으로써 초현실

07 고전 산문

본문 133~136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①

■ **작자 미상, 「옥소전」**

(해제)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고전 소설이

적인 사건이 펼쳐지기는 하나, 초현실적인 존재가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천자는 축왕이 보내온 항복 문서를 보고 승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축왕에게 벼슬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운학이 올린 첩서를 보기 전에 대사마의 승전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사마가 축진 동정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 풍우와 같이 쫓’는 모습에서 운학의 공격으로 축이 열세에 몰리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춘백은 ‘철망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술을 사용하여 축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② 장수백은 ‘송진 대사마’는 ‘소장의 수양아들이요, 어천수의 사위’라고 말한다. 이로써 장수백은 운학의 양아버지이고 어천수와는 사돈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장수백과 어천수는 운학과 전쟁터에서 맞서 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축왕이 대사마에게 ‘마침 부공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라고 말한 것에서 축왕이 춘백과 힘을 합쳐 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춘백이 전장에서 아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축왕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단념하고 ‘천자께 가 뵈옵고 죄를 청’하려고 한다.

⑤ 승상 부자가 조 상서 맥을 찾아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인 것에서 조 상서 부부는 춘백의 장인과 장모임을 알 수 있고,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라는 상서 부부의 말에서 그들이 춘백이 사망했다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꿈이나 생시냐’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이러한 경사 또 어디 있리오.’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3 소재의 가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춘백은 운학이 부는 옥소 소리를 듣고 ‘옥소 곡조도 또한 자기의 강릉추월’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운학이 보내 준 ‘천만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아니 나’는 옥소를 승상이 불자 운학은 그 소리를 듣고 축진 중에 가서 자신을 가리켜 ‘불초자’라고 말한다. 이로써 옥소가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는 정체를 증명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운학이 옥소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춘백은 옥소 소리를 듣고 ‘이는 장자방 후 일인이라.’라고 감탄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허무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③ 이운학이 울울하여 옥소를 불자 적진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

답 ④

답 ⑤

며, 운학은 이춘백이 부는 옥소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운학이 옥소로 인해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어천수는 운학에게 이춘백의 글월을 전달하고 ‘자초지종’을 말해서 받아 온 옥소를 춘백에게 전해 줌으로써 춘백과 운학이 부자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천수가 옥소로 인해 이춘백의 자격과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축왕이 기적적으로 ‘부자가 상봉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천자와의 전쟁에서 이겨 천하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에 해당하며, 이는 승상과 대사마의 상봉으로 좌절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의 모습에서 현실의 삶에 지친 당대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는 작품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중국의 송나라와 촉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서 축왕은 ‘당초부터 승상의 지휘’를 좇았다고 말한다. 축왕은 우리나라 사람인 춘백의 말을 잘 따랐는데, 이는 춘백이 위기 해결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설정에서 당대의 독자는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③ 춘백은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여생’의 몸이 된다. 그리하여 춘백은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물이 고난받는 모습은 <보기>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피폐해진 삶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민중이 당한 고난과 시련이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조선 후기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영웅·군담 소설도 꽤 유행하였다. 그런데도 굳이 가족 관계 중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남성 인물들로 하여금 타국의 ‘만리 전장에 원수로 만나’ 저마다 영웅적 활약을 펼치게 하고 가족의 이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축이 되게 한 것은 <보기>에 의하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아버지와 아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아버지는 축의 ‘승상’이 되고 아들은 송의 ‘대사마’라는 높은 벼슬에 올라 난리를 평정하는 업적을 이룬다. 그 후, 천자의 보상으로 아버지는 송의 승상이 된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인물의 모습은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진 당대 독자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다.

08 고전 산문

본문 137~140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④

■ 작자 미상, 「천수석」

〔해제〕 이 작품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 허구적 인물들과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가문 소설로, 후반부로 갈수록 중국의 실제 있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당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인공인 보형과 옥영의 애정과 혼인을 둘러싼 갈등 및 그 해결 과정을 주요 서사로 하는 이 작품은 당 말엽 한 왕조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임금과 신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교적 윤리관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여장을 한 악인이 그 정체가 들롱나 곤경에 빠지는 장면 등 독자들에게 통쾌감을 주는 요소를 활용하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한편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북성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더욱 기이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북성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또 다른 가문 소설인 「화산선계록」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천수석」과 「화산선계록」이 연작 소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제〕 혼인을 둘러싼 가문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전체 줄거리〕 위광미와 부인 이 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위보형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추어 위광미의 둘째 부인인 양 씨의 시기를 받는다. 보형은 외숙부인 이 처사에게 가서 학문을 닦은 후에 설옥영과 혼인하게 된다. 이에 양 씨는 탕자인 간옥지와 음탕한 여자인 이초혜를 시켜 보형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이로 인하여 보형 부부는 온갖 고난을 겪게 되지만, 보형은 그 와중에도 장원 급제를 하게 되고 이에 임금 의종은 보형을 동창 공주의 부마로 삼고 설옥영은 집에서 내쳐진다. 고난 속에서도 설옥영은 아들 사원을 낳고 그 사실을 안 동창 공주가 옥영과 사원을 돕는다. 이후 동창 공주는 곽 숙비, 이초혜를 포함한 악인들의 음모로 목숨을 잃게 되고, 보형은 옥영과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 관계를 회복한다. 한편 곽 숙비의 배려를 배신하고 비밀리에 의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이초혜에 의해 황실의 혼란은 계속된다. 보형은 이를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면직당하여 화주 자사로 좌천된다. 이 틈을 타 양 씨가 사원을 살해하려고 한다. 이때 위부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위험을 피해 이 처사에게 가던 중 납치당한 사원은 탈출한 후 이극용의 양자가 되고, 많은 고난을 겪던 보형 부부는 화산에 사는 노인의 도움으로 선계로 들어간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보형은 난을 토벌하는 데 참가하여 공을 세운 후 죽음을 감춰 버린다. 간신들이 몰락해 가는 당나라 황실에 반기를 들자 이극용은 사원과 함께 난을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도적이 되었던 간옥지와 이초혜를 잡아 원수를 갚는다. 당말의 계속되는 혼란을 겪으면서 사원은 후당의 제대 황제인 장중을 살해한 무인들의 추대를 받아 제2대 황제인 명종이 되어 혼란한 정치를 안정시켜 오대 시대 으뜸 명군으로 칭송받고, 사원의 아들 복성이 그 뒤를 잇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양 부인은 보형과 옥영의 혼삿날이 되어서야 두 사람이 혼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간문추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도중에 옥영을 탈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양 부인이 보형과 옥영의 혼례 때 간문추에게 옥영을 탈취할 계획을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설 부인은 간문추의 계획을 글로 써서 설정문에게 알리고, 보형과 옥영의 혼사를 서두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설정문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아 보형과 옥영의 혼사가 늦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간문추가 보형과 옥영의 혼사를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장 씨는 옥영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은 간사한 이의 흥계를 만날 줄 알았겠느냐며 탄식하고 있을 뿐, 자신의 부주의로 옥영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다.

③ 보형과 옥영의 혼례를 늦추지 말자고 제안한 사람은 위광미 형제가 아닌 설정문이고, 위광미 형제는 이러한 설정문의 제안에 따라 보형과 옥영의 혼인 날짜를 다시 잡았다.

④ 위광미 형제와 설정문은 보형과 옥영의 혼인 날짜를 다시 잡은 후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으며, 위광미만 어머니께 보형과 옥영의 혼인 날짜를 다시 잡은 사실을 아뢰었을 뿐, 보형과 옥영의 혼사 계획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가족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간문추의 집으로 간 이극용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데려온 연유를 묻는 방식으로 간문추를 조롱하자, 간옥지는 이극용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지며 쥐 숨듯 달아'난 후 여장을 하고 옥영을 보러 간다. 따라서 이극용이 가마에서 나와 옥영과 보형의 혼사가 끝날 때까지 간옥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극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와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 도리끼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라는 구절을 통해, 간문추와 그의 무리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가마를 탈 때 이극용은 갑옷과 무기를 챙기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극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와 '위보형은 단장한 설옥영과 전안례를 마친 후 설옥영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

을 준비를 하였다.’라는 구절을 통해, 옥영이 가마를 타고 보형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이극용이 탄 가마를 먼저 큰길로 내보내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 큰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떼의 무수한 하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나왔다.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뺏어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향하였다.’라는 구절을 통해, 간문추의 하인들이 나타나면 시종들은 저항하지 않고 가마를 간문추의 하인들에게 내어 주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설옥영이 타고 오는 가마를 뺏어 곧장 간 국구의 집으로 왔다.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 문을 열었다.’와 ‘그러나 발을 들어 본 가마 안에는 옥 같은 가녀린 미인은 간 곳이 없고 큰 사내 한 놈이 서릿발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벽력같은 소리를 내질렀다.’라는 구절을 통해, 이극용은 간문추의 집에 도착한 후 가마가 열릴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가마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C]에서 간옥지는 보형의 시종들이 자신의 몸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무례’하다고 말한 후,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라며 시종들을 헐박하고 있다. 이에 보형은 [D]에서 간옥지가 국구의 자제라는 점을 들어 여장을 하고 규방 안을 몰래 엿본 간옥지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C]에서 언급된 ‘훗날’ 일어난 일은 간옥지를 막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양상을 [D]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언급된 ‘흥측한 계책’은 간문추가 옥영을 탈취하여 간옥지와 강제로 혼인을 시키려는 것으로, [B]의 ‘설씨네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씨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라는 양 부인의 말을 통해 ‘흥측한 계책’을 세운 사람이 양 부인임을 알 수 있다.

② [B]에 언급된 ‘묘한 계책’은 옥영을 탈취하여 간옥지와 혼인시키려는 것으로, [A]의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흥측한 계책을 꾸며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오.’라는 설정문의 말은 ‘묘한 계책’에 대한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B]에 언급된 ‘뜻밖’의 ‘혼인 준비’는 설정문과 위광미 형제가 간문추와 간옥지, 양 부인 몰래 보형과 옥영의 혼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C]의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라는 간옥지의 말은 이러한 ‘뜻밖’의 ‘혼인 준비’에 대한 간옥지의 생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D]에 언급된 ‘변고’는 간옥지가 여장을 하고 옥영을 엿보는 행위로, [C]의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 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라는 간옥지의 말은 이 ‘변고’를 행한 간옥지의 변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보형이 여장을 한 간옥지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로 인해 간옥지가 곤경에 빠지는 모습은, 악인이 곤경에 처하는 과정이 여장 모티프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통쾌감을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간문추의 가족이 놀라서 덜덜 떠는 것은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옥영이 아닌 이극용이 가마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기 때문일 뿐, 이극용의 여장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가마에서 옥영 대신 이극용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간문추의 가족이 놀라는 모습을, 악인이나 그 주변 인물이 곤경에 처하는 과정이 여장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설정문 부부와 위광미 형제는 보형과 옥영을 혼인시키려 하고, 간문추 부자와 양 부인은 이러한 보형과 옥영의 혼인을 방해한 후 옥영을 간문추의 아들인 간옥지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혼인이 집안과 집안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혼인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은 악인과 선인 가문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보형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장을 하고 옥영의 행동거지를 살피는 간옥지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러한 보형의 모습은 주인공이 자신의 비범함을 통해 악인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몽둥이를 들고나온 간문추의 하인들은 보란 듯이 큰길에서 이극용의 가마를 호위하는 시종들을 몽둥이로 내쫓은 후 간문추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가마 탈취를 명한 사람이 국구인 간문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간옥지는 보형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뒤에 자신의 행위를 누우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간문추의 아들임을 밝히며 보형의 시종들을 헐박하고 있다. 이러한 하인들과 간옥지의 행위를 통해 ‘국구’라는 지위가 보형과 옥영의 혼인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형은 여장을 한 간옥지가 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이유로 용서한다고 말하며 마음 놓고 자신의 혼인 잔치를 구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악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를 용서하는 선인의 대응 방식에 해당한다. 한편 이극용은 가마에서 내린 후 간문추에게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묻고 있는데, 이는 악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상대를 조롱하는 선인의 대응 방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형과 이극용의 모습을 통해 악인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인물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09 고전 산문

본문 141~145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 작자 미상, 「수궁가」

〔해제〕 이 작품은 별주부와 토끼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통해 조선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이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별주부 타령’, ‘토별가’, ‘토끼 타령’이라고도 불린다. 판소리 ‘수궁가’는 상당히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된 ‘구토지설’과 유사하다.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우화적 수법을 바탕으로 재치 있고 아기자기한 창과 아나리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등장인물들의 재치와 해학적 상황, 당시 정치 상황과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주제 자라의 충성심과 토끼의 기지, 지배층의 무능과 헛된 욕심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남해 용왕이 병이 나서 백약이 무효한데,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알려 준다. 결국 별주부 자라가 자원하여 토끼 화상을 가지고 육지에 가게 되는데, 어렵게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속여 함께 용궁으로 가게 된다.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 앞에서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토끼는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답하고,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은 자라와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낸다.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숲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라는 토끼 똥을 약으로 가져가 용왕을 살리게 된다.

01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자라는 토끼의 화상에 물을 묻히지 않고 수로만리를 지나기 위해 자신의 목 부분에 화상을 집어넣고 있다. 따라서 ㉠은 약을 구해 오라는 임금의 명을 따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호랑이를 놀라게 하기 위한 행동이지 호랑이의 명을 따르는 척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자라(별주부)는 딱지 속으로 완전히 목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 길이가 긴 화상을 보관하고 있다. ㉡에서 자라는 목이 매우 길게 늘어난다는 특성을 이용해 호랑이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고 있다.

②, ③ ㉢이 화상을 가지고 ‘수궁’이라는 공간을 지나갈 때, 화상이 바닷물에 젖지 않게 보관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은 자라의 목이 길게 늘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호랑이를 놀라게 해서 호랑이에게 겁을 주려는 행동이다.

④ ㉠이 자라가 ‘토끼’의 화상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토끼를 찾아 데려오는 임무를 무사히 마치기 위한 행동이라면, ㉡은 자라를

잡아먹으려 덤비는 호랑이를 놀라게 하여 자신을 구명하기 위한 행동이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와 [B]는 용왕께 하직 인사를 한 별주부가 모친과 부인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A]에서 별주부 모친은 자신의 만류에도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별주부를 두고 그 충심(지기)이 매우 깊음을 칭찬하고 있다. [B]에서 별주부 부인은 절행지사를 다짐하는 열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별주부는 ‘뒤 툇털발 남생이가 흠일세.’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부인을 두고 떠나면서 남생이로 인해 그 절행이 훼손될까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별주부 모친은 별주부의 지기와 충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라를 만류했다고 말하고 있다. [B]의 부인은 자라의 ‘군신유의 강한 충성’과 자신의 ‘절행지사’를 칭송하고 있다. 둘 다 별주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② [A]의 별주부 모친은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다고 말하면서 별주부의 ‘지기를 보기’ 위해 만류하였음을 털어놓고 있다. 하지만 [B]의 부인은 헤어지는 아쉬움과 자신의 절행을 드러내고 있을 뿐, 별주부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모친의 만류에 대한 별주부의 반응을 통해 별주부의 의지와 기개를 부각하고 있지만, [B]에서는 부인의 다짐에 대해 별주부가 ‘툇털발 남생이’를 떠올리며 의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별주부의 반응을 통해 아내의 엄숙함과 절개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별주부 모친은 별주부의 행차를 끝까지 만류하고 있지는 않다. 별주부 모친은 별주부의 지기와 충심을 높이 여겨 육지에 다녀올 것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B]에서는 떠나지 말 것을 애원하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내의 행동이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03 인물의 제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은 수궁가의 전체 서사나 핵심 줄거리와 관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재미를 위한 삽입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창자(서술자)는 별주부가 ‘수로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뻗뻗’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개연성을 부과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일 뿐, 앞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별주부가 의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별주부는 토끼를 보고 ‘저기 앓은 게 토생원 아니오?’라고 말

하러다가 실수로 '~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 호랑이가 나온 것은 별주부가 '호생원'을 붙렸기 때문인 것처럼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별주부의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여 재미를 주고 있다.

③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들고 내려오는' 상황임을 언급함으로써 호랑이가 등장하는 상황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호랑이가 자신을 추켜올려 주는 말을 좋아하는 성격임을 드러내며 재미를 주고 있다.

④ '누에머리를 흔들며 ~ 새납 같은 발톱으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호랑이의 외양을 형상화한 부분으로, 관객들이 호랑이의 움직임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⑤ 호랑이가 나타나 다가오는 모습을 '주홍 입 떡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서 흥앵흥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엎고 땅이 툭 깨지 난 듯'이라고 과장하여, 거대한 호랑이를 만난 별주부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04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는 호랑이와 자라의 대화를 중심으로 자라를 잡아먹으려 들 이대는 호랑이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맛 좋은 진미'를 먹을 것 이라 기대하는 호랑이와 자신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호랑이를 보고 '기가 막혀' 하는 자라의 갈등이 대비적으로 드러내며 재미를 주고 있다. [D]는 호랑이에게 겁을 주려고 자신의 목을 늘어 보이는 자라의 말과 행동을 주로 표현한 부분이다.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자라의 입장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과 행동을 목을 늘 일 수 있는 자라의 특징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라의 순발력과 기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C]는 호랑이와 자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서술자가 거시적 사건의 진행 과정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D]에서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자라의 입장에서 자라가 하는 말과 행동을 세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C]는 작중 인물의 대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호랑이와 자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관찰하고 파악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장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D]를 통해 호랑이에게 겁을 주어 목숨을 구하려는 자라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독백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④ [C]는 호랑이와 자라의 대화가 번갈아 제시되면서 두 인물이 가진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D]는 작중 인물인 자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서 자라의 위기 상황이나 호랑이의 외형을 묘사하는 부분은 아니다.

⑤ [C]에서 자라를 만난 호랑이가 자라를 얼른 잡아먹고 싶은 속 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을 독백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D]에서 자라는 자신의 사연을 거것으로 꾸미며 과장하고 있다. 자라가 목을 길게 늘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 객관적 태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고전 산문

본문 146~150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③

■ 작자 미상, 「심청전」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심청가」와 관련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같은 작품이라도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여 이본마다 내용과 표현에 적잖은 차이가 있다. 지문은 「심청전」 이본 중 '박순호 소장 39장본'으로 불리는 작품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은 심청의 삶을 통해 극진한 가족애와 타자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주제 의식으로 제시한다. 눈먼 아버지에게 심청이 보이는 극진한 가족애는 효라는 유교적 가치와 연결되어 「심청전」을 향유하는 사대부들에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문학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심청이 보여 준 조건 없는 이타심과 가족애가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고귀한 가치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심청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때 작품의 주제는 효와 가족애가 된다. 그러나 심 봉사(심봉사)와 뽕떡어미(뽕떡어미)에게 초점을 맞추면 효와 가족애라는 유가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 작품에서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가난한 아버 때문에 어린 심청이 구걸을 다녀야만 했고 재물을 받고 팔리기까지 하는 모습에서는 조선 후기에 빈곤으로 내몰렸던 서민 대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무능한 가정을 보살피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아내인 딱시 부인과 딸인 심청이 감내해야 했던 모진 고생과 희생에 초점을 맞추면, 조선 시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속박을 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유리국 도화동에 심 봉사라는 이가 살았다. 그는 명문가의 후예이나 가문이 몰락하였고, 젊을 적에 얻은 병으로 시력을 잃었다. 늦도록 아이가 없어 슬퍼하던 그와 그의 부인 딱 씨가 하늘에 기원해 심청을 얻었는데 태몽에 이르길 심청은 적강한 천상 선녀라고 했다. 심청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딱시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 심 봉사는 젖동냥을 해 심청을 기르고, 심청은 밥 동냥을 다니며 심 봉사를 돌본다. 어느 겨울날 밥을 빌러 나간 심청을 기다리다 개울에 빠진 심 봉사는 지나가던 보은사 화주승에게 구조되는데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뜨리라는 그의 말을 듣고 시주를 약속한다. 심청은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장

사 다니는 선원들에게 장삿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물로 자신을 판다. 제물로 인당수에 던져진 심청은 용왕에게 구해져 용궁에서 삼 년을 보낸 후 꽃에 담겨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 바다에 떠 있던 그 꽃을, 과거 인당수에 심청을 제물로 바쳤던 선원들이 발견해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는 꽃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맞이한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인다. 심청은 떠나보낸 뒤 뺨뚱어미와 함께 살던 심 봉사는 맹인 잔치 소식을 듣고 황성으로 향한다. 도중에 뺨뚱어미에게 버림받아 고생을 하던 심 봉사는 안씨 맹인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황성에 가서 심청을 만나 눈을 뜨게 된다. 심 봉사는 부원군에 봉해져 안씨 맹인과 함께 삼 형제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심청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자식들도 모두 출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을 본 후 세상을 하직하여 천상 세계로 돌아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한 여인’은 ‘안씨 맹인’으로, 그는 시비를 시켜 문 앞을 지나가는 심 봉사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게 한 후 ‘첩이 비록 용우하나 버리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 즉 심 봉사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심 봉사에게 말한다. 따라서 ‘한 여인’이 심 봉사와 연분을 맺고자 하는 바람을 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 여인’은 자신이 꾸 꿈을 바탕으로 점을 친 결과 심씨 성을 지닌 맹인과 만날 것을 예측한다. 그리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길을 가던 심 봉사를 만나 그를 집 안으로 들인 후 그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집안에 우환이 있어 심 봉사에게 독경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 ② ‘한 여인’은 심 봉사에게 말을 하면서 ‘나와 같이 맹인인 줄 짐작하고’라고 하며 자신이 맹인임을 밝힌다.
- ④ ‘한 여인’이 심 봉사를 집 안에 들인 까닭은 곤경에 처한 심 봉사를 가엾게 여겨 그를 돕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꾸었던 꿈의 해몽에 따라 심 봉사를 만나고자 해서이다.
- ⑤ ‘심 봉사 전후 신세를 날날이 말한 후에 방성통곡 슬퍼하니, 안씨 맹인 위로하고’라는 구절에 나와 있듯이 ‘한 여인’은 심 봉사의 전후 신세를 듣고 그를 위로해 준다. 그러나 ‘한 여인’이 심 봉사를 의심하여 불안해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안씨 맹인이 꾸 꿈이다. ㉠에 대한 해몽을 바탕으로, 안씨 맹인은 ‘시비를 내어보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묻’는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을 통해 인물이 한 행동의 이유가 제시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은 심 봉사가 꾸 꿈이다. ㉡에 대해

안씨 맹인이 한 ‘자녀를 상봉이라.’라는 해몽을 통해 심 봉사와 심청의 재회가 암시된다. 따라서 ㉡을 통해 인물 간의 재회가 암시된다는 설명도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안씨 맹인이 꾸 꿈으로 안씨 맹인과 심 봉사의 만남을 예고하며, 인물들의 헤어짐과는 무관하다.
- ② ㉠ 때문에 인물이 근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을 통해 안씨 맹인은 자신과 연분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 ③ ㉠ 때문에 생겨난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을 꾸고 나서 안씨 맹인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앞날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을 꾸고 나서 심 봉사는 앞날에 대해 근심하게 되고, 안씨 맹인은 ㉡을 해몽하여 심 봉사와 심청의 재회를 암시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 고생을 어이하셨나이까’에서 ‘고생’은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리어 심 봉사를 떠난 이후에 심 봉사가 혼자서 겪어야 했을 고생을 말한다. ‘슬프다 아버지야’는 심 봉사가 딸 없이 혼자 지내면서 겪어야 했을 고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심청이 한 말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탄’ 때문에 심청이 겪어야 했을 고생에 관한 언급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는 「심청가」의 내용을 한시로 표현한 작품으로, (가)의 ‘하늘이 낸 효녀’와 (나)의 ‘효성스런 딸’은 모두 심청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에서 ‘하늘이 낸 효녀는 육신을 팔기 원했다네.’라는 구절과 (나)에서 ‘효성스런 딸’이 ‘육신을 바치기 원하니’라는 구절은 「심청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 ② 심 봉사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심청은 심 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게 된다. (나)에서 심청이 ‘아버를 알아보았’던 이유는 바로 심 봉사가 들려준 자신의 지나온 삶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심청이 심 봉사의 말을 듣고 ‘부친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 「심청전」의 장면을 바탕으로, (나)의 심청이 ‘아버를 알아보았’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가)의 ‘죽은 자 환생하고’라는 구절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을 말한다. 이 내용은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죽은 심청 살았으니’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일을 가리킨다. 아울러 심 봉사가 황후가 된 심청을 보고 ‘죽은 딸을

다시 보니'라고 말할 것도,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⑤ (가)와 (나) 모두, 심 봉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을 다시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가)는 '맹인이 눈 뜨게 했네'라는 구절로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효녀의 효심으로 '맹인이 눈 뜨게' 된 신이한 사건을 상대적으로 부각하는 반면, (나)는 '황후가 되고', '아비를 알아보았네'라는 구절로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황후'가 된 딸과 아버지의 상봉을 좀 더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가)와 (나)의 작가가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0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맹인 잔치를 배설한 목적을 황후(=심청)의 목소리로 직접 진술하고 있는 것은 [A]가 아니라 <보기>이다. <보기>의 '이 잔치 배설한 바는 부친을 뵈옵자고 하였더니'라는 심 황후의 말에서 맹인 잔치를 배설한 목적이 황후의 목소리로 직접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심 봉사의 이름이 맹인 잔치의 성명 성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성명 성책 다시 보니 성책 끝에 '도화동 심학구라'하였거늘'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기>에는 '성명 성책을 아무리 들여놓고 보시되 심씨 맹인이 없으니 자탄하사'라는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심 봉사의 이름이 성명 성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심 봉사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소신이 미실 미가하여 천지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밥을 부치어 유리하여 다니오 매 어느 고을 거주 완전히 없사오니 성책에도 들지 못하옵고'라는 심 봉사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보기>를 비교했을 때 <보기>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심 봉사의 가련한 처지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A]에서 황후가 된 심청은 맹인의 성명 성책에서 '심학구'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시녀를 시켜 심 봉사를 내전으로 들게 하며, 자신이 직접 맹인 잔치에 나가 보지는 않는다. 반면 <보기>의 심청은 '잔치는 오늘이 마지막이니 친히 나가 보리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잔치 자리에 나가 본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할 때 [A] 보다는 <보기>에서 부친을 찾고 싶어 하는 심청의 간절함이 더욱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A]에 보면 황후가 된 심청이 시녀를 시켜 심 봉사를 부르자 그가 꺼리는 마음이 들어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하다가 이내 생각을 바꾸어 자신이 심 봉사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그가 꺼리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A]의 앞 장면에서 나온 심 봉사의 꿈과 관련이 있으며, 그가 자신이 심 봉사임을 밝히게 된 이유도 [A]의 앞 장면에서 나온 안씨 맹인의 해몽 때문이다. <보기>에는

심 봉사가 꾸었던 꿈과 그 해몽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A]에서 심 봉사가 보여 준 행동을 그가 과거에 겪은 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는 심청이 심 봉사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심청이 맹인 잔치를 구경하는 장면, 잔치가 파한 후에 잔치에 참석한 맹인들에게 의복을 한 벌씩 내어 주고, 맹인들의 하례를 받는 장면이 제시된다. 그러나 [A]에는 이러한 장면 없이 심청이 맹인의 성명 성책에서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심 봉사를 불러들여 바로 만나는 것으로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A]와 <보기>를 비교할 때, 맹인 잔치를 통해 심 봉사와 심청이 재회하는 과정이 보다 빠르게 전개된 것은 [A]라고 할 수 있다.

11 고전 산문

본문 151~154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②

■ 작자 미상, 「지봉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작자 미상의 한문 소설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을 투영한 세태 소설로 볼 수 있다.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 절개가 꺾인 남성의 서사라는 점에서 휘절 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휘절 소설은 '휘절(지조와 절개를 깨뜨림)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유형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신하던 사대부 남성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서사의 초점이 위선의 풍자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지봉의 휘절을 주도하는 임금의 행위는 젊은 신하인 복상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한 부덕이 한 선택일 뿐 지봉을 조롱하려는 악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봉은 기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지는 않으며, 되레 임금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에서 용기와 위엄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적 욕망을 배척하고 관념적 도덕성에 집착하는 지봉이라는 인물이 임금의 계획에 따라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경직된 도덕성을 반성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할 줄 아는 인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내용에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일체의 관념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가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한 긍정과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경직된 윤리적 태도 비판

전체 줄거리 효종의 총애를 받는 김복상이 궁녀와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효종에게 발각된다. 효종은 복상의 행동이 국법에 어긋난 것이기는 하나 너그럽게 이해하여 용서해 주려 한다. 그러나 깨끗하고 곧은 품행으로 공경을 받는 지봉 이수광이 법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복상의 처벌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하니, 효종도 어쩔 수 없어 복상과 궁녀를 귀양 보낸다. 이후에도 효종은 줄곧 복상을 애처롭게 여겨 유배에서 풀어 주고 싶었지만 지봉이 있어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지역 순찰의 임무를 주어 지봉을 평양으로 보내고, 비밀리에 평양 감사에게 조서를 내려 그곳의 기생을 시켜 지봉을 유혹하라고 명한다. 임금의 명에 따라 평양 감사는 여러 기녀들을 동원하여 지봉을 유혹하게 하나 모두 실패한다. 이 소식을 들은 은퇴한 기녀 백옥이 지봉을 유혹하는 일에 자원하여,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게 계교를 부려 마침내 지봉이 절개를 잃도록 한다. 평양 순찰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지봉은 스스로 효종에게 자신이 백옥에게 유혹당해 절개를 잃은 것을 고백하고 참회한다. 이에 효종은 지봉의 정직함을 칭찬한 후 지봉처럼 품행이 바른 선비도 그러할진대 복상같이 젊은 사람이 남녀 간의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복상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을 지봉에게 부탁한다. 효종의 자애심과 인자함에 감동을 받은 지봉은 효종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효종은 복상과 궁녀를 유배에서 풀어 준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지봉을 평양으로 보내어 절개를 깨뜨리게 한 것, 평양에서 돌아온 지봉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백옥과 재회하게 한 것이 모두 임금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임금은 지봉이 백옥을 알아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앞에서 술을 건넨 여성이 백옥임을 알아차렸을 때 지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⑤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지봉이 눈길을 보내 백옥을 확인하기 직전까지 상대방이 백옥이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복상의 죄를 벌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올렸음에도 ㉠에 서술된 것처럼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은 복상이 잘못을 범한 데에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과 지봉의 대화 장면에서 ‘그것(복상의 잘못)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임금의 말에 잘 드러난다.

② ㉠와 같이 복상을 처벌하기로 결정할 때, 임금의 판단에 작용한 것은 바로고 곧은 신하인 지봉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복상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다. 임금은 지봉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상에게 벌을 주었고, 복상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

겨 벌을 주되 사형만은 면하게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③ 임금은 범의 가족을 갇힌 의자를 내어놓고 나서 조정의 신하들 중에 첩이 없는 사람만 그 의자에 앉게 한다. 여기에는 복상의 죄를 물었던 조정의 신하들 중 복상을 비난할 만큼 윤리적으로 떳떳한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임금의 힐난이 담겨 있다. 임금의 명령에 지봉을 제외한 다른 신하들은 ㉡에 서술된 것처럼 눈치를 보며 아무도 의자에 앉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첩을 두고 있어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떳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임금은 복상의 죄를 용서하자는 말을 신하들에게 하고 싶지만 ㉢에 나타나 있듯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임금이 복상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몸가짐이 바르고 곧아 평소 자신이 공경해 온 지봉이 복상을 엄히 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임의로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상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 때문에 임금이 복상의 죄를 용서하자는 말을 꺼내기 곤란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는 본책 외에 첩을 두지 않은, 행실이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만 앉을 수 있으므로, 지봉 홀로 ㉠에 앉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조정의 신하들이 지봉의 ‘몸가짐의 고상함’에 ‘감복했다’고 표현한 것에서 ㉠이 인물의 품행이 고상함을 알게 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지봉이 임금에게 전별 선물로 받았지만, 이후 백옥과 인연을 맺어 절개를 깨뜨리면서 정표로서 백옥에게 준 물건이다. ㉢이 지봉이 아닌, 백옥의 손에 가 있다는 것은 지봉이 절개를 깨뜨렸음을 알려 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은 인물이 절개를 잃었음을 알게 하는 사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임금이 복상에게 갖는 은애(恩愛: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인물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복상은 잠에서 깨어난 후 ㉠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란다. 그러므로 ㉠은 인물을 놀라게 하는 사물이지만 인물의 놀란 마음을 나타내는 사물은 아니다. ㉡은 임금과 지봉의 관계에서는 충신을 존중하는 임금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물이며, 지봉과 백옥의 관계에서는 백옥에 대한 정표로 지봉이 준 사물이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박정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조정 신하들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된 사물이다. ㉠을 통해 지봉의 고상함이, 다른 조정 신하들이 윤리적으로 떳떳지 못함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인물에 대한 자애심을 드러내는 사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 ㉡, ㉢ 모두 인물을 그리워하는 마음과는 무관하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공(=지붕)이 자신에게 술잔을 건넨 사람이 백옥임을 알게 된 직후 그의 내면에 일어난 감정은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로부터 백옥을 다시 만나 이 공이 느낀 기쁨은 잠시이고, 이내 그 기쁨이 부끄러움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옥과 다시 만나게 된 기쁨 때문에 임금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을 잊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공이 땅에 엎드려 임금에게 한 말 중에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써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와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 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에서 백옥이 이 공에게 돌려준 부채가 바로 이 공이 임금에게 하사받았던 물건으로, 평안도 행차에서 백옥에게 정표로 주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공은 자신과 백옥 사이의 일이 자신을 일깨워 복상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 임금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됩니다.'라고 말하며 임금의 덕을 칭송한다.

④ 임금은 이 공과 백옥의 만남을 상징하는 부채에 대해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 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라고 말하고, 아울러 두 사람이 맺은 인연을 '좋은 인연'이라고 말하면서 이 공과 백옥의 인연을 견우와 직녀에 빗대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이 공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임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자, 임금은 '임금에게 아첨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다.'라고 말하며 이 공의 정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서 지붕은 백옥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절개를 깨뜨린다. 그러나 지붕은 그 사실을 임금에게 감추려 하지 않았으며, 되레 먼저 자신이 절개를 깨뜨린 사실을 임금에게 정직하게 고백한다. 임금도 지붕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한 것을 높이 평가해 '진실로 충직한 신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에서 자신이 감추려 했던 일이 [다]에서 탄로 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나]에서 지붕이 백옥의 유혹에 넘어간 일 때문에 [가]에서 지붕이 보여 준 고상한 몸가짐이 위선이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가]에서 지붕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나]에서 그가 백옥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의 말처럼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생긴 일이다. 즉 지

붕은 [가]에서 [나]로 이동하면서, 바르고 곧은 삶을 지키려는 뜻이 백옥에 의해 꺾인 것이지, 애초에 바르고 곧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다 그 속마음이 탄로 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복상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헤아리지 않고, 복상의 잘못만 보고 그를 참수(목을 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붕의 모습에서 그가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드러난 '경의 품행'은 지붕이 기생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절개를 잃은 일을 가리킨다. [다]에서 임금은 이 일을 근거로 들어 지붕에게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라고 말하며, 복상이 인간적 취약성 때문에 저지른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④ [나]에서 기생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절개를 잃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지붕은 완강한 태도로 복상을 벌줄 것을 임금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나]에서의 경험을 한 이후에 지붕은 복상을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는 임금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임금이 보인 넓은 도량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나]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지붕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임금은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탐욕과 욕망 앞에 인간은 모두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궁녀와 연애를 한 복상에게도, 임금에게 하사받은 부채를 사사로이 정분을 나누는 기녀에게 주어 버린 지붕에게도 임금은 한결같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대함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닌 취약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01 현대 소설

본문 155~158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⑤

■ 이광수, 「무정」

(해제) 이 작품은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당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폭넓게 받은 장편 소설이다. 이형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사제 관계를 통해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이라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계몽 소설이다. 또한,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연애에 관한 근대적 관점을 새로운 재미로 펼쳐 보인 연애 소설로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형식의 말이나 사고를 통해 드

러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폄하, 지식인의 시혜적 태도, 서구와 일본을 향한 무비판적 동경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된다.

주제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

전체 줄거리 경성 학교의 영어 교사인 이형식은 김 장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인 김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형식은 선형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 진사의 딸인 박영채를 다시 만나면서 영채와의 관계도 고민한다.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는 경성 학교의 배 학감에게 겁탈되자 절망한다. 하지만 영채는 기차에서 동경에 유학 중인 병욱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유학을 결심한다. 형식은 선형과 약혼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기차에서 영채와 병욱을 만난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수재민을 구호한 후 함께 교육으로 조선을 계몽할 것을 다짐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작품의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로, 형식과 선형의 시각을 번갈아가며 인물과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술자가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서술자가 관찰자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서술자가 현재 사건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밝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서술자가 한 명이며 이야기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명의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서술자가 이야기의 인물이 아닌 존재라는 점에서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서술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에서, 형식이 선형의 대답에 대해 놀란 이유는 선형의 인식이 사랑과 결혼의 관계에 대한 근대적 가치관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형의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이 감동하며 선형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기는 선형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형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에서, 형식이 선형의 냉담한 것 같은 태도에 마음을 쓰면서 ‘전인격적인 사랑’을 선형에게 받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에서, 형식은 ‘그날 저녁’에 답한 선형의 ‘예’가 지닌 의미를

알지 못해 고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형식은 선형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 그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형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에서, 형식은 선형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형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그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형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서, 형식이 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그녀를 만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러면 무엇이 중합니까.’, ‘그러면 선생께서는?’, ‘그것은 누말입니까.’, ‘그렇지마는 선형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형 씨의 진정으로?’처럼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는 질문과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처럼 설의법의 질문을 통해 형식과 선형은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거나 상대방을 위선적으로 위로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A]에서 풍자적 표현을 활용한 말은 확인하기 어렵다.
- ③ [A]에서 ‘선형 씨를 사랑하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라는 대화를 나누지만, 이러한 말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상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⑤ [A]에서 상대방의 판단과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상대방의 사연을 경청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선형의 ‘예’는 형식의 애원 어린 질문에 대해 억지로 대답한 것으로, 선형의 반응을 보면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거나 근대적 연애관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㉘는 형식이 선형과의 결혼에 대해 부모의 결정보다 당사자의 선택이 근본적이라는 점을 밝히는 부분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근대적 연애관이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② ㉙는 선형이 아내로서 남편인 형식을 섬기는 것을 의무라고 당연시하는 부분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봉건적 가치관에서 신여성인 선형도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㉚는 선형이 형식의 질문에서 받은 충격을 표현한 부분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근대적 사랑의 내면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㉛는 형식이 사랑 없는 결혼을 재고하려는 생각이 드러난 부분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근대적 연애관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02 현대 소설

01 ③ 02 ② 03 ③ 04 ③

■ 이상, 「날개」

해제 이 작품은 '아내'에게 의지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상념과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소설과 다른 서술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 무력한 삶과 분열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

전체 줄거리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다. '나'가 하는 일이란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거나 아내의 화장품을 가지고 노는 '장난' 정도이다. 이처럼 무력한 존재인 '나'는 아내의 내방객을 피해 길거리로 나서서 배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출에서 일찍 돌아온 '나'는 아내와 손님 사이에 벌이는 일을 보게 된다. 밤 외출로 인해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아내가 사다 주는 약을 먹게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거리로 나선 '나'는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에, 지금은 박제가 되어 버린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날개가 다시 돌아 날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는 '내 방'에서 '나'가 사색 생활을 하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않고 아내와의 소통도 계율리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내면 의식이 서술되어 있다. [B]에는 '나'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금붕어'를 관찰한 후 이를 주관적으로 인식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외부 자극에 해당하는 '햇살'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도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에는 '금붕어'를 관찰한 후 그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A]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나'의 성찰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A]에서 그러한 관계에 대한 '나'의 개선 의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② [A]에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나'의 성가심과 게으름이 드러나 있을 뿐 '나'의 위기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B]에는 '나'가 '금붕어'를 관찰한 경험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는 인간 사회와 생활이 스스러웠다는 표현이나 아내와의 소통을 성가셔하는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부정적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나'가 '금붕어'를 관찰하고 촉발

된 인식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회와 유리된 채 개인적 삶에 몰두하고자 하는 욕망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⑤ [A]에서 '나'와 아내가 의논을 하고, '나'가 아내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 등은 '나'가 가공의 상황을 상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서 '나'가 '금붕어'를 관찰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반복적 일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 전반을 통해 [B]에서 '나'가 '금붕어'를 관찰하게 된 경험은 좀처럼 벗어나지 않았던 '내 방'에서 외출하여 경험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나'는 이불 속의 사색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발명을 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지만, 잠이 들면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하였다. 또 그곳에서 '나'는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잠이 들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그곳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한편 '회탁의 거리'는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거리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피곤한 생활에 젖어 생기가 없고, 이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 ㉡은 그곳에 있는 구성원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나'와 ㉡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 ㉡에 있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은 아내가 오기 전에 가 있어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아내에 의해 강제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 '나'는 인간 사회와 생활이 스스러웠으며,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고 하였으므로 ㉠을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삶을 강요당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에 대해 '나'가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라고 하였으므로 ㉡에서의 삶을 강요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삶의 강요가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은 '나'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도심에 있는 공간으로, 여러 사람의 출입과 이동이 나타나는 장소이므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⑤ ㉠과 ㉡ 모두에서 해당 공간의 구성원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상실한 삶의 의욕을 회복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회고해 보았으며, 그 결과 어떤 제목을 붙일 만한 기억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제목을 붙일 만한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특기할 만한 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몽롱하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을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두려울 정도의 괴로운 내면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그것들'은 '나'의 옷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옷의 빛이 다 검은 것은 '나'의 말처럼 빨래를 되도록 피하려고 하기 위한 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옷의 색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는 '나'가 '내 방'을 떠나 경성역 홀 부근이라는 도심의 공간에서 보인 행동이다. '나'는 오랜만에 도심으로 나와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당황하고 있다.

④ ㉣를 통해 '나'가 아내를 떠올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아내가 자신에게 아스피린이 아닌 아달린을 준 행동의 이유와 아내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상시적 고민과 생각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은 현재의 무기력한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희망과 야심을 지닌 채 유의미하고 목적 지향적인 태도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와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라는 표현에는, '나'가 복종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나'가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이 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이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나'가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으로부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나'가 선택한 삶은 곧 '아내'에게 복종하는 삶이며,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나'는 타인 즉, '아내'에 대한 의존을 통해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고자 하며, 그 결과 '내 방'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하며 외부 세계에 대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도심을 배회하다 아내를 떠올리게 되며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고 표현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나'와 같은 사람들은 복종을 통해 직면한 문제에서 회피하지만 자아와 의존하고 있는 힘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충동을 느낀다. 그러므로 '나'가, 자신과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아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결국 자아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힘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과거에 돋았던 날개가 있던 자리를 가렵다고 하고,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고 독백하고 있다. 이때 '날다'라는 어휘는 현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표현들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생산 지향적 인간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현대 소설

본문 163~166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②

■ 채만식, 「태평천하」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과 그 일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 인물형을 풍자한 소설이다. 서술자는 윤 직원의 비윤리적인 언행들과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빈번하게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윤 직원을 희화화한다. 한편 경어체의 사용, 과장, 반어 등 다양한 요소들도 이 작품이 풍자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친일 지주 계층의 타락한 삶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윤 직원(윤두섭)은 구한말 화적 떼에게 아버지를 잃고서 세상을 원망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데 골몰한다. 고리대금업으로 가산을 불린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거나 한참 어린 기생 춘심에게 욕정을 품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는다. 그의 아들인 창식은 한량으로 살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만손자인 종수 역시 군수가 되리라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방탕하게

살아간다. 둘째 손자 중학만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할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처럼 여겨졌으나, 결국 중학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된다. 윤 직원은 중학의 소식이 전해지자 좌절하면서 중학이 태평천하에 세상을 망쳐 놓을 부랑당패에 끼었다고 울부짖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인력거꾼의 내면 심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가 돌아서려는 윤 직원에게 샅 이야기를 꺼내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 있고, [B]에는 윤 직원의 내면 심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가 비명을 외치며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몸을 가누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경우 윤 직원의 모습을 바라보는 인력거꾼의 시선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의 경우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인력거꾼의 처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B]에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에서와 같이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품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의 경우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몸을 가누는 윤 직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A]에는 윤 직원과 인력거꾼의 현재 행동이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과거 행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B]의 경우 윤 직원이 처한 현재 상황과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과거 상황의 대비를 통해 윤 직원이 겪는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에는 두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윤 주사는 중학이 친 전보가 아니라 중학의 동무가 친 전보를 받아 윤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전보를 누구에게서 직접 건네받았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윤 직원은 인력거에서 내린 직후 ‘염낭끈’을 풀고는 인력거꾼에게 샅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이를 통해 윤 직원이 인력거에서 내린 직후에는 인력거 샅을 치르려 했고, 그런 의도로 인력거꾼에게 샅이 얼마인지 물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력거꾼은 그냥 가라는 윤 직원의 말을 듣고 ‘외상’을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는 ‘내일 오’면 될지를 윤 직원에게 묻는다. 이를 통해 인력거꾼이 그냥 가라는 윤 직원의 말을 나중에 돈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윤 직원은 중학을 가리켜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뎀다 경찰서에 째’했다고 소리치는데, 이를 통해 중학이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윤 직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가 되어 ‘화적패’와 ‘수령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가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윤 직원의 말을 통해 그가 수령과 도적들이 과거에 사람들의 목숨이나 재산을 위협했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데 따른 심리가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에는 중학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느끼는 당황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력거 샅이 얼마인지를 묻는 윤 직원에게 인력거꾼이 ㉠과 같이 말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이러한 말이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력거꾼은 윤 직원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윤 직원은 ‘그저 처분해 줘사요!’라고 한 인력거꾼의 말을 끌어와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윤 직원은 인력거꾼이 말을 바꾸었다고 따지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윤 주사는 ‘돈 달라리’ 왔느냐는 윤 직원의 물음에 ㉣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즉 윤 주사는 윤 직원의 짐작과는 다른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윤 주사는 ‘그놈이 사회주의를’ 한 것이 참말이냐는 윤 직원의 물음에 ㉤과 같이 답하고 있다. 즉 윤 주사는 윤 직원이 알게 된 일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느냐고 하는 서술은 윤 직원에게 인력거 샅을 받으러 오겠다는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인력거꾼의 내면을 드러낸 것이다. 인력거꾼이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위엄을 윤 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술자는 윤 직원의 풍신을 옛날 같으면 위엄을 가진 ‘일도의 방백’이었을 것이라고 묘사하고는 그런 그를 ‘광대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서술자는 이

대목에서 인물의 외양을 위엄 있는 것처럼 묘사한 뒤 그와 상반된 특성을 부각하여 인물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서술자는 윤 직원이 윤 주사로부터 전보를 건네받는 대목에서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가 몰라’분다며 윤 직원의 성격을 평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서술은 작품에 개입하여 윤 직원의 지식수준이 높지 못함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서술자는 손자 종학으로 인해 기대가 좌절된 윤 직원의 처지를, 자식인 호해가 나라를 망하게 한 진시황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비교하면서 논평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독자는, 서술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윤 직원을 바라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서술자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히어서, 우리 조선 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라는 윤 직원의 언행을 노출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언행을 통해 일제가 조선 민중을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고 확신하는 윤 직원의 왜곡된 세계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사수들이 쓴 총에 B가 쓰러진 뒤 ‘나’도 B에게 지지 않기 위해 총을 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는 ‘나’가 B의 집으로 가서 경희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을 회상한 부분으로, 대부분 과거형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B]는 회상에 잠겼던 ‘나’가 자신의 상황을 다시 인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 현재형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현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에서는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사물로부터 받은 감각적 인상을 통해 긴장감의 고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다른 인물, 즉 경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나’가 경희와 만나지 못하던 시간 동안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B]가 아니라 [A]이다.

④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이다. [A]와 [B] 모두 서술자이자 작중 인물인 ‘나’의 주관이 드러난 서술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⑤ [A]에서 ‘나’가 경희에 대한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 ‘나 자신에 대한 자책’,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 등을 언급한 것은 내면적 동요를 드러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B] 또한 마찬가지이다. [B]에서 ‘나’는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을 느끼다가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원의 위기에 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절박한 생각도 하게 된다. 이는 상반된 심리, 즉 승리의 쾌감과 B에 대한 연민이 순차적으로 떠오른 것을 서술함으로써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B의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나’가 경험하는 내면적 동요를 드러낸 것이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ㄱ)는 보도를 본 ‘나’는 그의 구명 운동을 위해 경희를 만난다. 그때 경희로부터 B에게 근래에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 행동이 집 안에서도 거듭되었다(ㄴ)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 그날 경희는 B와 결혼하게 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나’에게 변명한다(ㄹ). 이후 ‘나’는 B의 사형 집행에 사수로 지명되고(ㄷ), 사형 집행이 끝난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는다(ㄷ). 따라서 ㄱ→ㄹ→ㄷ→ㄴ이 될 것이다.

04 현대 소설

본문 167~170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②

■ 전광용, 「사수」

해제 이 작품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두 인물(‘나’와 ‘B’)이 끊임없이 대결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 대결 의식과 미묘한 경쟁 심리를 그려 낸 소설이다. ‘나’가 친구인 B를 처형하는 사수가 되어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민족 분단의 비극을 우의적으로 다룬 소설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제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 의식

전체 줄거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눈을 뜬 ‘나’는 B와의 마지막 대결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나’와 B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았던 일, 경희를 차지하기 위해 공기총 쏘기 대결을 벌였던 일, 6·25 전쟁으로 셋이 다 헤어지지만 B의 계략으로 경희가 B와 결혼한 일 등을 겪으면서 ‘나’는 B에게 항상 패배감을 느껴 왔다. B는 이적 행위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 집행을 맡은 사수가 되는데 다른

03 배경의 가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과 ㉡은 모두 해당 장면의 공간적 배경에 관한 내용으로, 흰 눈이 쌓여 있는 산골짜기의 적막함 속에 시린 느낌의 바람 소리와 음산한 느낌의 쇠붙이 소리만 들리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B의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의 분위기가 황량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는 유언이 없느냐는 목사의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으며, 설명 B가 '나'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다고 할지라도 ㉠과 ㉡은 그 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② '나'가 오랫동안 B에게 느껴 왔던 감정이 '서운함'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과 ㉡이 서운함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 ③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라는 부분을 볼 때 '나'와 경희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설명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해도 사형 집행장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쇠붙이 소리에 대한 묘사인 ㉠과 ㉡은 그것과 관련지을 수 없다.
- ④ '나'가 사수로 B의 사형 집행 과정에 지명된 이유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나'가 명사수로 부대 내에서 알려져 있다는 것 정도가 지명의 이유로 추정될 만하다. 사형 집행장의 상황 묘사인 ㉠과 ㉡은 그 지명의 이유를 암시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가 소송 발사를 주저하며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이에 다른 네 명의 사수가 B를 향해 소송을 발사하고, B는 그 '네 방의 탄환'에 쓰러진다. 그리고 사형 집행 직후 '나'가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지는데, 이것은 B와의 마지막 대결의 팽팽한 긴장 끝에 '극도의 빈혈' 증세가 나타난 것일 뿐 둘 사이의 대결이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B와의 대결에는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친구인 B의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더구나 자신이 사형의 집행에 사수로 지명된 상황에서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한다거나, 유언이 없다면서 '나'는 '안중에 없'는 것 같은 B를 보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끝까지 온통 대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나'는 B의 사형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둘 사이의 대결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느낌을 받는데, 이는 둘의 최후 대결이 정확한 승패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④ '나'에게 B가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자 '이해관계를 초월'한 존재이면서도 대결을 한다는 점을 <보기>에서 설명한 ㉠의 관점에 적용하면 남과 북이 동포라는 것, 그리고 동포끼리이면서도 전쟁을 한 것에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⑤ '나'는 B와의 대결이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보기>에서 설명한 ㉠의 관점에 따라 우리 민족 상황에 대응시키면 전쟁과 분단이 남과 북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닌 환경적 조건, 즉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05 현대 소설

본문 171~174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②

■ 이호철, 「판문점」

해제 이 작품은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한의 현실을 '판문점'이라는 공간으로 압축해 보여 준 '분단 소설'이다. 남한을 대표하는 기자 진수와 북한을 대표하는 여기자의 대화는 이질적 국가 체제와 사고방식으로 인해 남북한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진수와 여기자의 인간적인 끌림은 남북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진수가 자기 가족과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보이는 비판적 시선을 통해 남북문제의 해결에 앞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주제 남북 분단으로 심화되는 이질화 문제

전체 줄거리 기자인 진수는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남북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다. 그는 버스 안에서 외국인 기자들과 북한 기자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를 들으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한다. 이윽고 판문점에 도착한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의 여기자를 만난다. 둘은 남북 회담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체제와 신념 문제 등으로 갈등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자, 진수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여기자의 손을 잡고 지프차에 올라탄다. 진수는 차 안에서 농담을 하며 당황하는 여기자를 안심시키는데, 대화를 할수록 여기자에 대한 호감도 깊어진다. 집에 돌아온 진수는 잠

자리에서 기자의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리고 판문점이 사라질 날을 그리며 잠에 빠져든다. 얼마 뒤 오랜만에 취재차 다시 판문점에 간 진수는 경계심이 더 강해진 여가자를 바라보며 씩씩함을 느낀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들여다보이는 ~ 도가니였다.'에서 서술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의 '생철 지붕이 ~ 휘둥그레졌다.'에서 서술자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장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나] 모두 서술자가 현재 벌어지는 사건을 전달할 뿐, 회상의 형식으로 인물이 살아온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는 서술자가 마치 사건 현장을 보고 있는 듯이 인물의 외양과 행동만 서술하고 있지만, [나]의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 가 보았다.',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에서 서술자는 인물의 생각이나 표정에 대해 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작중 분위기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서술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여러 서술자가 특정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남북의 회담 참가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이로 인해 회담장에는 긴장감이 넘친다. 그런데 '소나기'는 회담 참가자 모두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잠시 대립을 멈추게 한다. 이런 점에서 '소나기'는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소나기는 회담장 안과 밖의 사람들 모두에게 잠시 회담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할 뿐, 회담장 안팎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③ 소나기는 모든 회담장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하여 회담을 잠시 멈추게 한다. 따라서 소나기가 회담장의 분위기를 이전보다 더 얼어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소나기는 잠시 회담을 멈추게 한 것일 뿐, 회담 참가자들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⑤ 회담장 밖에서 진수와 그녀는 회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소나기가 그러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는 '묻혀서 사는 일반' 즉 일반 시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여기자의 말을 근거로, 오히려 북한이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해 진수가 한 말이다. 여기자는 선택의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고, 그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C]에서 진수는 먼저 여기자의 이 말에 동조한 후, 실상 북한 사회는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진수가 사회가 추구하는 역사적 전망이 옳은 것이라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진수는 남북 교류가 자신과 그녀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 교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라며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 여기자는 남북의 화해 방법이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단순히 교류에만 집중하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 여기자는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진수의 생각을 비판하며 자유의 보장이 사회의 일정한 도덕규범과 인간의 품위와 관련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진수는 인간을 효율로만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한 가지 면으로만 결정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여기자가 진수를 '검불'에 비유하며 한 말로, 자기를 팽개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지닌 진수를 비판하기 위해 한 말일 뿐, 진수에게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한 말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북한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한 자신의 말이 여기자에는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여긴 진수가 여기자에 대한 점연쩍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오우 윈더폴'이라는 말로 볼 때 남한 사람인 진수와 북한 사람인 여기자가 열심히 대화하는 상황을 본 외국인 여기자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회담장 밖의 사람들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뛰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㉔은 진수가 자신을 남한으로 납치하기 위해 차에 태웠다고 생각한 여기가 북한 차라는 진수의 말에 안도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A]에 이야기 속 인물의 속엿말과 이야기 밖 서술자의 진술이 혼용되어 나타나 있으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는 여러 인물의 시선에 초점화된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현대 소설

본문 175~178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 김승옥, 「차나 한잔」

【해제】 이 소설은 1960년대 대도시에서 만화가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해고되는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비정한 도시적 인간관계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의 개인적 경험담이 반영된 이 작품 속에서 ‘차나 한잔’이라는 말은 인정과 배려의 전통적 인간관계가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비정한 현대적, 도시적 인간관계로 변질되는 시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주제 비정한 인간관계와 현대인의 불안 심리

전체 줄거리 ‘그’는 자신이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며칠째 실리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며 배앓이를 한다. 신문사를 찾아가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해고를 통지한다. ‘그’는 다른 신문사를 찾아가 연재를 부탁하지만, 찾아가간 신문사의 문화부장은 실 새 없이 농담을 던져 ‘그’의 청탁을 거절하고 차값을 먼저 내 버림으로써 ‘그’를 무안하게 만든다. ‘그’는 약국에 가서 배탈약을 사 먹고 신배 만화가 김 선생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따뜻한 반감을 받으며 앞날에 대한 암담함을 느낀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밖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나 [A]에서는 ‘둘러요, 이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와 같이 이야기 속 인물의 속엿말이 이야기 밖 서술자의 진술과 구분 없이 서술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특별히 이야기 속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 ② [A]에는 이야기 속 인물인 ‘그’의 속엿말이 마치 서술자의 진술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그것을 통해 ‘그’가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는 있지만 ‘그’의 아내는 그 사실에 대해 불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차값을 앞질러 내 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 줬었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문화부장은 기사 폭주 때문에 만화가 실리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그’는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엔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던 말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문화부장의 말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아내가 던지는 말이므로,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자신의 만화를 매번 걸작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신문에 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는 말이다.
- ② ㉔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화부장의 말에 담긴 이면적 의미가 거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③ ㉔는 김 선생님이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말이다.
- ④ 클로로마이신은 배탈에 먹는 약인데, 흥터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클로로마이신에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자, 아내는 ‘그’가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아톰 X 군’이 ‘그’가 그리기를 포기한 대상인 것은 맞지만 이전부터 ‘그’가 그려 왔던 것임을 고려할 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설사기’는 연재만화가 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연재만화가 실리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사기’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만화’가 실리지 않은 것은 다른 기사나 코너에 우선순위가 밀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해는 적절하다.

③ ‘차나 한잔’은 인정과 배려를 보여 주는 제안이지만 결국 그 목적이 해고에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덮어 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해는 적절하다.

⑤ ‘수많은 날들’은 ‘그’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온다. 이는 그가 신문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그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수많은 날들’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은 당대인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의 원인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손 박사는 그러한 안으로의 지향이 사실은 밖으로의 지향이라고 해석하면서 은행원으로서의 일섭이 은행 문 바깥의 자유를 욕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일섭을 설득한다. 일섭은 갑자기 실종되고 그 후 일섭의 아내와 함께 손 박사를 찾아온 직장 동료는 손 박사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윤일섭은 결국 동물원에서 사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0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손 박사는 일섭의 발언이 지닌 모순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일섭과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일섭은 손 박사가 일섭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쇠창살’이 사실은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에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하며 손 박사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② 일섭은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와 같이 손 박사의 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박사는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일섭의 사고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섭의 반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③ 일섭은, ‘윤 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손 박사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와 같이 손 박사가 제시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⑤ 손 박사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 봐도 좋겠’다고 말하거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와 같이 권유에 가까운 방식을 활용하여 일섭이 착각하고 있는 은행 ‘창구의 쇠창살’에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일섭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과 같이 일섭은 손 박사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이 일게 된 것은 손 박사가 자신의 쇠창살을 숨긴 채 일섭에게만 쇠창살을 부술 것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섭의 적개심이 손 박사가 자기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쇠창살을 일섭에게 부수라고 요구하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같이 ‘윤 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앞서 일섭이 ‘계계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과 같이 가정하는 일섭의 말에 도착 증세 해결을 위한 실

07 현대 소설

본문 179~183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②

■ 이청준, 「황홀한 실종」

〔해제〕 이 작품은 조현병(정신 분열증) 환자인 일섭이 과거에 대해 보이는 도착을 통해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의 억압을 보여 준다. 대학 시절을 시위 등으로 어수선하게 보냈던 일섭은 은행에 취업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만 승진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며 언제 은행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와 같은 인물을 통해 기성 체제의 질서에서 탈락,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순응하고 살아가며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과 이를 억압하는 현실

전체 줄거리 은행원 윤일섭은 승진에서 몇 차례 탈락하면서 의식의 도착증, 가학성 유희욕, 대인 기피증 등의 증세를 보여 손 박사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윤일섭은 학창 시절의 시위 경험에 대해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과 같이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일섭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학성 유희옥’의 해결을 손 박사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과 같이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 가’는 것을 통해 손 박사는 자신의 진단과 처방이 일섭의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과 같이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사자 우리 앞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해 일섭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일섭은 ‘창경원’의 사자 우리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쇠 울타리’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고 세상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 일섭은 치료에 있어 믿고 따랐던 손 박사가 여태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한다. 따라서 ‘창경원’은 일섭을 상담하고 치료해 왔던 손 박사에 대한 일섭의 신뢰감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창경원’은 사자 우리와 그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난 후 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을 속여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인 귀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창경원’은 손 박사의 권유에 따라 들르게 된 곳으로, 동물의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섭이 보게 되는 장소이다. ‘창경원’에서 원숭이나 사자 우리의 쇠 울타리를 보고 세상의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일섭은 손 박사 역시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 즉 쇠 울타리 안쪽의 존재라 여기며 적대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창경원’을 손 박사와 일섭 사이에 촉발된 갈등이 일섭의 바람대로 해결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창경원’은 일섭이 사자 우리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쇠 울타리’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곳이다. 일섭은 세상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사자와 손 박사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된다. 일섭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쇠창살’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손 박사의 생각이며 치료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창경원’이 일섭을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려는 손 박사의 의도가 결국 성공하게 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⑤ ‘창경원’은 손 박사의 권유로 방문하게 된 장소로, 일섭은 그곳

에서 사자 우리 앞 주눅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쇠 울타리’의 의미를 생각하며 세상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일섭은 손 박사가 여태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가학성 유희옥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떠올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창경원’이라는 장소가 가학성 유희옥말로 일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임을 깨닫게 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일섭은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웃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구경을 당하는 쪽이 실제로는 인간이며 우리 속 사자가 오히려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구경을 당하는 쪽, 즉 구경의 대상이 실은 우리 안의 동물들이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구경을 당하는 쪽과 구경을 하는 쪽에 대해 일섭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기성 체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손 박사는 일섭이 생각하는 ‘쇠창살’이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일섭의 마음속에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쇠창살’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로 인해 가학성 유희옥과 같은 문제 행동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일섭 또한 손 박사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섭이 세계를 구분하는 분계선인 ‘쇠창살’을 의식 속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일섭은 우리 속 ‘사자’가 오히려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쇠 울타리가 사자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일섭의 생각은 배제당하지 않고 싶어 하는 일섭의 마음, 다시 말해 일섭이 배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손 박사는 일섭의 쇠 울타리 안쪽에 대한 욕망이 실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쇠 울타리 안쪽의 존재들이 ‘안락한 보호’를 누린다고 생각하며 안쪽을 욕망하는 일섭의 생각과는 다르게 환자의 증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일섭은 사자가 우리 밖 사람들을 오히려 구경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해’ ‘정당한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일섭은 ‘쇠창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의 사자를 ‘선택받은 자들과’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현대 소설

본문 184~187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⑤

■ 송기숙, 「당제」

〔해제〕 이 작품은 1983년에 발표된 소설로, 감내골에 사는 한몰 영감 내외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로부터 6·25 전쟁을 거쳐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격변하는 근현대사 속에서 역사의 질곡에 따른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당제’란 마을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제, 도깨비 등의 민속 신앙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6·25 전쟁, 근대의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겪어 온 아픔을 극복하며 공동체를 지켜 나가려는 감내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민속 신앙을 통한 수난 극복의 의지

전체 줄거리 감내골에 사는 한몰 영감 내외는 댐 건설로 수몰될 마을의 마지막 당제를 지내게 된다. 한몰 영감은 6·25 전쟁 때의 용군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제주를 자처한다. 아들이 지리산 어딘가에서 죽었다는 소문에도 한몰 영감 내외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예전에 한몰 영감이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했을 때 미륵보살이 지켜 주어 살아 돌아왔다고 믿은 것처럼, 아들도 미륵보살의 보살핌으로 북쪽에 살아 있으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마을을 지켜 준다는 나무를 파는 문제로 마을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나지만 당제를 지내면서 서로 화해하게 된다. 감내골이 수몰되면 아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 걱정된 한몰 영감은 도깨비들에게 아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이끌어 줄 것을 부탁한다. 마을이 수몰된 후에도 한몰 영감 내외는 저수지 옆 잣길에 오두막집 한 채를 짓고 자신들이 이곳에 산다는 안내판을 세우고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 목물 장수와 자리실 영감의 대화와 자리실 영감과 삼식이, 이장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외양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이 작품은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을 뿐이므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른 인물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지 않다.
 ④ 이 작품은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제시된 장면은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인물들의 내면이 ‘다음 말은 너무 심하다 싶었던지 영감은 말을 삼키며 끄 매듭힘만 썼다.’와 같은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회상의 형식으로 삽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도깨비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은 제시된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금년에도 당제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는데’를 통해 도깨비에게 밥을 가져다주는 것은 당제가 있을 때 행하는 제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흘러 가는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인데, 이 뒤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말게.’와 ‘옛날 한몰 영감 낚고 땡기대끼’를 통해 도깨비가 마을 사람들을 흘리고 다닌 적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작자들을 옛날 한몰 영감 낚고 땡기대끼 ~ 우리 동네도 꼭 한번 낚고 오게.’를 통해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초현실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도깨비는 가상의 존재이지만 ‘미리 뽑아 거기 보내 놓은 녀석들이 도깨비 목소리로 가성을 써서 대답’하는 것에서 당제가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의 대역을 맡아 밥을 주는 사람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자리실 영감의 말은 이렇게 전통을 등한시하다 보면 조상의 묘를 팔아먹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염려를 담은 것이다. 이를 당나무를 지키는 것이 조상의 묘를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네 강아지도 널부터 금목걸이 걸고 나서’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을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비난하는 의미를 담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이는 데다 진열해 놓’는 것처럼 당나무 역시 수몰시키는 것보다 좋은 물건으로 재가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당산 할아버지나 당산 할머니를 노하게 하면 벌을 받아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고와 협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④ 속담 ‘말 죽은 데 체 장수 모이듯’은 쳇볼로 쓸 말총을 구하기 위하여 말이 죽은 집에 체 장수가 모인다는 뜻으로, 남의 불행은 아랑곳없이 제 이익만 채우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이르

는 말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말 죽은 원통’은 마을이 수몰되는 원통함을, ‘채 장수 몰려드는 것’은 마을이 수몰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당나무를 사서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속담의 상황을 활용한 것은 마을이 수몰되는 원통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잇속을 보려 하는 이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장의 말은 마을이 수몰로 인해 사라지면 당산 할아버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므로 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전통을 유지, 계승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촌놈들 쌀값은 농사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여?’는 농민들이 지은 쌀농사에 대해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는 농민들이 노동의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와 같은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격을 원하는 대로 받는 반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격 조정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산품의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못 하게 하여 가격 경쟁 없이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삼식은 당나무를 사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에 대해 ‘저절로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차 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전통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따르려는 생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럼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억압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폐쇄된 공간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미지에 주목해서 보면, 진정한 존재 의의를 상실한 채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전체 줄거리 ‘그녀’의 남편은 사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녀’는 얼마 전 남편을 면회하고 돌아오지만 마음속에 묻어 둔 말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기에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어느 날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딸 ‘경주’를 데리고 친구인 ‘윤희’와 ‘윤희’의 아들 ‘성구’와 함께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래로만 알고 있던 방울새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딸에게 방울새에 대해 가르쳐 준다. 경주가 방울새는 동물원에서 산다고 말하자 순간 ‘그녀’는 동물 같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내일모레쯤 남편을 면회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편을 찾아가 자신이 꾸 꾸찍한 ‘구더기 꿈’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자질한 일상사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고 마음먹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ㄱ: ‘본다’, ‘보낸다’, ‘건너간다’ 등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ㄴ: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 등 ‘그녀’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큰따옴표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중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 ㄷ: 경주의 감기에 대해 묻는 남편의 질문에 ‘그녀’는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시골의 사촌 형님네에서 보낸 마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주고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인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ㄹ: [A]에서는 회상 장면을 삽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09 현대 소설 본문 188~191쪽

- 01 ④ 02 ③ 03 ③ 04 ①

■ 양귀자, 「방울새」

해제 이 작품은 사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둔 ‘그녀’와 그녀의 딸 ‘경주’, 그리고 그녀의 친구인 식당 주인 ‘윤희’와 윤희의 아들 ‘성구’가 과천의 동물원에 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오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놀이공원, 동물원, 조류원, 유리 상자 등 삼중, 사중의 담과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살아가는 ‘방울새’는 표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남편’인 것처럼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그녀’와 경주는 조류원에서 방울새를 만나게 되지만 방울새의 울음소리를 듣지는 못한다. ‘그녀’가 경주에게 저 새가 방울새라는 것을 알려 주자 경주는 신이 나서 예전에 엄마에게서 배운 방울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며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 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따 왔니……. 글썸, 어디서 따 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

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 보곤 했었다.’를 통해 ‘그녀’는 예전에 ‘경주’에게 방울새의 노래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라는 구절을 통해 ‘그녀’의 남편은 감옥에 가기 전에 ‘그녀’와 ‘경주’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를 통해 ‘그녀’와 ‘경주’는 동물원의 조류원에서 어떤 새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를 통해 동물원 조류원에서 ‘경주’는 방울새를 처음으로 보고 방울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썩고 있는 쓰레기’나 ‘막혀 있는 시궁창’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부정적 현실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자유의 박탈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남편은 ‘썩고 있는 쓰레기’나 ‘막혀 있는 시궁창’을 못 견뎌 해 사회 운동에 나선 결과로 감옥에 갇힌 것이므로 이를 그가 감옥에 갇힌 후 겪었던 사회적 폭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기를 바랐다. 남편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그녀’는 부재한 남편 대신 딸을 키우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④ 조류원에 갇혀 있는 방울새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 방울새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은 방울새의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그녀’는 방울새가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푸른 하늘’은 이상을 의미하는 반면, ‘두터운 유리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두터운 유리 벽 안에 갇혀 있는 방울새는 ‘그녀’로 하여금 신념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04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를 통해 ‘눈꺼풀의 경련’은 현대인이 겪는 내면의 불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그녀’는 눈꺼풀의 경련을

익숙한 증상으로 받아들이며 눈두덩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내면의 불안마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삶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그녀’가 불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의지가 오히려 내면의 불안을 더욱 자극한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내면의 불안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현대인이 겪고 있는 내면의 불안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은 ㉠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다.

⑤ ‘그녀’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10 현대 소설

본문 192~19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②

■ 김주영, 「새를 찾아서」

(해제) 이 작품은 선임원 사지로 먼저 떠난 답사 일행을 찾던 ‘나’가, 새를 잡기 위해 헤매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나’의 과거와 ‘답사 일행’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현재는 모두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나’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작가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곧 삶이며,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과 그 의미

전체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을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선임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리며 일행을 찾는다. 하지만 마주쳤어야 할 일행은커녕 그들이 탄 버스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나’는 목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다 주차장 매표소에 불이 켜진 것을 본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사정을 듣고 함께 일행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실패한다. ‘나’는 일행을 찾던 도중 유년 시절 누나와 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나’는 결국 일행을 쫓는 것을 단념하고 선임원 사지를 보러 가기로 한다. 절터만 남은 선임원 사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본다. 새는 나중에 솔방울로 변했고 ‘나’는 내려와서야 일행들을 만나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에는 유년 시절 ‘나’와 누나가 새를 잡는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새를 잡는 데 실패했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속에는 ‘나’와 누나가 새를 잡기 위한 행동이 ‘집’과 ‘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 또 성인이 된 ‘나’가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는 과정 역시 주차장의 모습과 함께 현장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교차하며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사건은 모두 독립된 사건으로서 인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 ② 현재의 ‘나’가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 공간을 이동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지 않으며, ‘나’의 심리가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이 글은 ‘나’라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선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며, 여러 인물의 시선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평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구멍 집을 빠져나온 새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은 누나이며, ‘나’는 새가 들어간 방문을 단속하는 누나가 한 말을 듣고 새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와 누나는 방에 켜 둔 불빛을 ‘새’를 잡는 데 이용하려는 심산으로 불을 켜 놓은 윗방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새를 잡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낸 ‘나’가 구태여 텐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고 하였으며, 집의 삼짝을 닫아걸어서 텐찌꾼들의 범접을 차단했다는 내용을 통해 ‘나’와 누나는 그동안 텐찌꾼들로 인해 새를 잡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는 청년들과 함께 설악산 주차장에서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아 헤매며, 낙산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텐찌의 위력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와 ‘청년들’은 낙산을 둘러 설악산 주차장을 헤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답사 일행의 버스를 찾는 데 실패한 ‘나’와 청년들은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승용차를 돌려 오색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청년이 들고 온 텐찌가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 ‘충격적인 일’은 그동안 텐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며 새를 잡는 데 실패했던 ‘나’가 새를 잡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된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일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동안 생각해 내지 못했던 획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나’의 흥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새가 방 안에 갇히게 된 일을 ㉡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동안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새 잡이였지만 새를 잡은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와 누나가 새를 잡기 위해 새롭게 시도했던 방법은 텐찌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과 다르다. 또 ‘나’와 누나는 이미 텐찌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을 텐찌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만족감이 반영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은 처음으로 새를 잡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지 텐찌 없이 새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반영된 표현이 아니다.
- ② ㉠에는 텐찌꾼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냈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은 텐찌꾼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다는 기쁨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과 기대감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에는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새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 새를 처음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과 기대감이 반영된 표현이지 그동안 시도해 왔던 방법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반영된 표현은 아니다.
- ④ ㉠은 새를 잡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낸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를 잡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된 일이 아니다. 또 ㉡은 새를 처음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과 기대감이 반영된 표현이지 새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유년 시절의 ‘나’는 텐찌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를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년 시절의 ‘나’가 경험했던

결핍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나'가 답사 일행의 '버스'를 타지 못한 것은 답사 일행을 찾게 된 이유로 볼 수 있을 뿐 '나'의 최종 목적지인 선림원 사자에 가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년 시절의 '나'는 새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나'는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유년 시절에 '나'와 누나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 새를 방 안에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국 그 새를 잡는 데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나' 역시 청년들과 함께 텐지를 가지고 낙산과 설악산 주차장을 찾아 헤맸지만 답사 일행의 버스와 일행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 ④ 유년 시절의 '나'는 구멍 집에서 새를 움켜쥐었다가 아픔을 경험하고, 또 방 안에 갇힌 새를 잡기 위해 몸을 여러 차례 던지는 수고로움을 경험하며 무릎, 팔꿈치, 뒤통수 등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또 현재의 '나'는 답사 일행을 찾는 과정에서 낙산과 설악산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수고로움과 오색 매표소에서 해프기를 기다리며 추위를 견디어 내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 ⑤ 유년 시절의 '나'가 새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현재의 '나'가 답사 일행을 찾아 헤매는 경험은 모두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은 곧 삶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의 반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어른스러움을 숨기고 삼촌, 이모와 외할머니 집에 세 들어 사는 이웃들의 삶을 관찰한다. 그런 중 서둘러 유학을 하던 삼촌이 친구 허석과 함께 외할머니의 집에 머무르고, '나'는 허석을 길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하모니카를 불던 남자로 인식하면서 그에게 강한 사랑을 느낀다. 그런 허석이 첫사랑에 실패한 이모와 교제를 시작하자 '나'는 번민에 빠지는데, 얼마 후 마을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발미가 되어 허석은 이모와 결별하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허석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지내던 어느 날 '나'는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고, 그가 실은 더러운 낫빛을 한 구부정한 아저씨였음을 확인한다. '나'는 자신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킨 이미지의 실체를 깨닫고서 환멸을 느낀다. 이후 '나'는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를 만나 외할머니의 집을 떠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는 앞으로 허석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떠올리는 '나'의 상상이, [B]에는 과거 제방 길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던 남자가 허석이 아님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 상황을 확인하면서 떠올리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에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기 위해 달려가는 '나'의 행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A]에서 '나'는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시선을 느끼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
- ② [B]에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를 보고서 허석을 사랑했던 자신에 대한 '나'의 후회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나'는 자신이 만약 허석에게 안긴다면 그것을 삼촌이나 이모에게 들켰을 때 어떻게 할지 상상할 뿐, 자신이 행했던 일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는 허석이 자신을 안아 줄 것에 대한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나'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나'는 좌절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망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④ [B]에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의 정체를 확인한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나'의 고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나'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인물의 내면 상태를 추리하고 있지는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에서 지난여름 이후의 과거 상황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나'가 제방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1 현대 소설

본문 196~199쪽

- 01 ⑤ 02 ④ 03 ③ 04 ④

■ 은희경, 「새의 선물」

〔해제〕 이 작품은 열두 살 소녀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와 소녀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나'는 감나무 집에서 살아가는 이모, 삼촌, 이웃들의 삶을 자신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감추어진 허위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또한 이모의 사랑을 목격하고 자신 역시 사랑을 경험하면서 겪은 사랑의 재인식과 이를 통한 내면적 성장의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 준다.

〔주제〕 열두 살 소녀가 바라본 어른들의 삶과 소녀 자신의 성장기

〔전체 줄거리〕 '나'(진희)는 여섯 살 때 엄마를 잃고 외할머니에게 맡겨진다. '나'는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신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허석과 그의 손을 보고 떠올린 연상의 내용으로, 허석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서술에서 '나'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② ㉡은 '나'가 자신의 어깨를 감싼 허석의 팔에 대한 감각을 나타낸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뿐'이라는 내용을 고려하면,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몸이 자신에게 닿은 데 따른 긴장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은 허석과 앉아 낭만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로부터 벌써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나'의 반응을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는 상황에 빗대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에서 '나'의 도망치는 행위와 울음은, '나'가 제방 길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를 보고 그 남자와 허석을 착각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데 따른 심리적 충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허석이 다음 날 떠난다고 말한 데 따른 당혹스러움을 숨기고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말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허석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와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을 통해 그러한 바람을 드러내지 않는다.
- ② '나'는 ㉠을 통해 허석이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허석이 벌써 헤어지게 됐다고 한 말의 의미를 깨닫고서 ㉠로서 행동하게 된다.
- ④ '나'는 ㉠을 통해 이별이 주는 강렬한 고통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이 주는 강렬한 고통을 인식하면서 ㉠로서 행동하게 된다.
- ⑤ '나'는 허석과 밤에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허석의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고 느끼고 그가 '꿈속처럼' 말한다고 느끼므로 꿈속에 있는 듯한 낭만적 분위기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뒤에 이어지는 허석에 대한 '나'의 묘사나 상상을 고려할 때 ㉠을 통해 그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가 사랑의 감정이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 낸 환상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은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이 허석의 것이 아니라 염소 곁에 선 남자의 것이었음을 인식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가 염소 곁에 선 남자를 보고 '삶이 나를 조

롱하는 데 대해 화'를 낸 이유는 그 제방 길의 남자가 허석과 유사한 모습으로 서서 이별한 허석을 떠올리게끔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가 호감을 느끼는 허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운명의 여신'을 떠올린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운명적인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나'에게서 운명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허석이 자신을 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데, <보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나'에게서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바람과 달리 '몸을 일으키고' 변소로 향하는 허석의 행동은 '나'의 기대를 좌절시키고 있다.
- ③ <보기>를 참고하면 '나'는 운명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허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만큼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여기는 인물인데, 그런 '나'가 허석과 이별한 후에도 허석과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서술은 첫사랑의 실패로 인해 겪게 된 내면적 혼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나'는 허석에 대한 사랑이 환상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 버리'려고 울었다고 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나'의 행위는 운명적 사랑에 대한 환멸을 경험하면서 내면적 성장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01 극·수필

본문 200~203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①

㉠ 강령 탈춤의 특징

〔해제〕 탈춤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 하는 가면극이다. 탈춤은 탈의 은폐성에 기대 당대 서민들의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잘 드러낸다. 특히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강령 탈춤에는 언어 희롱이나 양반을 대하는 말뚝이의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양반의 자기 비하나 양반 간의 갈등에 의한 분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강령 탈춤의 양반·말뚝이춤 과정은 다른 지방의 가면극과는 달리 두 명의 말뚝이가 등장해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을 얻으며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주제〕 탈춤의 특징과 강령 탈춤에 나타나는 양반의 부정적 형상화

구성

- 1문단: 탈춤의 일반적 특징과 양반·하인 과정에서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의 유형
- 2문단: 탈춤에 나타난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의 유형별 특징
- 3문단: 탈춤의 무대 구성 요소와 강령 탈춤에 나타나는 불림의 특징
- 4문단: 강령 탈춤의 양반·말뚝이춤 과정의 특징

나 작자 미상, 「강령 탈춤」

〔해제〕 강령 탈춤은 국가 무형유산 34호로, 봉산이나 해주 등 인근 탈춤의 영향을 받아 19세기에 미미한 형태로 전승되다가, 1900년을 전후하여 번성하였다. 제시된 부분은 강령 탈춤의 양반·말뚝이춤 과정이다. 강령 탈춤의 놀이 내용은 제과장 사자춤, 제2과장 말뚝이춤, 제3과장 먹중춤, 제4과장 상좌춤, 제5과장 양반·말뚝이춤, 제6과장 노승·취발이춤, 제7과장 미알영감·할미춤 등 전체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 탈춤 연희본은 7종이 있으나, 그중 강령 탈춤 보존회에서 작성한 교본을 중심으로 단행본 『민속극』에 전경옥이 제시한 주석을 토대로 정형호가 주석을 첨부한 대본을 수록하였다.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전체 줄거리 제시된 부분은 강령 탈춤의 양반·말뚝이춤 과정으로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크게 두드러진다. 망양반, 둘째양반, 셋째양반, 도령이 말뚝이와 더불어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한다. 개가죽 관을 쓴 망양반은 개(犬)에게도 오륜(五倫)이 있음을 강조하고 스스로 양반과 개를 동일시하는 듯한 대사를 한다. 둘째양반은 양반의 근본이 효행과 충절에 있음을 노래하지만, 말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셋째양반은 양반의 근본이라면서 무당의 만수받이를 읊조리며 도무하듯이 상하로 뛰다가 넘어지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망양반의 아들 도령은 대사는 없으나 천방지축으로 행동하여 양반의 체통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 말뚝이 1, 2는 노새를 ‘노시안님’이라 하여 양반을 놀리는 등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통해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01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둘째양반이 망양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두어 걸음’ 나오는 동작은 극의 특성상 대화에 동작이 수반되는 행동이지 풍자의 의도가 담긴 행동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망양반과 둘째양반은 서로를 향해 ‘쌍놈’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대립하고 있으므로 양반 간의 갈등을 통한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의 모습이다.
- ③ 말뚝이가 2가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도령의 면상을 치는 행위는 양반을 희롱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 ④ 망양반이 ‘늡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말뚝이가 하는 말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양반층에 의한 자기 비하의 한 모습이 다.

⑤ 강령 탈춤에서는 다른 지방의 가면극과 달리 양반들에게 대응하는 말뚝이를 두 명으로 설정하여, 양반과 말뚝이의 대립 구조 속에서 말뚝이가 상대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02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양반 일동이 ‘이놈, 말뚝아-’라고 부른 것에 대한 반응이지만, 말뚝이가 도령의 면상을 때리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불림으로, 양반의 대사를 합창으로 전달하여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시키며 재담을 마무리하고 춤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양반 일동과 말뚝이가 함께 어우러져 장단에 맞춰 추는 춤으로, 하나의 재담을 마무리하며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은 불림으로, 합창을 통해 양반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며 춤을 추기 전 장단을 맞추는 신호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은 담배에 물을 축이는 표현과 관련하여 말뚝이와 양반이 갈등을 하던 재담을 마무리하고 있다.

03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망양반이 둘째양반에게 말뚝이가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대구적 표현은 맞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뚝이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후에 양반들이 말뚝이를 불러서 노새를 어찌하였는지 묻는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개질량’의 ‘량’과 유사한 소리로 끝나는 말을 언급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노시안님’은 말뚝이 1이 의도적으로 언어를 변형하여 동물인 ‘노새’와 ‘시안님’을 유사하게 표현하여 풍자한 것이다.
- ③ ‘먼 귀’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가까운 혀’를 언급하며 원근법의 대비를 통한 언어유희가 드러나는데,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양반의 어리석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말뚝이가 ‘물’이라는 동일한 끝음절을 활용하여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를 내는 양반을 진정시키고 갈등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표현이다.

04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만양반과 들째양반이 서로 비속어를 사용하며 대립하고, '머리에 쓴 것'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양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어리석하고 교양 없는 양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정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대부 계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양반들의 대화 장면을 통해 양반의 위선과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나, 양반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양반들이 복색을 가지고 묻고 답을 하며 다투는 모습에서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답을 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양반의 영민함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양반들이 '쌍놈'과 같은 비속어와 '양자강두양류춘(楊子江頭楊柳春)에 양화수쇄도강인(楊花愁殺渡江人)'과 같은 한시의 구절을 활용한 한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민중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극·수필

본문 204~206쪽

01 ①

02 ⑤

03 ③

■ 작자 미상, 「계축일기」

〔해제〕 이 작품은 '계축옥사'를 배경으로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 대군의 어머니인 인목 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 대군을 죽인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인현왕후전」, 「한중록」과 더불어 궁중 비사를 그린 3대 궁중 문학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사건에 대한 관찰이 섬세하고 사실적이고 중후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궁중의 풍속과 생활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 궁정 내의 권력 투쟁의 비극

구성

- 1~11행: 영창 대군을 내보낼 수 없는 대비의 마음
- 12~22행: 쫓겨 가는 것을 눈치채고 나가지 않으려는 영창 대군
- 23~44행: 영창 대군을 내보내기를 재촉하는 내관들
- 45~54행: 강제로 끌려 나가 통곡하는 영창 대군

0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서 '소인도 지금껏 마마만을 의지하며 행어나 실날같은 옥체에 불행이 닥치면, 소인이 살아서 의지가 되어 드릴까 하여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에서 마마에 대한 자신의 충실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마마께서 대군을 이토록 내주지 않으시니'에서 마마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B]에서는 선왕인 선조 대왕이 늦은 나이에 대군을 얻고 기뻐했던 감정과 태도를 바탕으로 대군을 끌어내려는 내관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에 마마가 자신을 의심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B]에서 내관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마마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B]에서 내관들과 선왕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들의 행위의 잘못됨을 비판하기 위해 한 말로, 대군을 잘 보살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궁궐 장정들과 금부 하인들, 의녀대가 모여 있는 처소 밖의 긴박한 상황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군을 내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B]에서 '내가 그때 좇아 죽었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 내관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도 않다.

⑤ [A]에서 마마와 자신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말하고 있으나 마마에게 자신을 믿어 주기를 간청하고 있지는 않고, [B]에서 대군이 자라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소문'은 죄인이 드나드는 문으로, 그 문을 통해 대군을 데리고 나가려는 상황을 보며, 대군이 자신을 데려가는 의도를 인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상궁들은 대비와 대군을 모시는 사람들이므로, 서소문이 대군과 상궁들이 갈등하고 대치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대비마마가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은 선왕을 따라 죽지 못한 것이고, 이는 서소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서소문을 통해 끌어내려는 대상은 대군이지 대비마마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비마마와 대군, 상궁, 나인이 서소문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대군이 윗전과 누님을 앞세우는 이유는 자신만 끌어내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지, 어머니와 누님을 먼저 생각해서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광해군 쪽 사람들을 인정사정없이 영창 대군을 끌어내려는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그들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목 대비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어린 대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치고 잡아가려는 상황을 애처롭게 여기는 인목 대비의 모습에서 애끓는 모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망극함이 어떠하였겠는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영창 대군이 잡혀가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망극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3 극·수필

본문 207~210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 신유한, 「해유록」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신유한이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이 작품은 원래 신유한의 문집에 '해사동유록'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지만 관습적으로 「해유록」이라 불리기 때문에 본서에서도 「해유록」이라고 통칭하였다. 이 작품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일기처럼 쓰인 '일록(日錄)'과 일본 사회의 특징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수록한 '문견잡록(聞見雜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본에 대한 풍부한 인문 지리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 관심을 두거나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간 이들에게는 필독서로 여겨질 만큼 널리 읽혔다. 한편 신유한은 39세에 제술관의 직책을 맡아 통신사행에 참여하였는데, 1719년 4월 11일에 출발하여 이듬해 1월 24일에 귀국하였다. 제술관은 일본 문인에게 시문을 써 주고 그들과 필담을 나누는 등 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신유한은 일본 각지의 문인들을 만나 수천 편의 시를 써 주는 것으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한껏 발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주제 일본 사행길에서의 견문

구성

- 도모노우라: 태수의 환대를 받으며 숙소인 후쿠젠지로 들어가며 도시와 숙소의 변화함에 놀람.
- 후쿠젠지: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집 옆에 무덤

을 쓰는 일본인의 풍속에 괴이함을 느낌.

- 오사카: 일본인들과 우리나라 명현에 관한 필담을 주고받으며 일본의 출판문화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일본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음.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성몽량이 제술관으로 왔던 큰아버지 성완이 남긴 글을 구하자, 일본인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임술사화집』 한 부를 구하여 보여주었는데, 그 책의 부록에는 일본인들이 당시의 조선 통신사와 화답한 글이 수록되어 있었을 뿐, 성몽량이 일본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책의 부록에 화답의 글을 적어 준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태수는 큰길가에 숙소를 마련하여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이 모두 관백의 명령에 의한 것'과 '지금 그냥 그대로 우시마도까지 갔다가는 통신사를 호위하는 자기네가 국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애써 우리를 설득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쓰시마 번주가 통신사 일행에게 도모노우라의 숙소에서 머물 것을 요청한 것은 관백의 명령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숙소는 후쿠젠지였다. 절은 해안의 산 아래에 있었는데'와 '해안의 산이 높이 솟아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삼면의 산들과 더불어 서로 감싸 만을 이루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일본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라며 감탄하였다.'라는 구절을 통해, 후쿠젠지가 있는 산과 바다의 풍경을 본 통신사 일행이 그곳의 경치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본 경치 중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일본 문인들이 필담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도 『퇴계집』의 내용에 관한 것'과 '선생께서 평소 좋아하신 것은 무엇인지 등등 질문이 몹시 많아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구절을 통해, 일본 문인들은 통신사 일행과의 필담을 활용하여 『퇴계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물어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갯신 쇼탄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성사담항』 두 권을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이 책에 수록된 것은 나와 세 명의 서기가 쇼탄과 화답한 시들로, 출판된 것은 아카마가세키에 가기 전까지의 작품들이고 나머지는 아직 출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통신사 일행이 아카마가세키에 가기 전에 쇼탄과 나누던 시들이 책으로 출판된 사실을 알려 준 인물이 쇼탄 자신임을 알 수 있다.

0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일본이 '통역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널리 책을 구했던 이유에 대해 '통신사의 왕래가 계기가 되어 학술 교류의

길이 점점 열렸고, 통신사와 시문과 필담을 주고받으며 일본인들이 배운 것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㉔에서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일본인들이 널리 책을 구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통신사를 요청한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에서는 '여러 겹의 자리를 깔아서 티끌 한 점 없었고'와 '길 양쪽으로 다섯 걸음마다 장대를 하나씩 세우고 장대마다 커다란 등을 한 개씩 달아 놓아'를 통해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 수치의 활용은 통신사 일행이 속소로 가는 길의 청결함과 변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㉔에서는 '소나무, 삼나무, 굴, 유자'와 같은 나무들을 열거한 후, 이러한 나무들이 '물 위에 거꾸로 비'쳐진 모습을 제시하며 후쿠젠지가 위치한 해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③ ㉔에서는 '푸르게'라는 색채어와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 위에 지은 절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㉔에서는 '우탁', '이색', '김종직'과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후, '어찌 이리도 자세한지!'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오사카에 사는 학자가 우리나라 문묘에 모셔진 선현의 이름을 틀리지 않고 쓰고, 우탁이나 이색, 김종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말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시험 삼아 ㉔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의아함에서 비롯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글쓴이는 일본인이 가져온 『임술사화집』을 본 후 일본의 출판문화에 놀라 신묘년 사신의 글이 출판이 되었는지도 묻고 있다. 따라서 ㉔는 상대방이 가진 책에 대한 놀라움에서 비롯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는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이를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이고, ㉔는 상대방이 가지고 온 『임술사화집』을 보고 난 후 일본의 출판문화에 대한 놀라움에서 한 질문일 뿐, ㉔와 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감추기 위한 질문과는 관련이 없다.

② ㉔는 상대방이 가지고 온 책을 본 후 일본의 출판문화에 대한 놀라움에서 한 질문일 뿐,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으며, ㉔ 역시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다.

③ ㉔와 ㉔는 모두 상대방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일 뿐, 자

신을 대하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는 관련이 없다.

④ ㉔는 우리나라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질문일 뿐, 문답의 상대방인 일본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과는 관련이 없다. ㉔ 역시 일본의 출판문화에 대한 놀라움에서 비롯된 질문일 뿐,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질문과는 관련이 없으며 문답 상대방인 일본인이 글쓴이를 곤란하게 하고 있지도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일본인들과 우리나라 선현들에 대한 문답을 나눈 후,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의 일에 어두운 것이 일본의 문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한 후, 일본인의 배움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통역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널리 책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서적과 학술 교류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본의 역사가 새 발자국같이 사라진 것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일본의 문헌 기록 방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모노우라에 도착한 글쓴이는 속소로 가는 과정에서 목격한 도시의 건물과 시설에 대해 '건물이 매우 크고 시설이 굉장'하고 '길가에는 모두 여러 겹의 자리를 깔아서 티끌 한 점 없었'으며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관원들이 왕래하며 머무는 숙소가 '대단히 변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평가에는 일본의 도시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글쓴이는 '오사카에 서적이 많은 것'을 '실로 천하의 장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평가에는 일본의 출판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도모노우라에 위치한 숙소에서 마을을 내려다본 글쓴이는, 사람들이 사는 집 울타리 옆 빈터에 무덤과 비석이 있는 것에 대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더불어 먹고 자는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평가에는 일본의 생활 풍속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글쓴이는 김성일의 『해사록』 및 유성룡의 『징비록』, 강항의 『간양록』과 같이 일본에 대해 기록한 책들이 오사카에서 출판된 것을 통탄스러워하면서 통역관들의 밀무역으로 인해 이러한 책들이 일본에서 출판된 것을 우리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두려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평가에는 일본을 경계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쇼탄과의 문답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통신사 일행이 일본인들과 화답한 시들이 한 달 만에 출판된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일 벌이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습성은 중국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기>에서 『해유록』에는 유교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글쓴이의 평가에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문화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4 극·수필

본문 211~213쪽

01 ②

02 ⑤

03 ⑤

가 이덕무, 「야노당기」

〔해제〕 이 작품은 야노(들에서 굶주리는 자)라고 불린 백영숙의 성품과 삶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성격의 글이다. 글쓴이는 백영숙이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거나 세상의 속임수를 좇지 않고 자신의 본모습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백영숙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는 세속의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주제〕 세상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모습을 유지했던 백영숙의 삶

구성

- 1문단: 야노라고 자처한 벗 백영숙
- 2문단: 야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 3문단: 야노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 4문단: 자신의 본모습을 유지하며 살았던 백영숙
- 5문단: 야노라고 불리는 백영숙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평가
- 6문단: 자신을 야노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
- 7문단: 집필 시간 및 집필자에 대한 기술

나 이용휴, 「아암기」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벗 이 처사의 암자에 붙인 이름인 '아암'에 담긴 뜻을 풀이하면서 이 처사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정작 중요한 '나'보다 남의 시선이나 생각 등을 의식하여 '나' 본연의 것을 경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처사는 남을 의식하는 걸치레를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하며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글쓴이는 이 처사가 자신이 지은 암자의 이름을 '아암'이라고 지은 이유가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에게서 연유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며 훗날 처사와 남과 나, 그리고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말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주제〕 '아암'이라는 암자 이름에 담긴 의미

구성

- 1문단: '나'보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이유
- 2문단: 남을 따라 하여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한 삶에 대한 비판

- 3문단: 마음에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이 처사
- 4문단: 손수 심고 기운 나무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 처사
- 5문단: 암자의 이름을 '아암'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 6문단: 훗날 이 처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다짐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자신의 순박함이나 질박함을 버리는 사람들은 글쓴이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대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야노라고 불리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신의 순박함이나 질박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야노라는 비웃음을 산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험뜯고 비방하'지만 글쓴이는 백영숙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가)의 3문단에서 '점차 각박해지는 세태를 좇아가'는 사람을 향해 '진짜 야노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글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태를 좇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야노가 아니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④ 글쓴이는 (가)의 6문단에서 자신이 백영숙에게 써 준 글을 보고 '이 글을 지은 자야말로 진짜 야노로구나.'라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글쓴이는 자신이 백영숙에서 써 준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는 (가)의 4문단에서 백영숙이 진실한 사람이어서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는 일도, 세상의 속임수를 따르는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02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처음에는 야노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순박함을 버리기도 하고 질박함을 버리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야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후 백영숙은 세상의 속임수를 따르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야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의 유형을 먼저 제시한 후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백영숙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후 이와 반대되는 인물로 이 처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의 유형을 먼저 제시한 후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처사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은 백영숙이라 할 수 있는데, 백영숙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문제 상황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에서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은 이 처사인데, 이 처사가 처한 문제 상황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A]와 [B] 모두 특정 인물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일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A]에서는 백영숙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제시한 후 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B]에서는 이 처사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만 제시될 뿐 세간의 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A]와 [B] 모두 특정 인물의 바람직한 행실은 부각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글쓴이는 이 처사와 ‘남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암’이라는 암자의 이름에 담겨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신’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남과 나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남과 내가 평등하면 결국 만물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사이에 균형을 잡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누정기를 쓰는 사람이므로 문학적 해석의 주체가 된다. 또한 이 처사와 처사가 지은 작은 암자는 글쓴이가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글쓴이는 ‘아암’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아암’이라는 명칭이 처사가 지향하는 삶, 즉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자 하는 뜻을 암자의 이름에 담았다고 보았다.
- ③ 글쓴이가 말하는 ‘친한 것’과 ‘귀한 것’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고, ‘소원한 것’과 ‘천한 것’은 남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이 처사가 ‘친한 것’이 소원한 것의 명령을 듣‘거나 ‘귀한 것’이 천한 것에게 부러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아암’이라는 암자의 이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아암’이라는 이름은 공간화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무가 다 자라서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으며 가을이면 열매를 얻’는 것은 처사가 누리는 즐거운 삶의 단면을

말한 것이다. 이는 이 처사가 지향하는 삶이 단란하게 즐기고 본업에 힘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05 극·수필

본문 214~218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①

■ **차범석, 「산불」**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애욕을 표현한 사실주의 희곡으로, 전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대밭은 ‘양 씨’와 ‘점례’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공간인 동시에, ‘점례’와 ‘사월’이 ‘규복’을 통해 애욕을 충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대밭이 군인들의 작전 수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소각되는 것은 민중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이자 인간의 본능이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억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산불’을 통해 초래된 비극은 비단 한 마을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빛은 비극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 대부분이 죽거나 끌려가, 노인 하나와 여인네들만 사는 어느 산골 마을이 있다. 양 씨의 며느리 점례는 어느 날 빨치산에서 탈출하여 마을로 온 규복을 몰래 자기네 대밭에 숨겨 주고 규복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곧 사월에게 발각되고, 사월은 점례를 협박한다. 이에 점례는 규복을 사월에게 양보하지만, 점례와 사월은 규복을 두고 갈등한다. 이후 사월은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되고, 마을에는 공비 소탕을 위해 국군이 들어온다. 국군은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산에다 불을 지르고 급기야 규복이 숨어 있는 마을 대밭에까지 불을 지른다. 결국 규복은 국군의 총에 맞아 죽고 사월은 자살한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도망치던 ‘규복’이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총으로 사살되는 것은 대밭에 불이 붙은 이후이다. 따라서 그가 군인들이 대밭에 불을 붙이기 전에 미리 도망치다가 사살당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조를 때도 내가 싫다고 우긴 대밭이에요.’라는 ‘양 씨’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환히 보일 수 있어야만이…….’라는 ‘사병 A’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도 같이 타 죽을 테야. 대밭으로 보내 줘.’라는 ‘점례’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이상한 일이지……. (하다 말고 양 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 최 씨에게 집중된다.)’라는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양 씨’가 시아버지인 ‘김 노인’에게 ‘아버님 아는 사람이예요?’라고 묻는 대사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일동’을 안심하게 함으로써 긴장을 이완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귀가 신통히도 잘 들리는구나.’나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를 통해, ‘김 노인’이 평소 청력이 좋지 못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양 씨’가 ‘김 노인’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조금이라도 잘 알아듣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바로 앞부분에서 ‘최 씨’는 ‘쌀레네’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눈치채자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간다. 이는 ‘최 씨’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인데, 이 긴장은 [A]에서 ‘김 노인’의 등장으로 일시적으로 이완되는 국면을 맞는다.

② 죽은 ‘규복’을 보고 ‘새로 들어온 머슴’이라고 말하는 ‘김 노인’의 말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것이다. ‘양 씨’의 말에 따르면 ‘머슴 부릴 팔자’도 아닌 상황임을 잊은 듯 ‘노망’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긴장이 이완된다.

③ ‘김 노인’의 말을 듣고 ‘머슴?’이라며 의아함을 드러내던 일동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리였음을 알고 ‘크게 웃’게 된다. 이는 예상치 못하게 유발된 웃음을 통해 순간적으로 긴장이 이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일동의 웃음 뒤에 곧바로 ‘사월’의 죽음을 알리는 ‘최 씨’의 ‘비명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김 노인’ 때문에 잠시 이완된 긴장이 직후에 다시 고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부각해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 제시한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 가는 불꽃의 아름다움은 뒤에 언급되는 인물들의 처지를 환기하는 ‘허탈한 얼굴들’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대밭이 불타 버리는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 ‘규복’이 죽음과 관련 있는 ‘피’의 붉은색과 하늘의 색이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파국에 이른 현실

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 인물들이 없으며, ㉠과 ㉡ 모두 인물들이 기대감을 가진 만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③ 이 글에서 갈등은 고조되다가 파국을 맞을 뿐이고,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과 ㉡ 모두 풍경의 묘사일 뿐이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에 관한 서술이 가미되지 않았다.

⑤ ㉠은 불꽃을 모란과 비교하였고, ㉡은 타오르는 하늘의 붉은 색을 피의 색과 비교하였으나, 이것이 인물 간에 서로 친하고 친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점례’가 군인들의 대밭 진입을 필수적으로 막으며 대밭을 지키려 하는 것은 대밭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가 숨겨 둔 남자인 ‘규복’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밭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막으려는 ‘점례’의 의도는 애정과 관련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점례’가 애정이 인간 삶의 존속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군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울부짖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점례’와 ‘양 씨’의 거둬된 호소에도 군인들은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같은 말을 하면서 대밭 소각을 강행한다. 이는 인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대밭은 ‘양 씨’와 ‘점례’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공간이다. 그런 대밭이 군인들의 작전 수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소각되는 것은 민중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우리 집이 망한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민중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대밭이 불타게 되자 ‘이웃 아낙 갑’은 ‘어이구…… 우리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기만 하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니…….’라고 한탄한다. 이는 그만큼 민중이 전쟁을 겪으며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대밭에서 ‘규복’과 밀회를 즐기다가 그의 아이를 갖게 된 ‘사월’은 ‘규복’이 죽자 ‘양갯물을 먹’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 전쟁의 폭력성 때문에 짓밟히는 모습을 환기하는 것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고통받는 당대 민중의 삶을 드러내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6 극·수필

01 ㉓

02 ㉔

03 ㉕

■ 이강백, 「쥬라기의 사람들」

〔해제〕 이 작품은 탄광촌의 갱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인간 군상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양심적 행위의 가치를 형상화한 희곡이다. 사고를 무마하려는 소장, 허위 증언을 요구받는 주인공, 사고로 죽은 광부의 환영, 노조 지부장의 자리를 노리는 광부, 국민학교 교사 등이 취하는 각기 다른 입장들은, 1980년대 당시 탄광촌에서 살아가던 인물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주제 탄광 사고를 둘러싼 이기적인 인간 군상과 양심

전체 줄거리 영동 탄광 14번 갱에서 또다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다섯 광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고가 가스 누출 때문이 아니라 동료 광부가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려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려는 중용을 받는다. 한편 광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광부 박 씨의 아들 칠복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이 합창단 선발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시위의 뜻으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간다. 만석은 가스에 중독될 아이들을 서둘러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우선 자신의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낸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일을 짊어지기로 마음먹고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공언하는 순간 갱도로 들어갔던 아들이 비틀거리며 입구를 나온다. 입구에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갱도에 있는 나머지 아이들을 구조하러 나선다.

01 대사의 특성 이해

답 ㉓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A]에서 만석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마치자 아들이 14번 갱 속에서 나오고, 이어 광부들이 갱 속의 아이들을 구조하고, 자신이 아들을 끌어안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만석이 자신의 아들이나 광부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중 어떤 인물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만석의 아들이 갱에서 나오고, 이후 광부들이 갱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 나타나 있지만, 갱 밖에서 있는 만석이 공간의 이동을 드러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험에 처했던 아이들이 구출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극 중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캡 등’과 같은 무대 소품이 사용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만석이 그 소품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만석이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극 중 상황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㉕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㉕ ㉔은 만석이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광부들이 만석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재촉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따라서 ㉔을 상대방이 자신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상황임을 간주하고 분노하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광부 박 씨는 소장이 탄광 사고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 ㉑과 같이 말하며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 광부 박 씨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단호한 어조가 드러나도록 연기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광부 박 씨가 사고 처리에 대해 자신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㉑과 같이 말하며 지부장 자리를 매개로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소장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우호적인 태도가 드러나도록 연기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 ③ 천안택은 광부 박 씨와 소장의 대화 중간에 그들이 대화를 이어 나가도록 힘썼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홍정’을 성사시킴에 따라 자신의 의도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는 ㉑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천안택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 ④ 만석이 탄광 사고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자, 광부 박 씨가 다른 광부들을 선동하여 만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에 만석의 처는 다른 광부들에게 ㉑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 만석의 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억울해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연기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㉕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㉕ ‘갱 속’에서 나온 만석의 아들로 인해 ‘가스 중독된 그 아이들을 구’하는 상황은 만석이 무고한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희생적인 행위를 한 직후 발생한다. 따라서 이 대목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힐 때에야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주제 의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장은 광부 박 씨가 요구하는 대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모두들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되면, 그 옳다는 것이 밥 먹여’ 주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의 말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빌미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권력자의 논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광부 박 씨는 기존까지 ‘도지사께 드린다는 탄원서’를 통해 탄광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장이 지부장 자리를 약속하자 그것을 소장에게 건네며 탄원을 단념한다. 또한 소장의 말대로 사고 원인을 바꾸지 않으려면 소장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만석의 말이 필요하겠다는 소장의 생각에 맞장구를 친다. 이러한 광부 박 씨는 이해관계를 따져 권력에 야합하면서 진실 은폐의 필요성에 동의할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천안택은 탄광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무관심하며, 광부 박 씨에게 지부장 자리를 권하는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고는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외상값 못 받을’ 걱정을 덜게 되었다면서 만족스러워한다. 이처럼 소장과 광부 박 씨를 중재하여 광부 박 씨가 지부장이 되게 하고 그 결과 돈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천안택의 모습에서, 사건의 진실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만석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할 것을 종용받은 상황에서 그 종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며, 진상을 밝히려는 광부들의 요구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만석이 죽은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려고 선택한 희생적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만석의 양심적인 면모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07 극·수필

본문 223~226쪽

- 01 ③
- 02 ③
- 03 ②

■ **신연식, 「동주」**

(해제) 이 작품은 2016년 개봉된 영화 「동주」의 시나리오로, 일제 강점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시인 윤동주와 그의 사촌이자 친구였던 송몽규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청년 윤동주가 일제 강점기라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슬픔과 고뇌뿐만 아니라 송몽규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과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흑백 화면, 윤동주의 시 내레이션을 통한 음향 효과, 시간의 역전적 구성과 빈번한 화면 전환 등이 이 영화의 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주제 윤동주의 비극적인 삶과 인간적 고뇌

전체 줄거리 1935년 북간도,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아버지에게 송몽규는 반항을 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윤동주는 정지용 시집을 받고 기뻐한다. 동주와 몽규는 성향은 많이 다르지만 절친한 친구이자 친척이다. 둘은 나란히 연희 전문학교에 진학하여 문학 잡지를 만들게 되고 그러던 중 이어진과 정지용 선생을 만나기도 한다. 일제의 탄압과 징병이 심해지자 동주와 몽규는 정지용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몽규는 동경 대학, 동주는 릿쿄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일본에서 몽규는 조선인 학생들을 규합해 독립운동을 주도한다. 동주는 일본 여학생 쿠미를 만나게 되는데, 쿠미는 동주의 시집 출간을 도와주려고 한다. 결국 몽규는 일본 경찰에 잡혀가고 동주는 미행을 당한다. 동주가 다방에서 쿠미를 만나 시집 제목을 적으려고 하는 순간 일제 형사들이 들어닥쳐 동주는 체포된다. 몽규와 동주는 형무소에서 취조를 받고 생체 실험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특고’는 S#78에서 ‘동주’에게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인지 묻고 있으나, S#86에서는 ‘동주’가 ‘몽규’의 추종자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동주’를 모욕하고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특고’가,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가 ‘동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82에서 ‘쿠미’는 ‘동주’가 영국 출판사 주소를 알려 주면 자신이 영문 번역본을 보낼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굳이 ‘동주’가 있는 교토로 와서 ‘동주’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S#83~S#85에서 ‘동주’는 ‘몽규’가 떠나고 없는 6침방에 혼자 남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 ④ S#84의 [인서트] 부분에서 연희 전문 시절 ‘몽규’가 ‘동주’와 함께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 ⑤ S#81에서 ‘몽규’가 ‘학생 2’와 회의를 하는 모습, S#84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등으로 볼 때, ‘몽규’가 혁명을 통해 일본을 쫓아내려는 조선인 학생 모임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85 6침방에서 동주는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고 있고, S#86 취조실에서 빗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빗소리’는 과거인 S#85와 현재인 S#86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시·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85, S#86에서 연이어 ‘빗소리’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빗소리’의 세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② ‘빗소리’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S#86에 등장하는 ‘빗소리’는 타국에서 느끼는 인물의 애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특고’에게 취조를 당하는 ‘동주’의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S#85, S#86의 상이한 장면에서 ‘빗소리’가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빗소리’가 인물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85에서 ‘동주’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S#85의 ‘빗소리’는 6첩방에서, S#86의 ‘빗소리’는 취조실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이 두 장면의 ‘빗소리’는 부정적 상황의 분위기나 인물의 우울한 심리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는 있지만, 인물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S#81~S#85에서 일어난 사건이 S#78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와 플롯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주’의 목소리로 시가 전달되고 있는 S#83에서부터 S#85에 이르는 장면들은 모두 S#78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S#83부터 S#85에 이르기까지 시의 화자가 보이는 자아 분열의 양상이, S#78에 제시된 특고의 가혹한 취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81~S#85에서는 ‘동주’가, ‘몽규’가 주도하는 회의와 모임에서 소외되는 장면들을 보여 준다. 그리고 S#86에서는 ‘특고’가 이처럼 ‘몽규’에게 소외된 ‘동주’를 ‘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라며 몰아붙이고 모멸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S#81~S#85는 S#86에서 ‘특고’가 ‘동주’를 몰아붙이고 모멸감을 주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S#83과 S#84에서는 ‘동주’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장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쉽게 씌어진 시」의 내용과 관련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면의 삽입은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S#83에서 시작된 「쉽게 씌어진 시」는 S#86까지 이어지는데, S#83에서 S#85까지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S#86에서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시구에 이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라는 시구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구는 곧 화자가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황이 종식될 것을 확신하며 분열된 자아의 화합을 통해 새

로운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S#83에서 S#86에 이르는 내려티브는 화자의 분열된 자아가 화합을 이루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S#84에서는 과거 용정 들판과 연희 전문에서 함께했던 ‘동주’와 ‘몽규’의 모습과 함께 일본에 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동주’와 ‘몽규’의 모습이 교차한다. 그리고 이는 ‘몽규’로부터 소외된 ‘동주’가 느끼는 고독감과 상실감을 부각하여 보여 줌으로써 ‘동주’가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8 극·수필

본문 227~231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 노희경, 「우리들의 블루스」

해제 이 작품은 여러 편의 이야기를 온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드라마의 대본으로, 제시된 장면은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은희와 미란이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를 풀고 다시 우정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시금 우정을 다지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주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우정을 회복하는 두 친구

전체 줄거리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던 미란이 잠시 제주도에 내려온다고 하자 은희는 반가움 속에서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한 앙금이 사라지지 않아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 그 일은 미란이가 이혼 후에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로 갔을 때 미란이 친구들에게 은희에 대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 것이었다. 은희의 집에서 며칠 묵는 동안 미란은 은희의 속마음 담긴 일기장을 읽으며 은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 이후 미란은 은희에게 서운함을 표하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고, 은희는 미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따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미란이 일하는 가게로 간 은희는 미란에게 마사지를 받으며 미란도 편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게 된다. 그렇게 미란과 은희는 우정을 이어 나간다.

01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S#29에서 은희는 미란이가 과거에 한 말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쫓아오는 이 친구가 말해 준다. 너…… 그닥…… 의리 있는 넌, 아냐.’를 떠올리며 분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분을 참지

못한 은희는 ‘지가 감히…… 어쩔 나한티’라 말하며 미란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가 되지 않자 미란은 일터에 가다 말고 서울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인물이 과거에 한 말을 떠올리는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이 갑자기 서울로 떠나는 충동적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친구인 은희와 미란의 갈등이 고조되다가 해소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을 뿐 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인물이 [A]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 ③ S#11에서 미란에 대해 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일기장을 통해 드러나므로 그동안 감춰진 일의 전모가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A]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등장인물인 은희와 미란의 외양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표현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게 한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S#34에서 은희는 ‘너 세 번째 이혼했을 때, 나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미란의 전화를 받자마자 서울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미란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34에서 미란은 ‘몸이 돌아야…… 이 몸으로…… (맘 아픈, 참고, 짐짓 가볍게) 손님, 이리다 중풍 맞아요, 뇌 질환 오시고……’라고 말하며 은희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있다.
- ② S#34에서 미란은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진짜 미친…… 친박한 녀이라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란은 학창 시절 자신이 은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S#34에서 은희는 ‘맨날 시간 편히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아신디.’라고 말하며 미란이 하는 일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S#11에서 미란은 은희의 일기장에서 ‘근데 나는 어쩐가…… 남들에게 말하는 거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가? 개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라는 구절을 읽고 은희가 자신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11 장면은 은희가 없을 때 미란이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상황이다. ㉠에서 은희의 목소리는 E(효과음)로 제시되고 화면에는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미란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목소리의 주인공(은희)과 화면에 제시된 인물(미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경우 목소리의 주인공은 은희이지만 은희를 부각하는 대신 은희가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람인 미란을 더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화면 목소리의 기법을 활용하여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미란의 모습을 화면에 보여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 ② ㉠은 미란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은희의 일기장을 읽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화면에 나타나므로 외화면 목소리의 기법이 활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④ ㉠과 ㉡에서 은희의 목소리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에 해당한다. 이때 내레이션을 하는 주체는 은희이므로 장면에 등장하는 미란은 은희가 하는 말인 ㉡을 듣지 못한다. 이는 오로지 시청자에게만 전달된다.
- ⑤ 보이스 오버는 시청자에게 인물들의 감정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 은희의 목소리로 제시되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으로, 은희가 미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4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S#29에서 은희는 미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분해하고 있으며, 그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진다. 따라서 은희가 미란을 꺼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긴 것에 대해 거리낄 것 없어 하는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11에서 미란은 무심코 은희의 일기장을 읽게 되는데, 평소에 은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자 놀라고 슬프기도 하며 느낌이 이상해지는, 즉 복잡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 이는 미란의 표정이 급하게 바뀌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S#30에서 은희는 미란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은희는 미란이 한 말을 따지려고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란이 받지 않자 서울로 올라가려고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간다.

④ S#34에서 미란은 마사지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이 은희인 것을 몰랐지만 거친 손발을 보며 은희가 온 것을 알게 된다. 이때 미란은 은희의 거친 손발을 안쓰러워하고 있으므로 미란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란의 표정을 근접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S#34는 은희와 미란이 갈등을 풀고 우정을 회복하는 장면이다. 이 과정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두 인물이 서로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화면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01 갈래 복합

본문 232~236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④ 05 ⑤

가 이규보,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해제〕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보가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한시이다. 작품에서 이규보는 얽매임을 싫어하는 자신의 자유로운 마음 때문에 평소 강원도 한계로 떠나고 싶은 바람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스님이 머무는 여관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노스님과 함께한 시간이 몹시 즐거워 한계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작품의 원제목은 ‘방한계주노각사려우옹참료자시운증지(訪寒溪住老覺師旅寓用參寥子詩韻贈之)’로, 그 뜻은 ‘한계사의 주지 스님이 머무는 여관을 방문하여 참료자의 시의 운자를 사용해 시를 써서 그에게 준다.’이다. 참료자는 중국 북송 때의 승려 도잠으로, 소동파의 절친한 벗이었으며 소동파와 시문을 주고받으며 오래 우정을 나누었다. 이규보는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과거 소동파와 도잠이 나누었던 우정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 함께 보낸 즐거운 한때

구성

- 기(1, 2행): 얽매임을 싫어하는 ‘나’의 자유로운 마음
- 승(3, 4행): 강원도 한계로 떠나 살고 싶은 바람
- 전(5~10행):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냄.

- 결(11, 12행): 노스님을 만난 경험이 한계에 대한 심정에 일으킨 변화

나 이인상, 「소화사」

〔해제〕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이인상이 자신의 벗 오경보의 죽음을 애도하여 쓴 한문 산문이다. 오경보는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벼슬을 했던 오찬으로, ‘경보’는 그의 자(字)이다. 이인상은 오찬이 대과에 장원 급제하자 바로 그에게 임금에게 직언하는 충신이 될 것을 충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오찬은 이인상의 이런 충고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해 정언 벼슬이 내려지자마자 신임사화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영조의 분노를 사서 함경남도 삼수부(지금의 삼수군)로 귀양가 낙 달 만에 그곳에서 세상을 하직했다. 이인상은 오찬이 세상을 떠난 다음 달, 입춘 날에 작고한 오찬의 꿈을 꾸고 나서 죽은 오찬의 넋이 혹 서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걱정이 되어 이 글을 지었다. 작품의 제목에 쓰인 ‘소화(素華)’는 흰 꽃을 뜻하는 말로, 이인상이 오찬의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보았던 흰 오동꽃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글쓰이는 오찬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는 한편 생전에 오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 꿈속에서 오찬을 만난 일, 오찬의 혼이 서울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글쓰이는 자신의 감정을 매우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소중한 벗의 죽음이 가져다 준 충격과 슬픔이 쉽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몹시 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제된 감정 표현이 되레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주제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

구성

- 기: 오경보의 죽음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 타향에서 세상을 하직한 오경보의 혼이 객지에서 떠돌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염려함.
- 서: 꿈에서 이윤지와 함께 오경보를 만남.
- 결: 오경보의 혼이 서울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

다 윤오영, 「찰밥」

〔해제〕 중년이 된 글쓰이가 찰밥을 통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극진한 사랑과 믿음을 회상하면서 쓴 수필이다. 어린 시절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글쓰이의 어머니는 소풍 때마다 자식을 위해 정성껏 찰밥을 마련해 주셨고, 정성 어린 찰밥은 어린 글쓰이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다.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겨 글쓰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소풍이나 등산을 할 일이 있으면 으레 찰밥을 준비한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들놀이 약속이 있어 평소처럼 찰밥을 준비해 새벽에 문을 나서는데 문득 과거에 소풍 때마다 찰밥을 싸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전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느끼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아울러 어머니가 기대하셨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도 함께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구성

- 처음: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소풍 때마다 정성껏 찰밥을 싸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 중간: 이전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느끼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 끝: 생전에 자식에게 극진한 사랑과 믿음을 베푸셨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가 기대하셨던 성공과 거리가 먼,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화자가 ‘한계사의 스님’을 만난 일을, (나)는 절친한 벗 오경보의 죽음과 죽은 오경보가 글쓴이의 꿈에 나타난 일을, (다)는 글쓴이가 찰밥을 싸 들고 들놀이에 나선 일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경험이 (가)의 화자, (나)와 (다)의 글쓴이에게 불러일으킨 의식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즐거워 눈썹 펴고 함께 웃는다.’,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말하며, ‘한계사의 스님’과의 만남에서 비롯한 정서,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벗의 죽음을 겪으면서 느꼈던 비통함, 죽은 벗이 자신의 꿈에 나타난 일을 두고 떠올린, 벗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찰밥과 관련한 현재의 일을 바탕으로 찰밥에 얽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 지난 삶에 대한 회한 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 (나), (다) 모두 자신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그 일에서 비롯한 의식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글쓴이는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봐 근심하고 있지만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가)의 마지막 행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라는 표현을 인물의 외양 묘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다)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어머니는 새벽녘에 ~ 과연 무엇을 얻으셨던가?’와 ‘그는 매일매일 ~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해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출세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나)에는 글쓴이가 꿈속에서 들은 경보의 말(‘동서 양실 사이에 ~ 집이 빛날 거여다.’)이 직접 인용되어 있지만, 그 말을 근거로 하여 인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다)에도 어머니의 말씀(‘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 성공해야 한다.’)이 직접 인용되어 있지만, 이는 생전에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품으셨던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어머니에 대한 글쓴이

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가), (나), (다)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는 평소 한계로 떠나고 싶은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여 한계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나’가 살고 있는 곳에 온 ‘한계사의 노스님’을 우연히 만난 후 한계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만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나’의 심리는 ‘한계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었네.’와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에서 잘 드러난다. 작중 화자인 ‘나’는 한계로 떠나지 않았으므로 ‘한계로 떠난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내 마음 하늘에 노닐어’, ‘옥 새장에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 두지 못하네.’에서 ‘나’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지향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 / 한계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었네.’에서 ‘나’가 한계를 그리워하게 된 이유가 원결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함께 있느라 해 지는 줄 몰랐더니’에서 ‘나’가 ‘한계사의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일이 몹시 즐거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다.
- ⑤ ‘한계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었네.’라고 말했던 화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온 ‘한계사의 노스님’을 우연히 만나 서로 담소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서 화자는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말하는데 이로부터 ‘한계사의 노스님’과의 만남이 한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을 했던 것은 오경보가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듣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즉, 아직 오경보가 죽기 이전이거나 오경보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오경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그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 상심한 글쓴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오경보의 상소가 신임사회와 관련해 임금에게 직언을 하기 위해 올렸던 것이고, 그가 귀양을 간 곳은 함경도 삼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오경보가 유배 길을 떠날 때 송별해 주지 못한 일, 두보의 시를 써 달라는 오경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일을 나열하여 언급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오경보에 대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과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글쓴이가 오경보를 송별해 주지 못한 일과 오경보에게 두보의 시를 써서 부쳐 주지 못한 일을 언급한 것은 오경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오경보가 적소(유배지)의 일을 알려 온 것과 윤지가 이별시를 써서 보낸 일은 모두 오경보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두 가지 일은 모두 당시에 글쓴이의 마음을 슬프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글쓴이가 그 두 가지 일을 언급한 것은 오경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이해된다.

⑤ <보기>를 바탕으로 오경보가 유배지인 함경도 삼수에서 병으로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경보의 낮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었다는 말은 오경보가 유배지에서 병사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심정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과거에 원숙(소풍)을 가는 어린 글쓴이를 위해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찰밥이다. ㉡은 이제 나이 오십이 된 글쓴이가 '오늘도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한 까닭에 예와 같이' 싸서 손에 들고 있는 찰밥이다. 글쓴이는 새벽녘에 찰밥을 들고 집을 나서다가 문득 부엌문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오래전 어린 글쓴이에게 찰밥을 싸 주시기 위해 새벽녘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 현재 글쓴이의 손에 있는 찰밥으로부터 오래전 어머니가 글쓴이에게 만들어 주셨던 찰밥을 떠올리게 되고, 이어서 찰밥에 얽힌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추억 속 어머니의 모습은 한결같이 '나'를 극진히 아껴 주시고 신뢰해 주시던 분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찰밥)이 ㉣(과거의 찰밥)을 떠올리게 하여 어머니에게 받았던 애정과 신뢰를 기억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먼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 했다.'라는 구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좌절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나'에게 과거 어머니와의 추억, 어머니에게 받았던 한없는 사랑과 신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이제 나이 50이 된 '나'가 '소년 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게 하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는 (다)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감사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⑤ '이것(찰밥)을 매고 문을 나설 때, 장래에 대한 자부와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찰밥)이 어린 나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이다.'에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을 마련해 주셨던 일이 '나'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서 '나'가 정서적 결핍을 경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글쓴이는 '그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성공을 바랐지만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성공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글쓴이 자신에게 바랐던 성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꿈은 현실과 다른 장소를 경험하게도 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을 만나게도 한다. (나)에서 '나'는 '어느 방'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오경보를 만나는데 이는 꿈을 매개로 현실과 다른 장소(어느 방)를 경험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죽은 오경보)을 만난 것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 따르면 꿈은 현실에서 느끼는 근심을 해소하게도 한다. (나)에서 '나'는 유배지에서 병사한 오경보의 혼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을 떠돌게 될까 봐 근심한다. 그러나 꿈에서 오경보를 만나게 되자, 오경보가 꿈에 나타나 남쪽에 있는 자신을 만난 것은 오경보의 혼이 타향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는 꿈을 통해 자신의 근심을 털고 싶어 하는 '나'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③ <보기>에 따르면 환상은 현실과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도 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을 만나게도 한다. (다)에서 '나'는 새벽에 찰밥을 들고 집을 나서다가 문득 '환상에 사로잡히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과 정성의 기억, 살아생전 어머니가 잃지 않으셨던 아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떠올린다. 이는 환상을 매개로 어머니가 살아 계셨던 과거의 시간을 경험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돌아가신 어머니)을 만난 것에 해당한다.

④ <보기>에 따르면 꿈이나 환상과 같은 비현실적 경험은 인물의 특정한 정서나 심리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다)에서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을 보고 난 후 '슬픈 일이다.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다.'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부재를 슬퍼한다. 이로부터 '나'가 보았던 어머니의 환영(새벽에 숯불을 피우

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2 갈래 복합

본문 237~242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⑤

가 작자 미상, 「임계탄」

〔해제〕 이 작품은 임자년과 계축년에 연이어 발생한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하며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행태를 비판한 세대 비판 가사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임자년(1732)과 계축년(1733)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당시 관리들의 실태를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부조리한 조세로 인해 고통받는 당시 장흥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유가의 정치 이념에 입각한 애민(愛民)과 인정(仁政)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본과 민생 의식이 투철하게 투영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가혹한 조세 제도에 대한 비판과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회복 촉구

구성

- 서사: 장흥 지역의 참상을 임금이 계신 곳에 알려 태평성대를 되찾고 싶어 함.
- 본사 1: 1731년의 재난 상황 묘사. 장흥에 대한 소개와 역대 흉년에 대한 회고
- 본사 2: 1732년의 재난 상황 묘사.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의 참혹한 실상과 이들을 수탈하는 관료들에 대한 비판
- 본사 3: 1733년의 재난 상황 묘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 및 이들을 구휼하지 않는 지방 행정관에 대한 비판
- 결사: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임금에게 전달하고, 백성을 위한 선정을 기대함.

나 박전, 「절비자설」

〔해제〕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팔을 부러뜨려 병역을 피하려는 어떤 남자와 글쓴이의 문답 과정을 통해 백성의 삶을 힘겹게 하는 가혹한 병역의 문제점을 비판한 고전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생각과 팔을 부러뜨리는 행위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불효라는 점에서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남자의 생각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글쓴이는 이를 통해 당시 병역 제도의 가혹함

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 가혹한 병역에 대한 비판과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필요성

구성

- 처음: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 중간 1: 백성의 삶을 힘겹게 하는 가혹한 병역에 대한 ‘어떤 남자’의 비판
- 중간 2: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부러뜨린 행위는 감당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는 ‘어떤 남자’의 생각
- 끝: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나’의 논평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글쓴이는 남쪽 고을의 어떤 남자가 균역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부러뜨린 행위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그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행위를 이해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서 화자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러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나)의 글쓴이는 어떤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 균역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어려움에 공감할 뿐, 이 남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과거 경험을 근거로 화자나 글쓴이가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수익심 화의열’은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를 멀리한다는 점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고사일 뿐, 관리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분노가 쌓여 결국 나라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수자가 만든 자는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공수자가 만든 증표를 무단이 사람

을 바꾸어 자신의 사리를 도모한다는 ㉠의 내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임의대로 곡식의 양을 조절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석서가’가 세금의 무거움을 풍자한 노래라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간교한 짐승’은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내용은 백성들의 힘겨운 삶이 계속되더라도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단죄소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정사를 맡겨 놓은 무능한 인물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단죄소’를 손아귀에 집어넣고 멋대로 하는 주체는 장흥 부사 밑에서 권세를 부리며 부정을 일삼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내용은 장흥 부사가 자신의 본분인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 아랫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실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식년이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시기라는 점과 식년의 호적 정리로 인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내용은 백성들의 어려운 삶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행대로 호적을 정리하여 세금을 내는 백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른 것은 ‘아프거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싫어’하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손가락을 꺾’ 준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지닐 것을 강조하는 말일 뿐, 손가락이 남들과 다른 사람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을 권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부모가 주신 몸을 감히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 지금 너는 군적에 편입되는 것을 면하려고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했으니, 어버이에게 불효이고 인지상정과 먼 행동이 아니겠느냐?’라는 글쓴이의 말을 통해, ‘나’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리는 ‘어떤 남자’의 행위를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불효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든 백성이 윗사람을 아버지처럼 가깝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쓴이의 말을 통해,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부모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면 아들 하나를 징병하고, 아들 일곱이 있으면 아들 일곱을 징병’하는 현실로 인해 ‘그리하여 부모

와 처자가 흠어지고 일족이 생업을 잃’는다는 ‘어떤 남자’의 말을 통해, ‘어떤 남자’는 한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징병하는 것은 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저는 잠시 팔을 상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작은 불효는 저지를 수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큰 불효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어떤 남자’의 말을 통해, ‘어떤 남자’는 팔을 부러뜨리는 행위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불효라는 점에서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이 살세 살아나서’와 ‘이 낙세 불동말동’이라는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현실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의 ‘사 년 만에’, ‘삼 년 만에’, ‘이 년 만에’, ‘머칠밖에’는 각각 ‘어떤 남자’의 첫째 형이 탈영하고, 둘째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셋째 형이 곤장을 맞아 집에서 죽은 시간을 나타낸다. 이는 모두 가혹한 병역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점에서, (나)에서는 시간의 간격을 좁혀 가며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어떤 남자’는 자신이 병사가 된다면 왕상이나 자로처럼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팔을 스스로 부러뜨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왕상이나 자로와 같은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며 ‘어떤 남자’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슬프다’, ‘싫다’, ‘망극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가혹한 세금과 탐관오리의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불쌍히’와 같은 표현을 통해 병역으로 고통받는 ‘어떤 남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는 ‘사람이 거북 되어’,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와 같이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동물에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이리 승냥이처럼 사나운 짓’과 같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지방 절도사의 모습을 동물에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뭍쓸 병’은 보리 흉년이 일어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고칠 수 없

는 병'은 병역의 의무를 진 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군적에 편입'된 '어떤 남자'가 어머니와 떨어져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로 인해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이 더 힘겨워진다는 점에서 ㉔는 '백성'이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㉔는 '어떤 남자'가 병역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아니며, '어떤 남자'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도 않다.
- ② '어떤 남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부러뜨린다는 점에서 ㉔는 '어떤 남자'의 소망을 구체화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㉔로 인해 '백성'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④ ㉔로 인해 풍년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던 백성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㉔는 백성이 자신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힘겨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어떤 남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 '몸을 상하게 하여 효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어떤 남자'가 과거를 후회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㉔는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는 요인일 뿐, '백성'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㉔는 '어떤 남자'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방법일 뿐, '어떤 남자'가 사기를 느끼게 하는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어떤 남자'는 병사들이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여 곤장을 맞고 죽은 자나 목매어 죽은 자,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자가 많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절도사의 악행과 병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에서 언급한 연좌제와 감시의 책임을 물어 군역의 의무를 대신 떠맡게 하는 제도의 부작용은 (나)의 '그리하여 부모와 처자가 흩어지고 일족이 생업을 잃으며 이웃이 서로 보전하지 못하여,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고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조차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라는 '어떤 남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이번의 타낸 걸량 공각으로 의포'했다는 구절은 환곡에 빈 껌질을 섞어 나누어 주었다는 뜻으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분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통해 당시에 '분석'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무실존명 가이없다'와 '진감색의 진진 창을 고비고비 다 채'웠다는 구절은 관리들이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뜻으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번작'의 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통해 '번작'이 부패한 관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세미환상 각항반자 구미수는 무슨 일'인가라고 묻는 구절은 이자 쌀을 다 냈는데도 아직 갚아야 할 세금이 남아 있음을 납득하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장리'의 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통해 '장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지방의 절도사들이 병사를 아끼고 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자를 섬기는 것만 능사로 알기 때문에 부역을 자주 일으켜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엄하고 혹독한 형벌을 시행한다는 '어떤 남자'의 말은 <보기>에서 언급한 군역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남자'의 말을 통해 당시의 관리들이 뒷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갈래 복합

본문 243~248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④

㉔ 이매창, 「새장 속의 학」

〔해제〕 이 작품은 기녀인 이매창이 자신의 처지를 새장에 갇힌 학에 의탁하여 읊은 한시 작품이다. 이매창은 부안 지역 아전의 딸로 태어나 평생 기녀라는 신분의 약자로 살다가 끝내 병사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선계인 청전과 구령에 산다는 학에 빚대어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녀 신분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의 자의식은 결국 신비로운 이미지의 학이 아니라 새장 속에 갇힌 병든 학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인식으로 귀결된다.

주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든 몸에 대한 탄식

구성

- 1, 2행: 새장에 갇힌 채 떠돌리는 곤륜산의 풍경
- 3, 4행: 과거의 삶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 5, 6행: 외로운 처지의 학과 즐거운 까마귀 떼의 대비
- 7, 8행: 병든 몸에 대한 한탄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

㉔ 박인로, 「선상탄」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전쟁 문학을 대표하는 가사 작품이다. 임진왜란에 무인으로 직접 참전하였던 작가의 이력이 반영되어 있다. 전쟁은 끝났으나 또다시 왜군이 침입할 때를 대비하여 부산진에 통주사로 내려와 전쟁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왜군에 대한 적개

심과 함께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은 ‘배 위에서의 탄식’이라는 의미이다.

주제 전쟁 발발에 대한 걱정과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

구성

- 서사: 통주사가 되어 진동영에 내려와 병선을 타고 적진을 바라봄.
- 본사 1: 배를 처음 만든 현원씨에 대한 원망
- 본사 2: 왜적이 생겨나게 한 진시황과 서불에 대한 원망
- 본사 3: 자연을 즐기는 수단으로서의 배의 가치
- 본사 4: 과거와 달리 배가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
- 본사 5: 임진왜란의 치욕과 우국의 일념
- 본사 6: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와 의지
- 결사: 평화로운 공존의 의지와 태평성대에 대한 희구

㉠ 작자 미상, 「오윤겸과 설생의 재회」

해제 이 작품은 ‘관찰사 오윤겸이 영랑호에서 설생과 조우하다’라는 제목으로 편찬자 미상의 『청구야담』에 실려 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수록되기 이전에 오윤겸의 후손이기도 한 오도일의 문집 『서파집』에도 실려 있었으며, 서사적 전개가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이 그 외의 여러 야담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주제 기강이 무너진 정치 현실에 대한 환멸로 은거를 택한 한 선비의 삶

전체 줄거리 서울에 살던 설생이라는 선비는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은거를 결심한다. 그와 함께 세상을 한탄한 친구 오윤겸은 은거에 대한 설생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처지 때문에 서울에 남는다. 오윤겸은 이후 벼슬길에 나서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설생을 만난다. 설생의 안내에 따라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화롱굴로 간 관찰사는 그곳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을 확인한다. 관찰사가 화롱굴을 떠나면서 제안한 대로 설생은 후에 서울로 와서 다시 오윤겸을 만나지만 벼슬자리를 주려고 하는 친구의 제안을 불쾌하게 여기며 서울을 떠난다. 후에 다시 화롱굴을 방문한 오윤겸은 설생도 잠적했고 그곳이 폐허가 된 것을 확인하고 아쉬워한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새장 속에 갇힌 병든 학과 같은 신세로 인식하면서 과거에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독백적인 어조로 그려 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나)에서는 독백적인 어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섬 오랑캐들아’에서 보듯이 명시적인 청자를 설정한 채 그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어조를 섞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에서 색채감이 있는 시어가 대조적으로 제시되

지 않았다.

② (가)에서는 까마귀 떼가 신나게 떠드는 장면을 묘사하여 화자의 의지와 대립하는 자연물을 동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의 의지와 대립되는 자연물을 찾아볼 수 없다. ‘파도 없는 바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③ (가)와 (나)의 어디에서도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는 시어는 보이지 않는다.

⑤ (가)에서는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나)에서는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나)에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상황에 대한 한탄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상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3행의 ‘청전에 날 저물어 창공은 끊어지고’는 외부 풍경, 제4행의 ‘꿈길만 고달프다’는 내면적 감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은 대조적이지 않으며, 서로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곤륜산’은 신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의 산으로서 현재 새장 속에 갇혀 있는 학으로 표상된 화자가 과거에는 그와 같이 평화로운 곳에서 살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화자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③ ‘여원 그림자’는 병든 몸의 우회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병이 깊어’로 이어지면서 나약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④ 화자는 병든 몸으로 ‘홀로’ 갇혀 있다. 따라서 ‘홀로’라는 처지는 ‘슬픈 울음’을 우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⑤ ‘까마귀 떼’가 ‘신나’서 ‘떠들썩’하게 지껄이는 소리와 ‘슬픈 울음’에서 연상되는 소리는 청각적으로 대비를 이룬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아직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적군을 마음대로 잡았다가 놓아주었다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참고로 ‘이었으니’의 ‘-(으)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에 각각 제시된 ‘이 몸’의 상태가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은 온전한 상태에 비해 다소 불리해진 정도에 불과하고 ㉡에 제시된 몸의 조건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둘은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내적 갈등을 증폭하지도 않는다.

② ㉠의 몸은 병든 몸이기는 하지만 ㉡을 보면 전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의 '전선'을 멀리하고 '어선'을 선택하는 배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전선'을 멀리하고 '어선'을 선택하는 것은 몸의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보편적인 염원이다.

④ ㉢의 '칠종칠굴'은 마음만 먹으면 적군을 얼마든지 잡거나 섬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에서는 그러나 굳이 섬멸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포용의 자세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들은 상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에서 굳이 섬멸하지는 않겠다고 한 '너'를 '우리 몸'에 포함한다면 한때 맞서 싸웠던 적군과 함께 유희를 즐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색하다. 또한 화자는 태평 상대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왜적을 경계하고 있으므로 전선에서의 입무와 어선에서의 풍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오윤겸이 벼슬을 추천하자 설생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한양을 떠났던 것은 오윤겸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윤겸이 설생을 찾아 회룡굴을 재방문했을 때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은, 오윤겸이 혹 자신을 찾아오더라도 한양에서 품었던 불만으로 인해 다시는 오윤겸을 만나지 않겠다고 설생이 결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 사람의 사회적 위계는 이미 한양에서 오윤겸이 벼슬길에 나섰을 때부터 달라졌고 이는 두 사람이 영랑호에서 재회할 때부터 서로 확인했던 사실이다.

② 설생이 회룡굴에서 오윤겸이 제안한 바에 따라 한양을 방문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그런데 회룡굴에서 오윤겸이 정치 현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대목이 없으므로 오윤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한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추정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오윤겸은 회룡굴에서 목격한 설생의 삶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랬던 그가 설생에게 한양으로 와서 자신을 방문하라고 요청했던 것은 벼슬을 추천하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설생에 대한 동정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설생의 행색이 초라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도 없거나 벼슬을 추천하겠다는 생각은 한양으로 와서 자신을 방문하라고 했을 때부터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생에게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면 설생을 부러워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답 ⑤

05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는 오윤겸이 은거에 대해 어떤 의지를 보이는지 알기 어렵고 다만 부모님을 모신다는 조건 때문에 은거를 할 수 없다는 결정만 보인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오윤겸 역시 설생과 마찬가지로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이 윤리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는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벼슬길로 나아가갈 것인지 은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오윤겸의 내적 갈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나아가 회룡굴을 방문한 오윤겸이 벼슬살이를 추하다고 여기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데 개연성을 높이기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와 <보기>에서 설생의 말은 차이가 거의 없다. [A]에서도 이미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은 해서 뭐하겠나?'라고 하여 기계와 절개를 숭상하는 설생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 오윤겸과 설생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 오윤겸이 설생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와 <보기>에는 설생이 과거 공부를 그만두는 계기가 나타나 있을 뿐, 과거 공부를 할 때부터 설생이 은거의 의지를 품고 있었음을 추리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⑤ [A]에서도 오윤겸이 은거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준다는 목적은 [A]를 <보기>와 같이 고쳐 쓴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회룡굴을 방문한 오윤겸이 '한숨을 쉬고 흐느꼈'던 것은 '티끌 같은 세상에 얽매인 자기를 되돌아보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은거를 선택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어렵다고 좌절하는 장면은 없으므로 이러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새장은 기녀라는 신분으로 속박되어 있는 작가의 처지를 표상한다. 따라서 '옛 언덕'은 기녀로 속박되기 이전에 누렸던 삶의 터전으로서, 현재 병이 든 기녀로서 느끼고 있는 결핍이 없었던 상태의 시·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우리 임금 성덕'을 내세워 '섬 오랑캐'를 섬멸하지 않겠다는 관용의 태도를 보여 줌과 동시에 '요순 군민'으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 임금 성덕'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면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소망임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무인의 몸으로 전선을 타고 바다를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화

자는 전란을 결핍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도 없는 바다’는 전란 없는 세상의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회룡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종들을 모두 ‘첩의 지식’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 세계인 속세에서는 차별을 받으며 욕망의 결핍을 느꼈을 이들이 모두 이 결핍감을 공유한 채 회룡굴로 들어왔으며, 회룡굴에서는 차별로 인한 결핍감이 속세에서보다 완화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종으로서 느끼는 결핍감이 속세와 다름없다면 그들이 회룡굴에 기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04 갈래 복합

본문 249~254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③

가 윤선도, 「몽천요」

해제 이 작품은 연군(戀君)과 우국(憂國)의 정을 노래한 3수의 연시조이다. 작가는 효종과 인평 대군의 사부였는데, 1652년 효종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6세인 작가를 정사품 성균관 사예에 임명한 지 두 달 만에 정삼품인 승지에 임명하였다. 이에 작가의 정적들을 비롯한 서인 세력은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비방하며 탄핵 상소를 올렸고 결국 작가는 면직된다. 「몽천요」는 그가 면직된 후 양주 고산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에는 오랜 은거 생활을 마치고 속세에 돌아왔으나 시기와 핏몸으로 작가를 맞이하는 세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나 있다.

주제 임금을 향한 연군(戀君)과 우국의 정

구성

- 제1수: 임금과의 만남과 자족의 삶
- 제2수: 백성을 향한 선정(善政)의 포부와 좌절
- 제3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나 김만중, 「구운몽」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것으로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환몽 구조로 이루어진 고전 소설이다. 현실의 주인공인 수도승 성진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번뇌하다가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난 뒤, 인생무상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 다시 현실의 성진으로 돌아와 불도에 정진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몽유 서사는 당시 동양에서 널리 유행한 양식인데, 「구운몽」의 경우 연화봉이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꿈을 꾸고 꿈속 양소유의 세계가 오히려 인간 세상으로 현실적 공간에 가깝다는 점과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다층적 꿈의 세계가 그려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한편, 양소유와 여덟 남자가 이루어가는 애정 구도와 함께 양소유의 영웅적 활약이 돋보이는 군담이 매우 흥미롭게 펼쳐지며, 국문본과 한문본이 다양하게 전

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양한 독자층으로부터 널리 사랑받은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간적 욕망의 헛됨과 인생무상의 깨달음

전체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남악 형산 연화봉에는 천축국에서 온 육관 대사가 불법을 베풀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대사는 제자 성진을 동정 용왕에게 보내어 사례하게 하는데 돌아오던 길에 성진은 석교 위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한다. 선방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의 아름다움에 미혹되고 속세의 부귀공명으로 번뇌하다가 이를 알게 된 육관 대사의 명에 의해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고, 팔선녀도 인간 세상에 여덟 남자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면서 여덟 남자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어 팔선녀는 양소유의 2처 6첩으로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조정에서 물러나 행복한 삶을 살던 양소유는 인생무상을 느끼는데, 호승의 인도로 꿈에서 깨어나 연화 도량의 성진으로 돌아온다.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팔선녀도 모두 불도에 귀의하여 큰 도를 얻어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1수>의 ‘백옥경에 올라가니 ~ 신선들이 꺼리도다’와 <제2수>의 ‘십이루에 들어가니 ~ 신선들이 꾸짖는구나’에서 서로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는 구절이 배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화자를 향한 신선들의 태도는 <제1수>에서는 ‘꺼리’다가 <제2수>에서는 ‘꾸짖는’ 행위로 중첩, 강화되어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수>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제3수>의 ‘하늘이 이지러졌을 제’와 같은 자연 현상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로부터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를 유추하여 비판하거나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 ④ <제1수>에는 ‘백옥경’이라는, <제3수>에는 ‘백옥루’라는 백색 이미지를 지닌 소재가 제시되고 있지만 두 수 모두에서 명암 대비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제2수>와 <제3수> 모두 물음의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고 화자의 소망이 좌절된 상황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스스로 묻고 답하는 말하기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하늘이 이지러졌을 제’ 이를 ‘기위’ 날 방안을 궁급해 하며 이를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다 못하’였

다. 이는 작가가 벼슬자리에 나아가 임금과 함께 나라의 기울어진 국운을 다시 살릴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대신들에 의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생긴 허탈한 마음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와 연관 짓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의 서울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가 ‘백옥경에 올라가’게 된 것은 <보기>에서 작가가 자연에 은거하다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곳인 한양의 조정으로 올라가게 된 일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하늘의 ‘옥황상제’는 임금을 나타내며, 그 임금이 화자를 ‘반기시’는 것은 <보기>에서 임금이 사부인 작가를 예우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에 친히 임명하는 것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신선들’이 화자를 ‘꾸짖는’ 것은 <보기>에서 조정의 고관 대신들이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오른 작가를 시기하고 헐뜯다가 탄핵을 일으킨 사건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오호연월’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분수’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보기>의 진술을 참고할 때, 작가가 자연에 은거하다가 속세의 벼슬자리로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고관 대신으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데에 이른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양 원수가 남해 태자와 싸워서 이긴 공로를 용왕이 치하하자 양 원수는 ‘이는 다 대왕의 ~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용왕의 딸을 위기에서 구해 낸 승리의 공로를 용왕에게 돌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양 원수는, 남해 태자 홀로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과거에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린 내린 공로’를 업적으로 인정하여 그의 죄를 용서했다.
- ② 동정 용왕이 양 원수의 업적을 치하하려고 잔치에 초청했을 때 양 원수는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거리낌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④ 양 원수는 자기 앞에 우뚝 솟은 산을 바라보면서 용왕에게 ‘형산과 이 산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양 원수는 자신이 그 이름은 알고 있는 형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산이 형산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따라서 동정 용왕이 양 원수가 바라보며 오르고 싶어 한 산의 이름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양 원수가 산속 절에서 만난 노승은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승과 그의 제자들이 양 원수가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마중을 나왔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4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⑥는 양 원수에게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언젠가 양 원수가 이 절에 다시 와서 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⑥는 미래에 양 원수에게 운명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⑧는 화자가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화자의 감탄을 유발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⑧의 성취가 화자에게 실망과 회의를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⑧는 화자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화자가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양 원수는 ⑥의 도움이 라기보다 스스로 ‘불전에 나아가 분향재배하고 ~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 꿈에서 깨어났다.
- ④ ⑧는 천상의 백옥루를 중수했으며, ⑥는 꿈속 신비한 산의 노승으로 예언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초월적 존재로 볼 수는 있다. ⑥의 경우 양 원수가 절에서 할 일을 알려 주었으므로 주인공을 조력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⑧의 경우 화자는 그 정체도 모르고 있으므로 ⑧가 화자를 조력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⑧는 화자가 궁금해하며 감탄해 마지않는 백옥루를 중수한 주체이며, ⑥는 절에 온 양 원수에게 인사하고 절에서 할 일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④와 ⑥의 행위가 각각 화자와 양 원수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④에는 ‘우뚝 솟은 산의 ~ 유람할 만한 경치였다.’와 같이 웅장한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 이는 ‘유람할 만한 경치’로서 인물의 호기심과 관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주인공인 양 원수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양 원수는 전쟁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백옥 채찍을 들어 ~ 일제히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은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는 ‘붉은 놀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한 배경 속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나오는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급격한 전환과 새로운 인물의 출현은 사건이 전환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에는 ‘용왕’이라는 비현실적 인물이 등장하고 ‘시속의 풍악과’는 다른 풍악이 울리고 있다. 이는 음악 소리에 대해 인물이 생

소하게 느끼는 감각을 통해 그가 비현실적인 공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에는 인물이 남악 형산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인공이 형산 아래에 있다가 ‘언덕’과 ‘구렁’을 지나 ‘지경이 그윽’한 깊은 산속으로 이동하는 경과가 공간의 지리적 상황에 대한 묘사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양 원수는 승전하여 용왕의 잔치에서 환대받고 남악 형산에서 노승을 만나는 꿈을 꾸다. 그리고 양 원수에게 당면한 현실은 전쟁이며 양 원수는 꿈에서 깨어나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나라에 공을 세우려는 욕망을 충족한다. 따라서 양 원수에게 (나)의 현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 욕망 실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며, 양 원수가 그러한 현실을 꿈속 세계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꿈을 꾸어 십이루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 물어 보고 아뢰어도 보려고 했으나 그 행위를 ‘다 못하고서’ 돌아오는 설정을 통해 현실에서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는 화자를 대하는 ‘옥황상제’와 ‘신선들’의 상반된 태도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는 신선들이라는 특정 부류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와 비판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양 원수는 꿈속에서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 초연히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라며 탄식한다. 이는 양 원수가 당면한 현실에서 마음과 정신의 고달픔으로 인해 생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는 꿈속에서 남악 형산이라는 이상 세계를 경험하고 잠시나마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성취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소하고자 ‘물으려 하고 ‘아뢰어 보려’ 한 것을 꿈속에서도 결국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된다. (나)의 양 원수도 꿈속에서 승전으로 인해 펼쳐진 축하연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다하지만, 꿈속에서 남악 형산의 그윽함에 젖어 들어 ‘초연히 만물 밖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일시적으로 성취할 뿐, 노승의 말대로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므로 원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얻지는 못한다. 따라서, (가)의 화자와 (나)의 양 원수는 꿈속에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욕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05 갈래 복합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③

가 작자 미상, 「화전가」

해제 이 작품은 영남 지역의 내방 가사로 알려진 화전가의 하나이다. 창작 연대와 작가는 미상이다. ‘화전’이란 꽃을 넣어 부치는 전으로, 조선 시대 부녀자들은 봄에 산에서 이 화전을 부쳐 먹으며 ‘화전놀이’를 즐겼다. ‘화전놀이’는 시집살이의 굴레에 갇혀 살던 여인들에게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대부분의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하루를 즐기는 모습,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도착한 뒤의 감회 등으로 구성된다. 지문으로 제시한 ‘화전가’는 서사 부분에서 ‘화갑’을 맞은 임금에 대한 축수와 그것을 축하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 낸 것이 특징이다.

주제 규중에서 썩힌 괴로움을 풀어내는 여인들의 화전놀이와 그 즐거움

구성

- 서사: 우리 임금의 화갑을 맞은 태평세에 화전놀이를 떠나려 함.
- 본사 1: 불한불열 삼춘을 맞아 화전놀이를 할 날을 정함.
- 본사 2: 화전놀이를 나가 주변의 경치를 관람함.
- 본사 3: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화전을 지져 먹으며 하루를 즐김.
- 결사: 해가 저 자리를 마무리하며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함.

나 의유당, 「의유당관복유람일기」

해제 이 작품은 「의유당관복유람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로, 북산루와 서문루(무검루) 등을 유람한 여정과 북산루에서 돌아올 때 햇불을 켜 든 장관, 서문루에서 바라본 민가의 모습 등을 그려내고 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격조 있는 안목을 바탕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탁월하고 섬세하게 그려 냈다는 점에서 기행 수필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시각적 이미지와 직유법을 이용하여 경관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과 필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글쓰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연안 김씨가 남편인 이화찬을 따라 함흥에 갔다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의령 남씨가 남편 신대손이 함흥 판관직을 지내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제 북산루에서 돌아오는 과정과 서문루에 대한 감상

구성

- 북산루에서 풍악을 울리며 놀다가 햇불을 켜고 돌아옴.
- 체재공이 새로 지은 서문루(무검루)를 시묘년 시월에 구경하려 감.
- 시쪽 창문을 열고 즐비한 집들을 구경하며 밤이 다하도록 놀다 옴.

다 박죽서, 「병에서 일어난 후」

해제 병을 앓고 일어난 뒤 파리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성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한시이다. 화자는 병을 꽤 오래 앓았는데,

않는 동안 살구꽃 피는 날들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봄도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초목을 완상하며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생활이 자신이 진정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화자는 스물세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느질과 시 짓기만 하며 보낸 시간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다.

주제 앓고 난 후 깨닫는 여성 시인으로서의 삶과 한계

구성

- 가: 병을 앓고 일어난 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음.
- 승: 초목과 어울리는 그윽한 생활이 자신이 진정 바라는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됨.
- 전: 시를 지어도 화답해 줄 이가 없음과 병으로 인해 파리해져 버렸음에 안타까움을 느낌.
- 결: 스물세 해 동안 바느질과 시 짓기에만 몰두해 온 자신의 삶을 돌아봄.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는 ‘암하’와 ‘강산’에게 이별의 말을 건네며 ‘하루 놀음’을 끝내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창안백발’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어느새 나이가 들어 버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곳을 다시 찾아오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시작 부분에서 화자는 ‘어와 여종들이 이내 말삼 들어보소’와 같이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어서 ‘이해가 어떤 해노’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화전놀이(‘하루 놀음’)를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우리 임금 화갑’을 맞아 ‘우리 여인’ 또한 ‘화답’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한 태평세’를 맞은 기회에 ‘우리 비록 여자라도’, ‘아니 놀고 무엇 하’겠느냐고 묻기도 하고 있다. 화자는 여성 신분으로서 가능한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있다.
- ③ 화자가 가고자 하는 화전놀이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자는 ‘앞뒷집 서로 일러’, ‘노소 없이 다 모이어’ 한껏 치장을 하고 이웃들과 함께 화전놀이를 벌이려 하고 있다.
- ④ ‘하루 놀음’을 위해 화자는 ‘소학산’ 승지를 찾아가서 ‘좋은 경개’를 즐기고 있다. 화자는 ‘소선의 적벽’, ‘이백의 채석’ 등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찾아가는 승지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는 임금의 화갑을 축하하여 열린 과거

시험을 의미하고, ‘명유’는 이름 있는 선비를 뜻한다. ‘빈빈한 명유’는 화갑상 앞에 이름 있는 선비들이 모여 있는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려고 춘당대를 찾은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봉의 축원’은 임금의 장수를 축하하는 고사와 관련이 있고, ‘격양가’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고사와 관련이 있다. 해당 구절은 ‘우리 임금 화갑’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인정전 높은 전’은 ‘수연’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고, ‘백관’과 ‘창생’은 그곳에 모여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의미한다.
- ④ 화자는 ‘이해가 어떤 해노 우리 임금 화갑’임을 밝히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이 좋은 해’는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우리 임금 화갑’이 있는 해를 상기시키고 있다. ‘불한불열 삼춘’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삼월을 의미하며, ‘황앵’과 ‘봉접’이 날아다니는 봄날은 여인들이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를 의미한다.
- ⑤ ‘이러한 태평세’가 ‘우리 임금 화갑’과 관련하여 임금의 성덕과 은혜를 예찬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아니 놀고 무엇 하리’는 ‘이러한 태평세’를 기회 삼아 봄날을 맞아 꽃을 즐기러 가고 싶은 여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글쓴이가 ‘서문루’를 구경하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한양의 남대문’ 주변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남아 있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글쓴이는 ‘서문루’와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청사초롱’과 ‘햇불’이 만들어 낸 야간 행차의 장관을 즐기며 관아로 돌아오고 있으며, 빛이 만들어 낸 멋진 풍경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여행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즉 ‘순찰사였던 체제공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 ‘무검루’라고 이름 붙인 것,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고 사람들이 평한다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서문루’에 방문한 구체적 날짜, 방문 허락을 받은 과정, 계절적 배경, 달밤의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여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서문루’를 유람하는 여정에서 ‘독교를 타고 오’른 것, ‘팔작지붕’을 구경한 것, ‘누각 안에 들어가’ 살핀 것, ‘서쪽 창문을’ 열어 누각 아래 시장을 벌이던 집들을 구경한 것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서문루’의 물리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체험

하면서 해당 공간을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장소로 재구성한 것이다.

04 작중 상황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는 '하루 놀음(화전놀이)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꽤'해졌다고 자신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편 (나)의 글쓴이는 서문루를 구경하고 '기이하였다.',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요란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와 같이 자신의 감상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나)의 글쓴이가 '성의 누각'에서 바라본 풍경을 '한양의 남대문 누각'에서 바라본 풍경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언급을 통해 한양에서의 풍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시름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이월이라 염오일은 청명시절 제때로다'와 (나)의 '신묘년 시월 보름날, 달빛이 대낮같이 환하고'에서 ㉠과 ㉡의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여인들은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를 마무리하고 귀가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의 행차가 '독교를 타고 오'를 때부터 '달빛 아래'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의 경우, 화자와 여인들이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며 /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라며 ㉤의 장소를 고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이날 밤(㉥)에 '서문루'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원님께 청하'여 허락을 받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원산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 황운 같은 귀밀일랑 선빈으로 꾸미도다'와 같이 ㉦를 위해 자신을 단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의 글쓴이는 ㉧의 행차와 '서문루'의 풍경을 주로 다루고 있을 뿐, 본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차에 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서술자는 ㉡을 통해 구경을 다니며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는 모습을 언급하기도 하고, '건달들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싶었다'며 자기 생각을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글쓴이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건달들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서술자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가진 막연한 선망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선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장상'은 글쓴이가 떠올린 인물로, 글쓴이의 행차가 그에 못지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을 통해 글쓴이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서 글쓴이는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을 보면서 자신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있다. 글쓴이가 '손뻐을 치고 웃'은 것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이나 여성으로서의 처지를 자각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자신이 쓴 '상자 속의 시구절'에 '화답'받지 못하는 상황을 밝히고 있다. '시'를 써도 '상자'에 넣어 놓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절반은 바느질로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여성으로서 '바느질'을 하며 살아왔음을 성찰하면서, 동시에 '시를 쓰며'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삶만큼이나 시인으로서의 삶을 중시해 왔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0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는 '인간의 자연취객'처럼 '흥대로 놀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은 글쓴이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글쓴이는 화려한 야간 행렬 속에서 '군영의 대장'을 떠올리고 그의 야간 행차를 자신의 야간 행차 경험과 비교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초목과 어울리고 있는 자신의 생활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에게는 '신선'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나)의 ㉡와 (다)의 ㉢는 각각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였고, 화자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기 위해 제시된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화자가 그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와 ㉥는 그렇지 않다. ㉤는 글쓴이가 자신의 야간 행차에서 느낀 점을 형상화하기 위해 떠올린 인물이다. ㉥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그옥한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화자가 ㉣가 하고 있는 '그옥한 생활'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와 ㉧는 현실 세계에 실존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특히 (다)의 화자는 ㉨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 ④ ㉩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를 언급하면서 그를 따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하지만 ㉪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며, ㉪를 따를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도 드러나지 않는다. ㉫의 경우, 화자가 그 삶을 따르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화자는 자신이 ㉔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㉕ ㉔는 초월 세계의 존재일 수 있지만, ㉔는 현실 세계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 ㉔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글쓴이가 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06 갈래 복합 본문 262~266쪽

-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㉔ 06 ㉔

㉔ 백석, 「남신의주 유등 박시봉방」

〔해제〕 이 작품은 방랑하는 화자가 삶에 대한 반성을 거쳐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의 제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나타낸 것으로, 객지에 홀로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화자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자기 성찰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북받치는 회한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은 20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전환을 보인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삶을 움직이는 초월적 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화자의 감정은 점차 진정되고 외로움의 감정만이 남는다. 이윽고 화자가 떠올리는 '갈매나무'는 시련을 견디며 현실을 살아가는 고결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며, 새로운 삶의 지향을 보여 준다.

주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구성

- 1~8행: 타향에서 떠돌다가 목수네 집에 세를 든 '나'
- 9~15행: 자신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나'
- 16~19행: 북받치는 회한을 느끼는 '나'
- 20~23행: 삶을 움직이는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는 '나'
- 24~32행: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나'

㉕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해제〕 이 작품은 이념이 강요되는 현실 속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내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자신의 영혼을 '북가시나무'에 빗대면서, 다양한 상징적 소재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영혼에 가해지는 이념들의 폭력을 형상화한다. 또한 현실의 횡포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보이면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내어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드러낸다.

주제 현실의 횡포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

구성

- 1연: 이념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상처 입은 영혼
- 2연: 신목의 향기를 떠올리며 얻는 위로

- 3연: 현실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
- 4연: 현실에 대한 저항과 순수성이 담긴 시를 쓰겠다는 다짐

㉔ 정약용, 「수오재기」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큰형님의 서재 '수오재'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고 그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는 현상적 자아와 구별되는 본래적 자아로 '내[품]'을 상징하여, 천하 만물과의 대비를 통해 '나[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면서 '내[품]'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큰형님이 서재에 이름을 붙인 의도를 추측하면서 그 삶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낸다.

주제 '내[품]'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

구성

- 기: '수오재'의 이름에 대한 의문
- 승: '내[품]'을 지켜야 하는 이유
- 전: '내[품]'을 잃은 채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반성
- 결: 「수오재기」를 쓰게 된 이유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나)에는 직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가)의 경우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깨김질하는 것이었다.'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슬픔과 후회의 심화를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나)에는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가)의 경우 20행의 '그러나' 이후부터 기존까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나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접속어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㉒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가)에서는 '쌀랑쌀랑'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갈매나무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㉓ (가)에는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나)에서는 3연의 2~5행, 4연의 5~8행 등에서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현실의 횡포와 순수성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㉕ (가)에는 '씨락눈', '눈', (나)에는 '봄기운' 등과 같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이들은 각 작품의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2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㉕은 '대장간의 낫'의 예리함을 나타낸 표현으로 추상적 대상

인 ‘시퍼런 생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장간의 낫’이 지닌 ‘시퍼런 생기’는 강인한 저항 의지를 지닌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대장간의 낫’이 표상하는 대상의 폭력성을 보여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슬픔과 어리석음’을 화자가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대상, 즉 감각할 수 있는 사물처럼 드러내어 화자의 깊은 후회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은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그것이 의지를 지니고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모습에 대한 상상을 드러내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은 ‘내 영혼’을 상징적 소재인 ‘북가시나무’로 나타내고 그것이 가위질당하는 상황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의 상처 입은 내면이 드러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⑤ ㉤은 ‘나[품]’를 글쓴이 자신과 분리된 대상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것이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까지 자신을 따라온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글쓴이가 겪었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한 방’은 ‘나’가 ‘거리 끝에 해매’다가 세를 들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며, (나)의 ‘허공’은 ‘나’가 ‘국도변’에서 ‘원치 않는 것발과 플래카드들’에 시달리다가 잠들어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공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한 방’은 ‘나’가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정화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나’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이를 속죄하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허공’이 ‘나’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공간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한 방’은 유랑하던 ‘나’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거나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곳이므로, 시련에 따른 무력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허공’은 현실의 ‘국도변’과 달리 ‘나’에게 가해지는 시련이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므로, ‘나’가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가)의 ‘한 방’은 유랑하던 ‘나’가 가족과의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는 공간이므로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의 ‘허공’은 ‘나’가 ‘무슨 무슨 주의의 옛장수들’이나 ‘원치 않는 것발과 플래카드들’과 같은 현실의 존재들에게서 벗어나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세속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한 방’은 ‘나’가 자신의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허공’은 ‘흠집투성이 몸통뿐’인 ‘나’가 이미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떠올리고 있는 상상 속의 공간이므로, ‘나’가 자신이 현재 상황이 부정적임을 깨닫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04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품]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일반적 판단이 옳음을 입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품]’를 ‘천하의 만물’과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나[품]’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것이 없다.’와 같은 물음과 그 물음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타인과의 논쟁에서 비롯된 의문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여러 예를 검토한 결과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품]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나[품]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내용에서 인과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나[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경험이 담긴 일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05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처음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듣고 ‘나’가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했으나,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된 뒤에야 뒤따라온 나[품]를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귀양을 온 뒤에야 나[품]를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음이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품]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다고 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었음을 고백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험으로 과거 공부에 전념하고 벼슬살이를 했던 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공부에 전념하고 벼슬살이를 하면서 나[품]을 지키고자 힘썼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글쓴이는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한 결과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장기로 귀양을 오기 전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해 탐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는 큰형님이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거실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 말을 ‘핑계 대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형님의 본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리고 맹자의 말씀이야말로 큰형님의 본래 의도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는 말에서 ‘바람’이 화자의 슬픔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 상황을 유발한 외부 세계의 존재는 ‘바람’이 아니라 ‘무슨 무슨 주의 옛장수들’ 및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표상하는 대상이며, 화자는 이들의 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말에 문제 상황을 유발한 외부 세계의 존재가 자신의 슬픔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담겨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되새기는 것은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유랑하고 있는 화자가 삶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이러한 성찰 행위를 통해 심리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슬픔’, ‘한탄’ 등을 가라앉히고 외로이 서서 깨끗하게 시련을 견디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는데,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상이 투영된 대상이며,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는 삶의 태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로 인해 소리 죽여 울다가 ‘대장간의 낫’과 ‘톱니’의 위협을 인식하자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언젠가’ ‘앞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쓸 상황을 상상한다. 즉 화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을 극복한 결실로서 시를 쓰고 싶다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내[품]’를 잃어버린 삶의 문제에 직면하여 바람직한 자아상으로서 ‘내[품]’을 지키는 삶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 달리 그러한 삶을 실천해 온 ‘큰형님’을 떠올려 삶의 본보기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 갈래 복합

01 ① 02 ⑤ 03 ① 04 ③ 05 ① 06 ③

가 박목월, 「경사」

해제 이 작품은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 점차 나이가 들며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자신이 늙어 가는 일을, 무거운 젊음의 구두를 벗고 가벼운 신발을 신은 채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끼며 내리막길을 걸어 바다에 이르는 일에 빛대면서, 그것이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당연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나이 드는 일에서 느끼는 가벼움과 신비로움

구성

- 1연: 유자나무와 굴나무가 있는, 바다로 기운 길
- 2연: 가벼운 신발을 신고 걸으며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 3연: 내리막길의 끝에 있는 심오하고 잔잔한 바다
- 4연: 가벼운 신발을 신고 걷는, 바다로 기운 당연한 길
- 5연: 황혼 무렵 바다로 기우는 세계에서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나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해제 이 작품은 여름 나무와 겨울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시켜 노래한 시이다. 온통 산발을 한 듯 어지럽게 흔들리며 자라난 나무의 모습에서 스물 안팎의 젊은 시절 숨 가쁘게 살았던 자신을 떠올린 화자는,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린 앙상한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마흔 가까운 중년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탕에 들어앉아, 벗을 것을 벗어 버린 겨울나무와 같이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조금씩 확인해 나간다.

주제 겨울나무를 보며 깨닫는 삶의 기쁨

구성

- 1연: 숨 가쁜 여름 나무처럼 격정적이었던 젊은 날의 방황과 열정
- 2연: 겨울나무처럼 벗을 것을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때의 모습
- 3연: 삶의 참모습을 확인하는 기쁨

다 김창홍, 「낙치설」

해제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낙치(落齒), 즉 이가 빠지는 일을 경험한 글쓴이가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살아온 자신을 반성하고, 안정된 정신과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를 찾을 것을 결심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글쓴이는 이가 빠져 책을 제대로 소리 내어 읽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인생의 근원적 의미를 찾기 위해 독서를 즐기는 글쓴이에게 심각한 사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런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또 다른 경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주제 늙어서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한 삶의 태도 성찰

구성

- 전반부: 이가 빠지는 체험을 한 뒤, 나이에 어울리는 분수에 맞게 살지 않은 이제까지의 삶을 반성함.
- 후반부: 노인으로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와 천리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함.

01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마지막 연에서 ‘오오’라는 감탄사를 통해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와 (나) 모두 의성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가)에서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은 대구가 사용된 시구로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같은 시구는 반복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표현하고자 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는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지순한 길’, 즉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를 확인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온통 산밭을’ 한 듯하던 나무들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별거벗은 ‘겨울나무’가 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가)의 ‘굴나무’와 (나)의 ‘겨울나무’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가 대면한 세계는 완고하다기보다는 섭리에 따르는 자연스러움을 지닌 곳이다. 또 (나)의 화자는 흥분함과 기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허무감이 차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② (가)의 화자가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한편 (나)에서 ‘겨울나무’는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린 모습을 한 대상으로서 화자가 현재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화자가 유지하려 했던 희망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④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진실을 혼자만 알고 싶어 한다거나 인위적 존재에게 거부감을 느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0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에서 ‘숨 가쁜 나무여’는 화자가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을 환기하는 대상을 호명한 시구이므로, 화자가 현재 지니고 있는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의 대상을 호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은 ‘어지럽게 흔들’리던 과거의 자기가 지니고 있던 지나친 열망 같은 것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의 화자는 젊은 날 느끼던 감정과 대비되는,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어 느끼게 된 감정을 제시하고 있고, [A]의 ‘스물 안팎 때’와 [B]의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는 그 각각을 가리키는 시구이다.
- ③ [B]의 마지막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라는 시구이고, 거기에 이어지는 [C]의 첫 행은 화자가 목욕을 하느라 옷을 벗고 ‘탕에 들어앉’은 상황에 대한 진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벗어 버린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시구들을 통해 두 연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비로소’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따라서 이는 (나)의 화자가 겨울나무들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느끼게 되는 것, 즉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 같은 것을 ‘시원하게’ 벗어 던지고 흥분해진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 ⑤ [C]에는 젊은 시절과 달라진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제의 진술을 사용한 것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는 이가 빠진 이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자신이 늙어 쇠약해졌음을 잊고 아직 젊었다고 착각하던 때, 즉 이가 빠지기 이전 시기의 일상생활 속 태도에 관한 서술이다. 따라서 이를 이가 빠진 이후의 신체적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서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는 자기보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많은 세상에서 자신은 이미 장수를 하고 있는 편이니 슬퍼하지 않고 스스로 달랠 만하다는 진술이다. 그러므로 이는 이가 빠진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해 보고자 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다.
- ② ㉖는 이가 빠짐으로 인해 소리 내어 글을 읽는 즐거움을 잃게 된 것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진술이다. 앞서 글쓴이는 이가 빠져서 음식 먹기가 어려워진 것도 슬퍼할 만한 일이라고는 하였지만, 그

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라고 하면서, 낭랑한 소리로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㉔는 이가 빠져서 생긴 변화 중에서도 소리 내어 글 읽는 즐거움을 잃은 것이야말로 글쓰기가 크게 안타까워하는 것임을 밝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㉔에서 글쓰이는 주자의 예를 들어, 그에 준한다면 자신도 이가 너무 늦게 빠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는 글쓰이가 자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인물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⑤ 글쓰이는 늙음을 잊지도 탄식하지도 않아야만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㉔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음으로써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글쓰이가 생각하는,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긴조한 가을길’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화자의 회한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회한은 누우치고 한탄한다는 뜻인데, (가)의 화자가 무언가를 누우치고 한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㉔은 ‘남색’이라는 색채어를 포함한 시각적 이미지로 ‘심오한, 잔잔한 세계’인 바다의 평온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㉔은 산밭을 한 수풀의 역동적인 모습을 ‘어지럽게 흔들어’라는 시구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젊은 날의 혼돈과 방황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㉔에서 (나)의 화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것들’은 ‘겨울나무’들이다. 따라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화자는 그 겨울나무들이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이때 겨울나무들의 모습이 기뻐 보이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반가움이 겨울나무들에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㉔에서는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은 (다)의 글쓰이가 소망하는 추상적 상황, 즉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는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를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라고 한 것은 노화의 과정에서, 아직 확실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겨울나무들이 화자에게 손을 흔들면서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심리적 안정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노화의 과정이 되도록 천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시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가 젊음을 ‘젖은 구두’를 신었던 ‘무거운’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그것을 벗게 되는 것, 즉 젊음의 시절을 지나 나이가 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경사진 길을 걸어 내려가며 느끼는 것이 ‘신비스러운 경사감’이라는 점 또한 나이가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② (가)를 중년 이후로 나이 드는 과정과 관련하여 해석할 때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은 인생의 황혼기, 즉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 풍경으로 ‘설레는 구름과 바람’을 언급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과 조응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④ (다)의 글쓰이는 이가 빠진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슬퍼한 이유는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애달파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⑤ (다)의 글쓰이는 이가 빠진 것이 초래한 불편함과 슬픔에 관해 이야기한 후 그 대신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평함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이 편안해지’는 등 노화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보다 성숙해진 관점으로 상황을 돌아보고 노화를 편안히 받아들이는 심리적 안정에도 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8 갈래 복합

본문 272~276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②

㉔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해제〕 이 작품은 감나무와 화자를 동일시하며, 유추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감나무의 익어 가는 땡감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고, 기다림 끝에 맺은 형형 등불(홍시)은 이별의 고통을 감내한 화자가 얻게 된 내적 성숙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땡감이 익어 가는 감나무를 보며 이별의 고통을 견디고 기다리면 마침내 더 성숙해질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주제 익어 가는 감을 통해 깨달은 내적 성숙의 과정

구성

- 1~8행: 흔들리는 감나무를 바라보는 화자
- 9~12행: 커 가는 땀감처럼 커지는 그리움
- 13~21행: 이별 후 임을 기다리는 자세
- 22~27행: 흥시가 된 감을 통해 깨달은 내적 성숙

11 장석남, 「수목 정원 9-번짐」

해제 이 작품은 먹의 번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수목화 기법을 활용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나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수목화는 형태와 색채, 농담과 여백이 뚜렷하지 않은 방식을 활용하는데, 화자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즉 계절의 변화, '너'와 '나'의 관계 형성, 성장과 결실,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이 모두 번짐을 통해 서서히 스며들며 관계 맺고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번짐으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구성

- 1~6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너'와 '나'의 관계
- 7~10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성장과 결실
- 11~16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과 미술, 삶과 죽음의 관계
- 17~20행: 번짐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12 강이천, 「창해옹의 산수 여행」

해제 이 작품의 원제목은 '기창해옹유산사(記滄海翁遊山事)'로, 글쓴이가 창해옹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은 바를 소개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창해옹을 만나 그가 세상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비들과 허황된 세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글쓴이는 창해옹이 산수 여행을 통해 도를 닦는 이라고 칭송하며, 여전히 조선 땅을 누비는 그에게 경이감을 표한다.

주제 창해옹을 통해 깨달은 산수 여행의 진정한 의미

구성

- 처음: 창해옹의 이력과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
- 중간 1: 창해옹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점 - 창해옹이 산수 여행을 하는 이유
- 중간 2: 창해옹과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점 - 창해옹의 산수 여행이 지니는 의미
- 끝: 여전히 산수 여행을 하는 창해옹에 대한 경이감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감나무의 땀감이 무르익어 흥시가 되는 변화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에서는 어떤 대상이 '번짐'의 과정을 거쳐 다른 대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나)는 인간사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괴로움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는 '기다림', '서러움'을, (나)는 '여름', '가을', '삶', '죽음'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하였지만, 그것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가), (나)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만,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창해옹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외모부터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가 세상을 여행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진정한 선비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창해옹은 글쓴이에게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을 뿐, 글쓴이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창해옹을 처음 보았을 때, 풍정이나 기세가 속세의 사람과 달리 평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② 글쓴이는 창해옹이 건네준 유산기를 본 후, 창해옹이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세상을 벗어나서 노니는 옛사람'과 같다고 말하였다.
- ③ 창해옹은 글쓴이에게 우리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힘을 다하여 다니면 '정신을 넓게 트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④ 글쓴이는 '도'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창해옹이 산수 사이에서 즐거움을 느끼므로 여행은 그가 도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삶'은 '죽음'이 되고, '죽음'은 다시 '삶'을 밝힌다고 했으므로 이 둘은 순환 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B]에서 '세상 구경'을 해야 넓은 '시야'를 지닐 수 있다고 했으므로 '세상 구경'은 '시야'를 넓히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음악'은 '그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런데 [B]에서 '정신'과 '세상 구경'은 각각 '속'과 '시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창해옹은 여기서 '정신'과 '시야'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② [A]에서 '저녁'과 '밤'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 유한성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B]에서 '지렁이'와 '등에'는 보잘것없는 존재

를 상징할 뿐, 무한성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③ [A]에서 '삶'은 '죽음'이 이어져 다시 '삶'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런데 [B]에서 '시야'를 넓히는 도구는 '속'이 아니라 '눈'으로, 답답한 '속'은 '정신'이 뚫려야 해결된다고 하였다.

⑤ [A]에서 '음악'은 '그림'에 영향을 미칠 뿐, 이 둘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B]에서 '늪은이'는 창해웅 자신을 이르는 말로,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은 그가 자신과 차별화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없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쓰인 '흰구름'과 '장대비'는 대조적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이 소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자가 드러내려는 생각은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인간도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이별의 아픔을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사랑이 끝나도 그리움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는 '변집, / 번져야 살지'처럼 행을 나누고 쉽표를 사용하여 '변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 창해웅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실재하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여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에서 '아!'는 제주도에서 보았던 인물이 창해웅일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한 창해웅에 대한 글쓴이의 경이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는 감나무의 땀방울이 흥시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화자는 내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는 창해웅이 산수 여행을 한 공간 중 하나이고, 창해웅은 이곳에서 다양한 자연 현상과 사연을 보고 들었다. 따라서 백두산은 창해웅에게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이 맞지만, ㉠는 이별의 고통을 인내하는 공간일 뿐, 이곳에서 자연과의 이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② ㉣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공간이지만, ㉡는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공간은 아니다.

④ ㉤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는 과거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아니다.

⑤ ㉠는 자연물을 보며 깨달음을 얻는 공간일 뿐,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공간은 아니다. ㉡는 창해웅의 여행지일 뿐, 자연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공간은 아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서러움까지 익어선 /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것은 '땀방'이 결국 흥시가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때 흥시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땀방'이 '흥시'가 되려면 '서러움'까지 익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별의 아픔마저 충분히 감내해야 내면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구가 내면의 풍요로움을 회복해도 이별의 상처마저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그 그리움'은 이별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움이 날로 자라서 '땀방들'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나)에서 '변집다'는 것은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든다는 것으로 '너'와 '나'가 서로에게 변진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게 서서히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수목화를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④ (나)에서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는 인간을, '봄 나비 한 마리'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두막이 나비로 변진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서히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우리 성인께서는 마음으로 얻은 것에 즐거움을 둔다'고 하며 성인이 즐거움을 얻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창해웅의 즐거움은 산수 사이에서 얻은 것이 아닌가? 헤아릴 수 없구나!'라고 했는데, 이는 창해웅도 성인처럼 마음으로 얻는 즐거움을 추구한 인물임을 나타낸 것이다.

09 갈래 복합

본문 277~282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⑤

가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해제〕 이 작품은 문명에 위협당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의 문제를 비판적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채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리, 꼬마전구로 장식된 나무들을 보면서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화려해 보이는 불꽃과 나무 장식과 같은 문명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명이 만들어 내는 화려한 풍경 앞에서 자연의 가치와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

구성

- 1연: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
- 2연: 밤에도 환하게 불 밝히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도시 권력들
- 3연: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광화문과 겨울나무

ㄴ 이태준, 「화단」

해제 이 작품은 화초와 같은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비틀어서 자신의 화단을 가꾸어 나가는 노인의 태도를 보면서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화단과 노인, 화초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 소재를 통해 글쓴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인위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구성

- 전반부: 온갖 공을 들여 화단을 가꾸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노인을 지켜봄.
- 후반부: 인위적으로 화초를 가꾸어 화단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노인의 행태와 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냄.

ㄷ 김시습, 「애물의」

해제 이 작품은 김시습의 문집에 실린 수필로, 만물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와 ‘어떤 이’와의 문답 방식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만물로 하여금 천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과 만물이 함께 존재하기는 하나 인간이 으뜸이며 만물이 그다음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경전이나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러한 인본주의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구성

- 처음: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과 해답
- 중간: 만물을 어질게 대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및 만물의 살생에 대한 생각
- 끝: 인민과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불꽃나무!’에는 영탄적인 표현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인위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화자 또한 현혹당할 뻔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앞서 언급된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을 열거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거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상황에 놓인 대상들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와 같이 생명이 없는 대상들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즉 사물을 인격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러한 대상들 역시 잠들지 못할 정도로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광화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복궁의 정문을 가리키는데, 시속에서는 경복궁의 정문이 있는 일대의 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가 ‘노인’의 재주를 끝내 칭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두고 내내 후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쓴이는 ‘노인’이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구경시키는 화단보다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여겼던 탓에 노인을 칭찬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글쓴이는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탓에 ‘노인’의 재주를 칭찬하지 않은 것이며, 칭찬할 수 없었던 것 자체를 아쉬워하고는 있으나 이를 두고 내내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인’은 글쓴이가 행동을 관찰하는 인물로, ‘손아들을 데리고’ ‘조석으로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는 등 ‘병들어 가는 화단’을 보살피고 있다.
- ②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하였다.’를 고려할 때 자신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말라 가는 화단의 식물을 보며 속상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짝이 사랑하는 노인’이라는 진술을 고려할 때, 서화를 좋아하고 화초 가꾸는 것을 일로 삼는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화단을 구경시켰다는 내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단을 내보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노인이 가꾸는 ‘장미’, ‘어린나무에 열매가 맺힌 ‘복숭아나무’,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라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글쓴이는 화단에 있는

장미나 복숭아나무가 노인의 공이 들거나 손길이 닿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사람들로 인해 ‘엽록소를 버’리고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 오’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㉓는 화자가 안타까운 감정으로 응시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노인이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등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은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인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㉔는 글쓴이가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는 본성을 외면당한 채 ‘엽록소를 버’리고 낮이 아닌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자연물로서 화자가 안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㉓는 글쓴이가 ‘노인’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은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자연물이므로 현재라는 시기에 대한 글쓴이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화자는 ㉔가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 오’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㉓는 글쓴이가 ‘노인’이 가꾸는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연물이므로 글쓴이와 다른 인물들 간의 표면적 갈등의 정도를 점점 강하게 하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㉓는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상으로,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풍경이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의 고요함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㉔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작하려 드는 ‘노인’과 같은 인물이 만든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와는 대조적인,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⑤ ㉓는 문명에 의해 본성을 거세당한 채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자연물이다. 이를 본 화자는 자연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외면하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문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㉓는 화자로 하여금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㉔는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이다. 또한 (나)에는 글쓴이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㉔가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0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노인’이 가꾸던 식물들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 후,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이며,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는 없다는 요지를 언급하면서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도 ‘신의 창조’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는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을 묻는 것에 대해,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언급한 후, 『주역』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성현들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B]는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논지와 관련된 성현들의 말을 다양하게, 두루 인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통해 논지 전체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② [A], [B]는 모두 현상의 결과보다 다방면에 걸친 원인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특정 현상의 발생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A], [B]는 글쓴이의 입장에 반하는 견해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는 자연을 대하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B]는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 만물과 같은 소재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다각도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불교의 책’에서 ‘계율’로 삼고 있는 살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아닌지를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포하는 것으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만물을 대하는 군자의 선한 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병균’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밤’이 퇴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세태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㉔은 ‘나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상이 전개되다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 대상이 ‘사람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문제 상황이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㉔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는 것, ‘결가지 썰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는 것 등 자연물에 가해지는 인위적 손길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열거를 통해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짐으로써 ‘사 층 나무’, ‘오 층으로 된 나무’와 같이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된 ‘석류나무’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숲에 불을 질러 짐승을 한쪽으로 몬 뒤 사냥했던 ‘공숙단’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래를 제시함으로써 과도하고 포악하게, 필요 이상으로 ‘살상’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에서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경우나, 삶이 참혹한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살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혹한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살생하지 않는다’와 같은 계율에 얽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 자연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겨울’은 나무들이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시기로, ‘어둠’과 같이 안식과 휴식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은 ‘가로수들이 / 일제히 불을’ 켜게 되는 것과 같이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가위로 자르고 철사로 묶는 등의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여 나타나게 된 결과물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적 평가는 자연물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존재, 즉 인간을 위한 도구로 자연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과 만물이 대자연 속에서 함께 자라나 살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는 생태 중심주의 관점과 유사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 만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윤리적 관점에서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의 의미 진술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촌촌한 그물을 쓰지 않는’ 것, 사냥을

하더라도 ‘새끼나 알은 취하지 않는’ 것 등을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이 만물을 대하는 데 있어 적정선을 지킨다는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만물이나 자연을 대하는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갈래 복합

본문 283~288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③ 05 ④ 06 ④

가 현대 소설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

(해제) 이 글은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현대 소설의 미학적 성과로 간주하면서 그 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로,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가 대표적이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평가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는 작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인물의 의도나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주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

구성

- 1문단: 현대 소설의 미학적 성과인 신빙성 없는 서술자
- 2문단: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의미와 특성
- 3문단: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효과

나 김유정, 「동백꽃」

(해제) 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감자를 주지만 거절을 당한다. 이에 야속함을 느낀 점순은 ‘나’에게 닭싸움을 거는데 이는 모두 ‘나’에 대한 관심과 호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여러속하고 순박한 ‘나’가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이 이 소설의 재미이다. 그렇다고 ‘나’의 행동을 무지함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오당하지 못하다. ‘점순이’와 ‘나’는 각각 마름과 소작농의 계층에 속해 있으며 그러한 계층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 계층이 다른 사춘기 남녀의 갈등과 연애 감정

전체 줄거리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이가 관심을 담아 건네는 말에 무성의하게 답하고 더운 김이 서린 감자 세 개도 받지 않는다. 이에 점순이는 고의로 자기네 수탉과 ‘나’의 닭 사이에 싸움을 붙이며 ‘나’의 약을 올린다. ‘나’는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이며 점순네의 사나운 닭에 대항하지만 이기지 못한다. ‘나’는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동백꽃이 소복복하게 깔린 바윗들

틈에서 호드기를 불고 있는 점순이와 닭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나'의 수탉을 발견하게 되고 단단히 화가 난 나머지 점순네의 큰 수탉을 때려죽인다. 하지만 '나'는 '망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앞일이 걱정되어 울음을 터트리고 점순이는 그런 '나'를 달래며 '나'를 안고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해제 이 작품은 1978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다른 열한 편의 소설과 묶여 연작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구성한다. 난쟁이 가족의 첫째 아들인 영수가 피고인으로 선 재판을 중심으로 1970년대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은강 그룹을 운영하는 회장의 아들이자 재판의 방청객인 경훈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은강 그룹을 운영하는 자신의 일가와 노동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변화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노동자를 향한 편견과 냉혹한 시선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작품의 의미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노동자 계층의 비참한 삶과 고통

전체 줄거리 은강 방직에서 일하던 난쟁이 가족의 첫째 아들인 영수는 은강 그룹의 회장을 살해하려다 그와 외모가 비슷한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다. 은강 그룹 회장의 아들인 '나'는 사촌과 함께 법정에서 참석하면서 공장 노동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린다. '나'는 영수와 같은 부류를 악당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그런 혜택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지섭은 영수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였다는 취지로 변호하고, '나'의 사촌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영수는 자신이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후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경제사 관련 책을 읽다가 잠에 들고 꿈을 꾸다. 그 꿈에서 '나'는 살찐 고기들을 기대하며 그물을 치지만 큰 가시고기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자신에게 달려들자 살려 달라고 외치며 갠다.

01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나'는 어리숙한 성격을 지닌 서술자로, 독자는 그의 말하기에서 재미나 연민을 느끼며 웃게 되고, (다)의 '나'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편견을 지닌 서술자로, 독자는 그의 말하기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냉소하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의 '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온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순박한 성격, 성인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하는 것을 서술자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나'는 어리숙한 성격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여 평가하는 것을 서술자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나'와 (다)의 '나'는 모두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점에서 '독자가 그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나 이러한 특성이 고전 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나'가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이고 (다)의 '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라는 점에서 이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점순네에 대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인식을 전하는 부분으로, '나'의 가족이 마을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점순네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칭찬의 말이 불만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나'는 감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신이 잘못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자를 건네는 행위에 호의를 전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의 거절은 점순이가 서운함을 느낄 만한 행위이다.

② ㉡에서 '나'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의도를 지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점순이의 지속적인 말 걸기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호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나'는 '작은 악당'과 같은 부류들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과는 달리 그들에 대한 '나'의 인식과 평가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의 처지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나'는 자신이 읽는 책에 인용된 월터 스콧을 '허풍쟁이'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폄하는 그가 공장 지대를 돌아보며 알게 된 노동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간과한 것이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소설의 시간적 표지를 고려하여 일어난 순서대로 행위를 배열하면 '나'의 가족은 '삼 년 전'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에게 집터를 빌리고(ㄴ), '나'의 어머니는 점순네에게 신세를 지면서 '나'에게 '점순'과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ㄷ), '나'는 '점순'은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 묻지만(ㄹ), '나'의 반응에 불쾌감을 느끼며 바구니를 집어 들고 눈독으로 달아나며(ㄱ), '오늘'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자기네 수탉이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ㄱ).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오늘 일어난 행위(ㄱ)와 나흘 전 행위들(ㄷ, ㄱ)의 순서가 적절

하지 않다.

- ③ 나흘 전의 행위들(ㄷ, ㄱ)과 그보다 더 과거의 행위들(ㄴ, ㄹ) 사이의 순서 등이 적절하지 않다.
- ④ 나흘 전의 행위(ㄷ)와 그보다 더 과거의 행위들(ㄴ, ㄹ) 사이의 순서 등이 적절하지 않다.
- ⑤ 행위가 일어난 순서가 아니라 행위를 서술한 순서에 해당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점순이는 ‘너 얼른 시집가야지?’라고 웃는 동리 어른의 말에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라고 답한다. 이는 점순의 솔직한 성격이 드러난 말로, 이를 계층적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겼지만 ‘나’의 수탉은 몸집이 작다. 두 닭의 외양상 대조는 각각 주인공들의 생활 형편과 계층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가 점순네 닭을 후려칠 것을 생각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은 것은 이 닭이 마름의 닭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소작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비애를 엿볼 수 있다.
- ④ ‘나’의 가족이 점순이의 가족에게 굽실거리는 이유에 대해 ‘나’는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건넬 때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할 것을 문제 삼는데, 이러한 말이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계층적 차이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05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섭은 증언대에 올라가 앞으로 할 증언에서 거짓이 없을 것을 맹세한 것이지 그때까지 자신이 한 증언에 거짓이 없었다며 항변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내가 떠올린 것은 호수의 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와 들풀, 거기 부는 바람, 호수를 가르는 모터보트, 잔디 위에서의 스키, 이상한 버릇이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아주 단 낮잠들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변호사와 지섭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재판 중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한 풍경을 떠올린다.
- ② ‘그러나, 결국 궁금증 때문에 나는 졌다. 그 법정에 앉아 있는 한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

이,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변호인과 지섭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③ ‘미래 공학과 경제사가 내가 읽어야 할 책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아버지는 ‘나’가 미래 공학, 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 ⑤ ‘변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했겠느냐고 묻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인은 지섭이 한 말 중 강요된 행위나 억압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 따르면 지섭의 증언과 방청객인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지섭이 재판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눈’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지섭’이 ‘나’를 재판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라고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표현은 지섭이 저항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지섭의 증언과 방청객인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섭은 재판의 사건을 ‘강요된 행위’로 변호하지만, ‘나’는 지섭의 변호에 대해 화가 난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지섭의 증언과 방청객인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노동자 계층인 ‘저희들’을 향한 상반된 시각과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저희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해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지섭은 ‘나’의 ‘아버지’가 억압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보기>에 따르면 지섭의 증언과 방청객인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본가 계층인 ‘우리’를 향한 상반된 시각과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가 누리는 생존이 남다른 노력과 자본 등에 따른 것이라고 간주하지만 지섭은 ‘우리’의 생존이 저임금, 높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인간, 자연 등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보기>에 따르면 지섭의 증언과 방청객인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본가 계층인 ‘우리’와 노동자 계층인 ‘저희들’을 향한 상반된 시각과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이상 사회를 지향하고 행복을 거부한다며 넌더리를 내지만, 지섭은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1 갈래 복합

본문 289~293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⑤

가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해제 이 작품은 이효석이 1936년 『조광』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작가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봉평, 대화 등을 배경으로 장돌뱅이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장판이 끝난 후 서로 다툼 허생원과 동이가 대화까지 발길을 함께 걸으며 혈육의 관계를 서서히 확인해 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이 구사하는 토속적인 어휘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는 한국 소설 문학의 백미로 평가된다.

주제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肉親)의 정

전체 줄거리 원손잡이 장돌뱅이 허생원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총쫓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나무라며 따귀까지 때린다.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허생원은 장돌뱅이 친구인 조 선달과 함께 발길을 걸으면서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들려준다. 이들과 일행이 되어 대화 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에게 낮의 일을 사과하던 허생원은 동이의 집안 사정을 듣다가, 동이의 모친이 성 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허생원은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나 이효석 원작, 동희선 · 홍윤정 각색, 「메밀꽃 필 무렵」

해제 이 작품은 이효석의 원작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한 것으로, 원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인물이 취하는 행동의 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원작 소설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달밤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드러졌던 것에 반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허생원'의 순수함과 하룻밤 인연으로 끝난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각색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조 선달과 나귀는 개울을 재빨리 건넌으며 허생원과 동이가 훨씬 뒤쳐져 건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에는 이렇게 뒤쳐진 두 인물이 나는 대화만 제시되어 있을 뿐 조 선달이 동이에게 무언가를 묻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허생원과 조 선달, 동이는 모두 밤에 개울을 건너며 발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생원의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라는 말을 통해 이들이 대화 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원이 일행에게 한 말 중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라는 말을 통해 허생원이 읍내를 방문하여 나귀 새끼를 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동이가, 허생원에게 의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어머니 역시 이를 말리다가 의부로부터 폭행과 갈부림을 당했다는 말을 건네며 열여덟 살 때 집에서 나왔다고 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 선달이 개울물에 빠졌던 허생원에게 진중일 실수만 하는 이유를 묻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허생원이 자신이 나귀 생각을 하다가 실족을 하여 개울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답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는, 전지적 서술자에 의한 서술을 통해 허생원이 동이와 대화하며 개울을 건너다 물에 빠진 내용, 물에 빠진 허생원이 허우적거리다 개울물에 흘러간 내용, 동이가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A]에는 허생원과 동이가 경험한 사건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에는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달밤의 낭만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개울을 건너다 빠진 허생원의 모습이 외양 묘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또 [B]에서는 허생원 일행이 지나는 밤 별판의 분위기가 감각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배경 묘사가 나타난 부분이나 공간의 특성을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A]에는 허생원이 개울물에 빠지는 사건으로 인해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B]에는 허생원 일행이 지나는 공간적 배경과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에는 허생원과 동이가 개울을 건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인간의 유한함이 두드러지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또 [B]는 달이 기우는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의 영원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된 작품이지만 [A]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지 않다.

0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 선달은 동이의 아버지가 허생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동이가 허생원처럼 원손잡이인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리고 동이가 자신의 아버지 역시 원손잡이었다

는 말을 하자, 정말 허 생원이 동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㉓는 허 생원이 동이의 불우한 유년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해 듣고 나서 보인 반응으로, 허 생원은 동이가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동이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㉔는 동이가 가을이 되면 어머니를 모셔 오겠다는 계획을 듣고 허 생원이 보인 반응이다. 허 생원은 동이의 이러한 계획을 듣고 기특해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는 시점이 가을인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 자신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③ ㉕는 진종일 실수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조 선달의 질문에 나귀 새끼 때문이라는 허 생원의 대답을 듣고 조 선달이 보인 반응이다. 조 선달은 허 생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웃음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귀여운 나귀 생각을 하다 물에 빠졌다는 허 생원의 말을 듣고, 작고 귀여운 나귀가 생각만으로도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해 볼 때, ㉕에 허 생원에 대한 조 선달의 못마땅한 심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㉖는 개울물에 빠지는 실수를 한 허 생원이 자신의 실수를 둘러대는 장면에서 나온 말로, 동이를 혈육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허 생원이 자신이 실수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둘러댄 것이다. 그러므로 ㉖는 허 생원이 동이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4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허 생원이 동이에게 어머니가 원래 제천 사람인지를 물었으나 동이는 어머니의 고향이 원래 봉평이라고 들었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허 생원은 동이의 아버지 성씨는 무엇인지 질문을 이어 가고 있다. 허 생원의 이러한 질문은 혹시 동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 생원이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사실을 듣고 실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77에서 허 생원은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고, 동이 아버지를 '초 서방'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게 된다. 그리고 이는 허 생원이 과거 봉평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나타난 반응이다. 따라서 허 생원은 봉평을 다녀온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S#78에서 허 생원이 모처럼 제천을 방문해 보겠다는 말을 통해 허 생원이 제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S#77에서 동이는 허 생원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은 봉평이며, 현재는 제천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④ S#77에서 동이는, 가을이 되면 제천에 있는 어머니를 봉평으로 모시고 오려고 한다는 말을 허 생원에게 전하고 있다.

⑤ S#78에서 허 생원은 동이에게 모처럼 제천에 가고자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함께 동행할 것을 동이에게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허 생원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제천에 있다는 동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허 생원은 나이가 들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장돌뱅이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귀 백근이는 허 생원과 닮은 점이 많은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백근이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로부터 새끼를 얻었으므로 초라한 장돌뱅이 허 생원은 마치 자신이 혈육을 얻은 것과 같은 대리 만족을 느끼며 ㉑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백근이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로부터 새끼를 얻은 것은 맞지만 오직 이러한 이유만으로 ㉑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허 생원은 자신처럼 못난 꼴을 한 백근이가 새끼를 얻은 것 자체에 기뻐한 것이지만 백근이가 자신과 닮지 않은 새끼를 얻은 것은 신통해한 것은 아니다.

③ 허 생원이 봉평에 들러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은 귀여운 백근이의 새끼를 보기 위함이다. 즉 백근이의 새끼가 허 생원이 봉평을 자주 들르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허 생원이 백근이의 새끼를 보러 간다는 명분으로 봉평에서 다른 일을 하고자 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㉑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백근이의 새끼를 보러 간다는 명분으로 봉평에 더 자주 들러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백근이 새끼가 성장한다 해도 백근이 새끼는 허 생원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가 하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㉑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허 생원이 더 이상 나귀 새끼 같은 것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한 것은, 동이가 자신의 혈육이고 동이의 어머니가 있는 제천으로 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실현된다면 장돌뱅이의 삶을 그만두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서 더 이상 나귀 새끼 같은 것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

다는 허 생원의 말을, 혈육의 등장으로 인해 장돌뱅이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허 생원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가)에 있던 망나니 의부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략됨으로써 (나)는 허 생원과 동이의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생략됨으로써 허 생원과 동이 사이의 혈연관계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는 동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초 서방'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를 듣고 당황하는 허 생원의 모습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추가된 정보와 이에 대한 허 생원의 반응은, 독자에게 이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는 동이에 대한 허 생원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서술되는 데 반해, (나)에서는 서술자가 없어 해당 부분을 허 생원이 동이의 등에 기대는 행동으로 변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색의 내용은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인물의 행동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허 생원이 조 선달처럼 땅을 사 볼까라고 말을 한 것은 더 이상 장돌뱅이의 삶을 살지 않고 특정한 곳에 정착해 살아 보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 생원의 생각은, 동이가 자신의 혈육이고 제천에 있는 동이의 어머니와 자신이 재회한다면, 흠어졌던 가족이 모여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동이가 자신의 혈육일 것이라는 허 생원의 기대감이 원작보다 한층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부 | 실전 학습

실전 학습 1회

본문 296~311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⑤	08 ⑤	09 ③	10 ④
11 ④	12 ④	13 ⑤	14 ①	15 ③
16 ③	17 ②			

[01~04]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청백운」

【해제】 이 작품은 두쌍성이라는 인물의 일대기 속에 가문의 확립과 번성이라는 가문 소설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두쌍성은 호 부인과 혼인하여 함께 가문의 안정을 이루는데 세속적 성공을 이룬 두쌍성이 첩을 들이게 되면서 집안에는 갈등이 발생한다. 이 작품에서 두쌍성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뛰어난 재능을 갖추었으면서도 완벽한 영웅의 모습으로 형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충실히 살아온 호 부인은 두쌍성이 자초한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처첩 갈등으로 인한 두쌍성 집안의 위기

전체 줄거리 송나라 두 공과 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어 진 선생을 따라 화산에서 수학하게 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쌍성은 호 소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호 소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효를 다하며 남편을 보필한다. 이후 두쌍성은 장원 급제를 하여 공명을 얻는데, 어느 날 기생 나교란과 여섬요를 만나게 되면서 이들에게 미혹된다. 결국 두쌍성은 두 기생을 첩으로 들이고, 두 첩들은 시어머니가 죽자 호 부인을 모함하여 집에서 쫓아낸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호 부인은 침술을 배우게 되고, 두쌍성은 그동안 있었던 두 첩들의 악행을 알게 된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참전하게 된 두쌍성은 적의 독화살에 맞아 위기에 처하지만, 이때 나타난 호 부인의 침술로 살아난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두쌍성은 두 첩들을 처벌하고, 두쌍성과 호 부인은 복락을 누리다가 신선이 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호 소저는 자신이 재물이 더럽혀진 사건에 연루되자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이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다고 하며 '누추한 곳에서 대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쌍성은 별채에 불이 난 사건에 대해 노복들을 다스리겠다고 호 소저에게 말하지만, 호 소저가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생각하십시오.’라고 하자 ‘이 말은 시켜 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였다.
- ② 나교란과 여섬요는 두쌍성이 호 소저를 미워하자 ‘의기양양한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다.’라고 하였다.
- ③ 두쌍성은 제물에 머리카락이 그릇마다 들어있다는 것을 통해 ‘이는 분명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 ⑤ 나교란과 여섬요는 호 소저가 뒤뜰 작은 당에서 대죄한다는 소식을 듣자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 소저에게 문안하였다.’라고 하였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①은 나교란의 거짓말로, 호 소저가 설 부인의 제사 때 제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소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죽은 설 부인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자라, 두쌍성은 모골이 송연하였다.’를 통해 두쌍성이 ①을 통해 죽은 설 부인과 관련해서는 참소를 처음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초를 당하던 시비들이 ‘예전부터 제사 때가 되면 호 부인께서는 목욕재계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쌍성이 ①을 통해 죽은 설 부인에 대한 호 소저의 태도를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호 소저가 나교란과 여섬요를 원망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①은 호 소저에 대한 참소이며, 나교란의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혜화 소저의 진심과 관련이 없다. 또한 두쌍성이 ①을 계기로 혜화 소저의 진심을 알게 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여섬요가 두쌍성에게 나교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였다는 것을 통해 여섬요는 나교란과 함께 두쌍성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여섬요와 나교란은 ①을 계기로 혜화 소저와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③에서 ‘낭군의 은덕이 노복들에게까지 미쳤으니’에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에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추측이 드러나 있다. ⑤에서 ‘우리 호 부인이 지극한 효성’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천비들이 불충하여 호 부인께서 이런 누명을 쓰셨으니 천비 등의 죄는 천 번 죽어 마땅합니다.’에는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③의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생각하십시오.’에는, ‘노복들을 다스려 그 곡절을 물어보려고’ 한다는 상대방의 계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⑤에는 상대방의 위선을 꼬집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⑥의 ‘어르신께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시고도 불결한 음식으로 제사를 받들게’ 된다는 것에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⑤에는 대상이 보인 행동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⑥의 ‘불결한 음식으로 제사를 받들게’ 된다는 것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의 ‘낭군의 은덕이 노복들에게까지 미쳤으니’에는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근거로 든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③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두쌍성이 시비들에게 ‘호 부인이 넣지 않았다면 바로 너희들의 짓’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비들은 두쌍성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④의 ‘어서 죽여 주시옵소서.’에는 이러한 두쌍성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들이 차라리 자신들을 죽여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③에는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나타나 있지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두쌍성이 나교란의 말을 듣고 ‘내가 자식이 되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 욕이 돌아가신 어머니께 미치니 스스로 죄와 벌을 받는다고 한들 이 큰 불효의 죄를 어이 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중시하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또한 두쌍성이 시비들에게 ‘제물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담았는지’ 묻는 것과 혜화 소저가 ‘두쌍성이 호 소저를 이토록 의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통해 두쌍성이 호 소저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물에 불경한 짓을 한 자를 찾는다는 점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중시하는 두쌍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두쌍성이 제물에서 머리카락을 보고 호 소저를 의심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두쌍성의 면모를 보여 줄 뿐,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사적 욕망 사이에서 변민하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 주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후 두쌍성은 옳은 것도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삿일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 날이 갈수록 호 소저를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감정에 좌우되는 두쌍성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② 나교란이 두쌍성에게 호 소저가 ‘제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

고 하는 것과 ‘간교함이 들어맞게 되자,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였다는 것을 통해 간교한 첩들의 계략이 처첩 간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④ 시비들이 ‘예전부터 제사 때가 되면 호 부인께서는 목욕재계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혜화 소저가 호 소저에 대해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호 소저가 효를 다하는 사대부 여인의 모습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시비들이 ‘그 깊은 효성에 저희들이 감동하’였다고 하고 ‘천비들이 불충하여 호 부인께서 이런 누명을 쓰셨’다고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자백하지 않’는 것과, 혜화 소저가 ‘오라버니의 총명함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며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려’던 호 소저의 일을 들어 두쌍성을 설득하려는 것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여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05~10] 갈래 복합

가 조우인, 「출새곡」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함경도 지방의 관원으로 부임하며 쓴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변방의 관원으로 부임한 목민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관리로서 느끼는 사대부의 풍류와 현실 인식 또한 잘 나타나 있다. 부임지인 경성으로 떠나는 심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부임지로 가면서 보게 된 변방의 경물과 세태, 태평한 시절에 즐기는 춘흥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변방에 부임한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 변방으로 부임한 상황과 임지 생활에서의 소회

구성

- 서사: 변방의 관리로 임명받은 과정(수록 부분)
- 본사 1: 한양에서 경성까지의 이동(일부 수록)
- 본사 2: 경성에서의 생활과 소회(일부 수록)
- 결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회고(수록 부분)

나 홍성민, 「망설」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을 잊기로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정유길을 본받아 두 차례 중국에 다녀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려움을 잊으려 노력했고, 유배지에서도 이를 지키고자 하였다. 작가는 옛사람도 역경에 처할 때 모든 것을 잊고자 했음을 떠올리고 시와 술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는 평소 학문에 힘쓰며 사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잊는 것을 통한 어려움의 극복

구성

- 처음: 임당의 비결에 대해 듣게 된 과정
- 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잊기 위해 한 노력
- 끝: 잊는 것의 중요성

0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인고’와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에서, (나)의 ‘높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에서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던 말 전혀 마오’에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 있으며 이후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자인가 여기노라’라고 하였으므로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그대는 본반도록 하게.’에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꽃 피는 춘삼월’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이 년 뒤’, ‘아침에도 잊고 저녁에도 잊고 밤에도 잊고’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만 계절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가)의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던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자인가 여기노라’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에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는 화자가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라고 하자 어부가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대상과의 문답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손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타나 있을 뿐, 문답이 나타나 있지 않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화자는 ‘안변 북쪽’을 바라보며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리 밖 몰아낸 윤관과 김종서의 업적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린 것으로, 위태로운 나라의 상황을 염려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화자는 임지로 향하며 ‘용흥강’과 ‘정정부’, ‘만세교’, ‘낙민루’ 등을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들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화자의

여정을 보여 준다.

③ 화자는 ‘옥저 땅 산하’를 돌아보며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다고 하며 지세의 역사와 이에 대한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공간과 관련된 역사의 자취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화자는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 ‘맑은 경치’를 바라보며 수풀과 파도 등을 감상하며 흥취를 즐기고 있다.

⑤ 화자가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라고 하자 어부는 ‘갓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며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일체가 된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07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가 ‘이내 시름 어이할꼬’라고 하자 어부는 ‘이 말 듣고 낚싯대 돌려메고’, ‘벧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다. 이에 ①은 화자가 현실에서의 시름을 토로하자 어부가 보이는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선비도 우환을 당하면 시름 지어 근심을 풀고 술을 마셔 걱정을 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단정한 군자도 ‘술을 마시고 걱정을 잊고자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글쓴이는 ㉠을 통해 선비들이 현실에서의 시름을 잊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어부가 부른 노래에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다는 것과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는 내용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①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화자가 시름을 드러낸 뒤 어부의 노래를 제시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①은 화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글쓴이는 선비들이 ㉠을 통해 걱정을 잊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을 계기로 선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② ㉠은 걱정을 잊게 한다는 점에서 (나)의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재이며, ①은 자연 속에 머무는 ‘어부’가 부른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과 관련된 소재이다.

③ (가)의 화자가 시름을 드러낸 후 어부가 부른 노래에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다는 것과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는 내용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①은 화자가 느끼는 시름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의 글쓴이는 선비들이 ㉠을 통해 걱정을 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은 대상의 내면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④ ①은 (가)의 화자가 시름을 드러낸 후 어부가 부른 것으로, 화자는 ㉠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며 ㉠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을 계기로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군자는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행동하며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나)의 글쓴이는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상태를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여기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해 ‘한 글자에 의지’하며 근심을 잊으려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보기>의 관점에서 볼 때 글쓴이가 근심을 잊기 위해 노력한 것은 그 처한 위치에 따라 행동하는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려야 한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풍파를 겪을 때마다 이를 이겨 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가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역경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한 것이므로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과 관련 있지만, 글쓴이가 자신을 바르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사지 않았다는 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하여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다. 이는 위험한 것을 행하는 소인의 행태를 경계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글쓴이는 ‘마음에서 잇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걱정을 잇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라고 하며 ‘평소 학문에 힘쓰고 사색하여 이해 함으로써 걱정을 잊으려고 노력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가 걱정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고 한 점은 (나)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보기>에 따를 때 군자는 빈천한 처지에서는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손님’은 ‘나’에게 ‘임당의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걱정하지 않는 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며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였다.
- ② 글쓴이는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하여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며 본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 ④ 글쓴이는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⑤ 글쓴이는 근심을 잊기 위해 '아침에도 잊고 저녁에도 잊고 밤에도 잊고 앉아도 잊고 누워도 잊'는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 '시비와 영욕을 모두 잊'으려 '술을 마시고 걱정을 잊고자' 한 '당개'의 예를 들고 있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의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북방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대궐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작가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며, '평생 먹은 뜻'과 달리 현재의 상황을 '시운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 먹은 뜻'을 떠올리는 것에는 작가가 북방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북방 이십여 주에' '치병 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신 데 '망극한 성을 갚을 일이 어렵'다는 것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북방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 임금의 은혜라고 여기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의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쥐고' 돌아서서 '만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있었'다는 것에는 경성의 관리로 임명되어 자신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의 '한 걸음을 땀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였다는 것에는 작가가 학문에 힘쓰고 사색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유배지에서의 역경에 대처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가)의 '대궐을 홀로 떠나'면서 '적객은 무슨 죄인고'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을 적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북방인 임지로 가야 하는 데 따른 서러움을 표출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의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 북경보다 훨씬 멀'다는 것에는 외딴 지역인 북방으로 유배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11~14] 현대 소설**■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해제〕 이 작품은 197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던 시대에 가치관이 물질에 경도되어 버린 사람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가난을 재미 삼아 경험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 자존감이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부 부유층의 비도덕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주제 물질만능주의 세대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의 집은 산동네 셋넷집으로 이사한다. 가난을 인정하기 싫었던 어머니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맡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회피하지 않고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산다.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난 '나'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그와 동거를 시작한다. 상훈의 공장 사람이 폐병으로 쓰러지자 '나'는 상훈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예금 통장을 내어 준다. 그런데 상훈은 전 재산과도 같은 예금 통장의 잔액 전부를 인출해서 병자에게 준다. 사건 이후 '나'는 상훈을 들볶고, 말없이 한동안 가출했던 상훈은 부자집 도련님이자 대학생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가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옷을 사 입을 돈을 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잔심부름이라도 하라는 상훈을 쫓아내고 방으로 들어온 '나'는 상훈에게 자신의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존재하는 인물인 '나'로, 상훈과의 일을 겪으며 하게 된 생각과 느낀 감정 등을 고백적 진술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에서는 인물의 외양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찾을 수 없다.
- ③ 이 글에서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는다.
- ⑤ 이 글은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1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㉞은 '나'가 윤리적 차원에서 한 반성이 아니라, '가난뱅이 짓

을 장난삼아' 해 본 상훈이 가난으로 인한 '나'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부끄러운 생활'로 폄하하는 것에 '나'가 느끼는 모욕감, 자신의 가난이 희롱당하고 가난의 의미마저 도둑질당한 상황에서 느끼는 수치심 같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들 돕겠다는 상훈에게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주동자가 먼저 선뜻 돈을 내는 게 순서라고 조언하면서 공동의 예금 통장을 건넨다. 통장에 든 돈 모두를 동료에게 주어 버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고,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따라서 '나'가 ㉠과 같은 조언을 상훈에게 한 것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뿌듯함을 느꼈으리라는 것은 적절한 추론이다.

② 집을 나갔다 돌아온 상훈은 자신이 '부잣집 도련님'이자 '대학생'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를 들은 '나'는 자신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과 같은 행동을 상훈이 했던 것이 경제적 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③ '나'는 상훈의 얘길 듣고 그가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 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실에 놀라고 치욕을 느낀 '나'는 ㉢과 같은 상상을 하며, 상훈 같은 부자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조롱한다.

④ ㉣에서 '나'는 '떳떳하고 용감'했다며 '스스로 뽐내'는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오지만,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의 당당한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텔레비전 연속극'은 언젠가 '인형 옷 만드는 집 이준마'에게 들은 이야기의 화제를 회상한 것으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뭐가 하는 얘기'로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가 상훈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유사한 면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텔레비전 연속극'의 내용에 대해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 자기에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상훈에게 '나'가 느끼는 반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상훈과 '나'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기가 '텔레비전 연속극'인 것은 아니다.

② '나'의 현실이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도피한 적이 없다.

③ '어머니'는 부자들의 호강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지만, '텔레비전 연속극'은 내용상 부자들의 그런 호강과 관련이 있을 뿐 그것이 어머니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④ '인형 옷 만드는 집 이준마'는 '텔레비전 연속극'에 관해 들려주었을 뿐이며, '텔레비전 연속극'은 그녀가 '나'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교훈의 집약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1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상훈이 방학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빈민굴'을 체험했던 일을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유층이 망각하기 쉬운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해 주었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 온 자신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려 한 아버지의 의도대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게 되었기에 해 볼 만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훈은 '나'에게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고, '나'는 그가 가난마저 도둑질했다고 여긴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는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상훈에게서 치욕을 겪은 '나'는 자신이 빈곤층의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자각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댕이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는 상훈이 자신의 가난마저 흠쳐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분해서 이를 부드득 갈'게 된다. 이는 가난을 희롱한 상훈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했다고 느낀 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④ '나'는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흔아홉 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인 탐욕은 빈부 격차를 점차 확대하는 부유층의 과도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

⑤ 상훈에게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한 '나'는 방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를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5 ~ 17] 현대시

가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해제 이 작품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던 화자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곧 이해에 이르게 된다. 작품은 이와 같은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 공감의 의미를 그리고 있다.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

구성

- 1연(1~6행):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함.
- 1연(7~12행):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다다름.
- 2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복숭아나무와의 소통

나 문태준, 「가재미」

해제 이 작품은 '가재미'라는 독특한 비유를 활용하여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교감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가재미'는 가재미의 경상도 방언 표현으로, 작품에서는 죽음을 앞둔 채 힘없이 누워 있는 그녀를 '엎드린 가재미'로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과 교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 또한 '한 마리 가재미'로 나타냄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과 깊은 교감

구성

- 1, 2행: 암 투병으로 누워 있는 그녀
- 3~5행: 가재미처럼 누운 채 눈길을 주고받으며 우는 그녀
- 6~11행: 지금은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환기
- 12~16행: 죽음이 임박한 그녀와의 교감

1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멀리로 멀리로만', '눈부셔 눈부셔' 등과 같이 특정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에서 '그녀가 누워 있다', '없다는 것을 안다', '버렸다는 것을 안다'에서 '것을 안다'와 같이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청각과 촉각을 관련지어 감각의 정도를 심화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느낌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와 같이 청각과 촉각을 관련짓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각의 정도를 심화하고 있다.

② (가)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에서, 비유(의인)를 통해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외양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나뭇가지처럼 뚱뚱구부정해지던'과 같이 비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그러한 비유를 통해 대상의 외양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는 열거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는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뾰꾸기 소리며 / 가을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에서 열거의 방식이 쓰이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이 맞이할 미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는 현재형의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는 '놓는다', '쏟아낸다', '떠올린다' 등과 같이 현재형 어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행동의 진행 양상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㉓는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이 먼 곳에 닿았을 만큼의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되돌리는 데 필요했던 시간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화자가 '복숭아나무' 곁으로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㉒는 다음에 나타나는 '그래서'로 미루어 보아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이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탓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㉔는 '그녀'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죽음만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가 처해 있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㉕는 '흙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가난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난이 '누대의 가게'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멀리로만 지나'치는 것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미적 거리가 먼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았'다는 것은 대상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이해나 교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상과 화자의 미적 거리가 보다 가까워진 상태를 보여 준다. 따라서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멀리서 알았’다는 것이 대상과 화자의 미적 거리가 이해와 교감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제대로 알기 전부터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숭아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채 지나치기만 했다는 점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화자가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눕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녀’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마치 바짝 앞드린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대상에게 다가가 자신 또한 ‘그녀’처럼 ‘한 마리 가재미’가 되어 ‘눕는’다는 점에서 공감과 위로에 기반한 관계 설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그녀’의 곁에 ‘나란히 눕는’ 것은 ‘그녀’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위로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자를 위해 자신이 ‘들어와서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적셔 주는 행위는 ‘나’를 위한 ‘그녀’의 배려와 연민을 내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교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음’을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피상적인 모습을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이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감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가 보내는 ‘눈길’에 ‘그녀’가 ‘눈물을 쏟아’ 내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화자와 대상 사이의 미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312~328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③	08 ③	09 ①	10 ④
11 ①	12 ③	13 ③	14 ⑤	15 ①
16 ③	17 ⑤			

[01~04] 고전 산문

■ 박지원, 「호질」

해제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에 수록된 소설이다. 소설 속 북곽 선생은 도학이 높고 인격이 고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동리자는 수절 과부로 절행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다. 동리자의 다섯 아들은 모두 성이 달랐다 하는데, 이는 동리자가 음탕한 여인임을 드러낸다. 북곽 선생과 동리자는 밀회를 나누다 동리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데, 이를 통해 북곽 선생의 위선적 면모가 드러난다. 북곽 선생은 온몸에 똥을 칠하고 호랑이에게 질책을 당하는데, 소설의 마지막 순간까지 농부 앞에서 허세를 부린다. 유학자이자 선비임을 자처하는 북곽 선생의 위선과 아침,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호랑이의 꾸짖음을 통해 고발하는 작품이다.

주제 유학자를 자처하는 양반의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고을에 도학으로 이름난 북곽 선생이 동리자라는 과부와 밀회를 하다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북곽 선생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 북곽 선생은 호랑이를 만나 꾸지람을 듣는다. 호랑이는 자신에게 아침하는 북곽 선생을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침, 인간의 탐욕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북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살려 줄 것을 빌다가 머리를 들어 보니 농부만 있었다. 북곽 선생은 자신이 하늘을 공경하여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 말하며 농부 앞에서 위선을 떤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곽 선생은 호랑이의 말을 듣고 난 후 ‘자리에서 떠나 앞드린 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북곽 선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호랑이를 두려워하여 비굴하게 아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곽 선생이 머뭇거리는 행동 또한 호랑이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야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곽 선생의 행동은 ‘호랑이의 말을 따르고 싶어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북곽 선생은 과부 동리자와의 밀회가 발각되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 귀신의 흉내를 내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북곽 선생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④ 북곽 선생은 호랑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다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를 ‘천한 신민’으로 낮추며 호랑이에게 ‘감히 하품에만 있을 따름’이라고 답하고 있다. 북곽 선생은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기색을 살피고 있는데 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서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자신을 본 농부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호랑이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호랑이는 ‘헌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통해, 인간에게 공이 있는 ‘말이나 소’의 목숨을 그렇지 않은 ‘노루나 사슴’의 목숨보다 중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부분이 ‘말이나 소’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노루나 사슴’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대비를 통해 은혜가 있는 동물들을 저버리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배은망덕함은 바로 이어지는 ‘그런데도 그 태워 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 뿔이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더구나.’에서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드러내는 태도’가 대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호랑이는 다양한 ‘형구’를 만들어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형구’가 부족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악한 짓거리를 계속해서 벌이고 다니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호랑이는 ‘국열’을 예로 들어,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을 즐기려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④ 호랑이는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 가는 인간이란 족속이야말로 ‘도적’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의를 해치며 욕심을 부리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호랑이는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쉽게 유혹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호랑이처럼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천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자만심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㉔의 ‘이 병기’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쓰는 ‘붓’을 뜻한다. 작

가는 ‘창’, ‘칼’, ‘검’, ‘극’, ‘화살’, ‘활시위’의 속성에 빗대어 누군가를 참조하는 글의 가혹함을 부각하고 있다. ㉔의 ‘창’, ‘칼’, ‘검’, ‘극’, ‘화살’, ‘활시위’는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가 맞지만, ‘붓(이 병기)’은 전쟁에 직접 동원되는 무기가 아니며,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해 언급한 소재도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 언급된 ‘덧과 함정’ 그리고 다양한 ‘그물’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들이기 위해 인간이 만든 도구로, 작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낸 인간의 욕심이 다른 생명을 위협하고 천하에 화를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② ㉔에 언급된 ‘바늘’, ‘창’, ‘도끼’, ‘작은 칼’, ‘포’, ‘창’ 등은 ‘덧’이나 ‘함정’, ‘그물’과 달리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구이다. 작가는 ㉔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잔학한 물건을 서슴지 않고 만들어 내는 인간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다.
- ④ ㉔에는 다양한 ‘그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고 ㉔에는 다양한 ‘창’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의 어질지 못한 마음이 잔학한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⑤ ㉔에서 작가는 ‘이 병기’의 속성을 ‘창’, ‘칼’, ‘검’, ‘극’, ‘화살’, ‘활시위’ 등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내면서, ‘이 병기’ 즉 ‘붓’이 많은 인간의 목숨을 실제로 해쳤음을 드러내고 있다. ‘붓’으로 남을 참조하거나 모함하는 글을 쓰면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해칠 수 있음을 들어, ‘이 병기’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04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A]에서 북곽 선생은 호랑이를 두고 ‘그 이름을 신훈과 나란히 하시니,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신다고 추켜올리며 그 신이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B]에서 호랑이는 ‘가족의 아름다운 문양’이나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 등 자신의 외양이나 자신이 사냥한 것을 나누어 먹는 행동,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모습 등을 제시하여 호랑이가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성품 또한 뛰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북곽 선생은 호랑이를 두고 ‘대인’과 ‘제왕’까지 본받지는 존재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맞지만, [B]에서 호랑이가 포악한 성질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에 나열된 짐승들은 오히려 호랑이가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③ [A]에서 북곽 선생은 호랑이를 존귀한 존재로 추켜올리면서 자신을 ‘천한 신민’으로 칭하고 있다. [B]는 호랑이의 행동을 중심으로 호랑이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북극 선생은 호랑이의 변화, 걸음걸이, 효성, 위세 등을 예찬하고 있다. [B]의 경우 호랑이가 자신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호랑이가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는 북극 선생이 한 말로 호랑이의 겸손한 태도를 부각한 것이 아니다. [B]에는 자신의 성품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며 타당성을 높히려 한다는 점에서 호랑이의 거만한 태도가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05 ~ 10] 갈래 복합

ㄱ 오장환, 「여수」

해제 이 시는 방랑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현실의 답답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암담하고 고달픈 현실과, 그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회한이 마음의 안식으로서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참신한 비유와 상징, 애상적인 어조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객지에서 느끼는 시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여수에 잠겨 현실에 절망하며 추억을 떠올림.
- 2연: 현실을 모른 채 살아온 삶에 대한 자책과 회한
- 3연: 괴로운 행려 속 고향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

ㄴ 이수익, 「방울소리」

해제 이 시는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꿀을 먹인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의 여름날 저녁을 떠올린다. 바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일상과 달리 소 방울 소리가 들리는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다.

주제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샀.
- 2연: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을 회상함.
- 3연: 시끄러운 일상에서 따스했던 고향을 그리워함.

ㄹ 전혜린, 「먼 곳에서의 그리움」

해제 이 작품은 새해를 맞아 먼 곳에 대한 동경과 기대라는 자신의 소망을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체형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보다는 공상을 바탕으로 한 사변적인 언어로 자신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낯선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런 욕망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삶의 에너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새해의 소망으로 꿈꾸는 먼 곳에서의 그리움

구성

- 1~3문단: 동경과 기대에 대한 간구
- 4, 5문단: 먼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욕망
- 6, 7문단: 불확실성이 내재된 계획이 주는 찬란함
- 8문단: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

0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는 ‘슬픈 마음이여!’, ‘어디에 있느냐!’, ‘휘저어보는 것이냐!’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나)에는 과거의 고향 마을과 현재의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이 대조되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너무나, 너무나’에서 동일한 시어가, (나)에는 ‘들릴까 말까’와 같은 동일한 시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는 ‘요령처럼’, ‘주막 꿈처럼’, ‘시정배와 같이’ 등의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에는 직유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특별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고, (나)에는 현재의 도시와 과거의 고향이 과거 회상을 매개로 대비되어 제시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정서적 변화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⑤ (나)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통해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에는 상황의 가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0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요령’은 방랑의 생활을 하고 있는 화자의 부정적 처지에서 느끼는 화자의 불안정한 내면 심리를 형상화한 것이며, ‘방울’은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요령’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화자에게 위로를 주고 화자를 격려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방울’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위로 주는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화자를 격려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요령’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함축하는 사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방울’은 화자의 정서를 이끄는 매개물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함축하여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요령’은 화자의 정서적 상태를 빚댄 대상이지 화자의 처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방울’은 화자의 정서를 이끄는 매개물이지 화자의 지향을 상징하는 사물은 아니다.
- ④ ‘요령’이 화자가 정서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사물도 아니고, ‘방울’이 화자가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도 아니다.

07 내용의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먼 곳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을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보다는 먼 곳에서 보내는 삶의 모습에 대한 공상과 사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서 글쓴이가 보편적인 사고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편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선망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반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글에는 타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이 글은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일화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독자들이 삶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로, 이 시구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랑을 하고 있는 화자의 고된 처지를, 마찬가지로 방랑을 하는 존재인 ‘늙은 장돌뱅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화자가 느끼는 향수를 달팽이의 형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집시의 생활은 글쓴이가 동경하지만 현재는 이루지 못한 삶의 형태이다.
- ⑤ 삶에 대한 글쓴이의 열정을 불길에 타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09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여수’는 화자에게 희망마저 숨어 버리게 하므로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정서이고, ‘향수’는 글쓴이가 낯선 공간을 거릴 때 지니고 있고 싶은 정서라는 점에서, 느끼기를 기대하는 정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여수’는 방랑의 체험을 통해 얻은 정서이고, ‘향수’는 먼 곳에 떠나 있는 상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서이다.
- ③ ‘여수’가 화자의 현실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환기하는 정서로 볼 수 있지만, ‘향수’는 글쓴이가 실제로 느낀 정서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글쓴이가 어떠한 자부심을 보여 주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여수’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얻은 시름의 정서인지 알기 어렵고, ‘향수’는 먼 곳에 대한 동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이므로 누군가를 외면하며 얻는 정서로 보기 어렵다.
- ⑤ ‘여수’를 느끼며 화자가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여수가 심리적 이완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수’를 떠올리며 글쓴이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수는 심리적 긴장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은 설의적인 것으로, 뒤이어 나오는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 현실에 대한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나)의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라운데’는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것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무지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화자가 자신이 지내 온 현실을 뒤돌리고 왜곡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가 ‘추억이 무성한 숲속’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 그날의 소년’은 화자의 유년 시절 모습으로, 화자가 과거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은 글쓴이의 바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글쓴이가 낯선 공간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의 ‘들릴까 말까’는 들릴지 안 들릴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의 의문형으로 진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이 되

는 고향과 고향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 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에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의문형의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 14] 현대 소설

■ 염상섭, 「삼대」

해제 이 작품은 192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의 삼대(三代)가 겪는 갈등을 통해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조부 조 의관은 봉건적 가치를 고수하며 돈을 중시하는 인물이고, 그의 아들 조상훈은 외국 유학을 다녀와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개화 의식을 지녔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인물이다. 손자 조덕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른 신세대이지만 어떤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들 사이의 대립을 통해 조 의관의 시대착오적 삶을, 조상훈의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조덕기와 그의 친구 병화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려 하였다.

주제 일제 강점기 한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간 갈등

전체 줄거리 조 의관은 돈을 들여 양반의 족보를 사고, 의관이라는 벼슬을 얻는다. 조상훈은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족보를 만드는 일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다. 그런데 조상훈은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지만 3·1 운동의 실패 후 허무주의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로 인해 조 의관은 자신의 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 조덕기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한다. 그사이 조 의관의 후처 수원집과, 그녀를 조 의관에게 소개해 준 최 참봉은 재산을 빼돌릴 생각에 유서를 변조하고 모략을 꾸민다. 그러다 결국 조 의관이 죽게 되자 재산 문제를 둘러싼 집안의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나 덕기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원집 일행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다 사회주의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된다.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막막해한다.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중략」 이전의 제사 장면에서는 상훈의 시점

에서 그가 부친과 갈등하며 했던 생각과 느꼈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또 「중략」 이후 상훈과 덕기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덕기의 시점에서 그가 부친과 갈등하며 했던 생각이나 느꼈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전지적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 작품은 일어난 사건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을 띠고 있을 뿐, 현재 이야기 속에 과거 이야기가 삽입되는 액자식 구성은 아니다.
- ③ 이 작품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성격을 드러낼 뿐,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④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정 공간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지 않고, 그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작품은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할 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차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내가 상훈에게 경애가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 헤어질 리가 있겠냐며 따져 묻자, 상훈은 도리어 아내에게 무슨 상관이나고 화를 내고 있다. ‘이혼해 달라면 이혼해 주마’라고 한 것은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한 말이지 경애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덕기의 모친은 아들을 보면 경애를 만난 일에 대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였다. 덕기가 경애를 만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 ② 할아버지의 소실인 수원집은 경애 모녀와 동향으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덕기는 수원집으로부터 경애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
- ④ 덕기는 부친에게 경애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허물을 저편에 들썩우고 발을 빼시려고’ 한다고 여겼고, 이에 대해 부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 ⑤ 상훈의 부친은 만일 앞으로 15년을 더 사는 동안 아들이 또 생긴다면 그 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1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그 추측’은 취중에 덕기 자신이 경애를 만난 사실을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그 추측이 옳았다’는 것은 덕기와 경애의 만남이 모친과 부친에게 알려진 것이 아내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는 것은 표현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 말을 하는 상훈의 실제 마음은 부친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② 평소 부친이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오늘도 그 말을 하자 상훈은 이전에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부친이 했던 말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④ 덕기 모친이 남편에게 경애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를 드러낸 것으로, 덕기 모친은 남편이 수월집과 싸운 일로 꾸짖자 그에 대한 반발로 남편의 약점인 경애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다.
- ⑤ ‘뒷갈망’은 부친이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일은 부친이 경애와 그녀의 자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안다고 주책없이 할 소리 못 할 소리 기탄없이…….’라는 말은 상훈이 경애와 관련하여 자신의 처신을 비난하는 덕기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상황이다. 이는 상훈이 개인적 치부를 들춰내려는 자식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덕기가 여러 가치관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지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타인의 합리적 사고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상훈의 모순된 태도를 드러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친은 상훈이 학교 사업을 중시하지만 실상은 학교 사업을 명목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그의 이중적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 ② 상훈은 산소를 정비하는 데 돈을 쓰려는 노친에게 서원과 유생을 언급하며 그가 고루한 봉건적 사고 의식을 지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③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는 자신이 죽어도 원하는 전통적 장례를 상훈이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노친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너는 인제는 남 된 셈만 쳐라.’는 그런 상훈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노친이 선언한 것이다.
- ④ ‘아버지가 하신 일’은 제자인 경애와 연애를 하여 자식까지 낳은 상훈이 자기 체면을 위해 경애 모녀와 그녀의 자식까지 외면해 버리려는 행위이다. 덕기는 부친의 이런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15 ~ 17] 고전 시가

가 이별, 「장육당육가」

〔해제〕 이 작품은 이별의 종손 이광윤의 문집에 총 6수 중 4수만 한역되어 전해지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귀양을 가게 되면서 황해도 평산에 위치한 옥계산에서 은거하였다. 현실 정치의 풍파로 작가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작품에는 세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한편,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주제 세속적 가치에 대한 비판과 자연에서의 삶 지향

구성

- 제1수: 자연과 물아일체가 된 삶
- 제2수: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 제3수: 세속적 공명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 제4수: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권계

나 신지, 「영언십이장」

〔해제〕 이 작품은 송호강 절벽 위에 반구정을 짓고 처사로서의 삶을 사는 작가가 강호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시가이다. 작품에는 향촌에 머물며 살아가는 작가의 삶이 반영되어 반구정 주변의 풍광과 흥취가 주로 드러나 있다. 작가는 향촌 사족으로서 은거 생활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제 반구정 주위의 풍경과 흥취

구성

- 제1수: 반구정 주위의 풍경과 자연과의 교감
- 제2수: 반구정에서의 흥취
- 제6수: 강호에서의 생활을 통한 속세와의 거리감
- 제7수: 삶에 대한 달관적 태도
- 제11수: 자연의 이치를 닮고자 하는 삶의 자세

1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에서 화자는 자신과 ‘백구’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이 둘을 가려낼 수 있는 ‘해옹’을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해옹’에 대해 각각 구별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분간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에서 ‘연하’는 화자가 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다.
- ③ (나)에서 ‘탁영가’는 화자가 이를 통해 잠에서 깬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태가 변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에서 ‘네 귀를 씻은 샘’은 화자가 피하고자 하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에서 ‘옥계산’은 화자가 ‘흐르는 물’이 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공간이다.

(나)의 ‘반구정’ 또한 화자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공간이다.

⑤ (가)에서 ‘백구’는 화자와 서로 ‘누군지 모’른다는 점에서 화자와 동질감을 지닌 존재일 뿐 화자의 좌절감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나)의 ‘백구’ 역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로 화자는 백구를 보며 ‘벗’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화자의 좌절감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반구정 주위의 공간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지만, 공간에 대한 현재의 경험을 드러낼 뿐 과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내 이미 백구 있고’와 ‘백구도 나를 잊네’가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화자와 ‘백구’가 서로를 잊었다는 점에서 화자가 백구에 느끼는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붉은 잎 산에 가득’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빈 강’이라는 점에서 자연 속에서의 한적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팔 베고’, ‘물 마시고’, ‘반구정에 누웠’다는 점에서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연하로 집을 삼고 구로로 벗을 삼’으면서 보내는 전원 속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만고청’과 ‘주야류’에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산이 늘 푸르다는 것과 물이 늘 흐른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자연물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에는 세상 사람들이 ‘청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처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나)의 ‘청탁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에는 ‘청탁’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속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에는 강호에서 낚시하는 자신과 ‘세상에 득 찾는 무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는 자신이 속세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준다.

② (나)의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에는 ‘산수’와 같이 되고 싶다는 지향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닦아 ‘그치지 말’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③ (가)의 ‘공명은 해진 신’에는 ‘공명’이 닳아서 떨어진 신에 비유되어 있다. (나)의 ‘세상의 부귀공명은 현 신’에는 ‘공명’이 낡은 신발에 비유되어 있다. 이처럼 (가)와 (나)의 작가는 모두 공명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자연 속에 머물며 세속적 가치에 미련을 두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④ (가)의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랴’에는 강호에서 낚시하며 느끼는 흥취가 드러나 있다. (나)의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에는 반구정 일대의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흥취가 드러나 있다.

[수록 글 출처]

- 『전수석 현대어본』, 임치균·임정지 옮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1), P. 36~38, 40~43
- 『청백운 현대어본』, 임치균·임정지 옮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5), P. 171~176

한눈에 보는 정답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01 ② 02 (1)○ (2)× (3)× (4)○ 03 ㉠: 해, ㉡: 달밤, ㉢: 청산, ㉣: 눈물 같은 골짜기, ㉤: 아무도 없는 들
2강	시의 내용 01 ㉠,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만 점층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02 ㉠: 안타까움, ㉡: 이별 / 헤어짐 03 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01 (1)○ (2)× (3)○ 02 ⑤ 03 이 작품은 이념 대립의 양상이 가족 공동체 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6·25 전쟁을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할머니의 자식인 삼촌은 빨치산이 되고 외할머니의 자식인 외삼촌은 국군이 된 상황에서,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자 외할머니가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01 ③ 02 ㉠: 구제하기(구하기, 구원하기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문맥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 ㉡: 농락하기(희롱하기, 조롱하기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문맥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 03 ⑤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01 ③ 02 ⑤ 03 ㉠: 수재 연금 마련을 위한 기부, ㉡: 경제적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01 ④ 02 ③ 03 ㉠: 춘추 오패, ㉡: 고려 말엽의 여러 임금들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01 (1)○ (2)× (3)○ 02 ㉠: 옥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정리하는 모정, ㉡: 전근대적 인습을 의식하면서 재혼의 욕망을 억누르려는 마음 03 ⑤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01 (1)○ (2)× (3)× 02 ⑤ 03 ⑤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01 (1)○ (2)○ (3)× 02 ④ 03 ㉠: 인격, ㉡: 인권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01 ③ 02 ② 03 ④	현대시	01	01 ① 02 ② 03 ④
	02	01 ⑤ 02 ④ 03 ④		02	01 ③ 02 ⑤ 03 ④
	03	01 ④ 02 ⑤ 03 ④		03	01 ⑤ 02 ③ 03 ⑤
	04	01 ⑤ 02 ⑤ 03 ①		04	01 ② 02 ⑤ 03 ⑤
	05	01 ⑤ 02 ② 03 ②		05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6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6	01 ④ 02 ⑤ 03 ⑤
	07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7	01 ② 02 ④ 03 ④
	08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8	01 ③ 02 ③ 03 ④
	09	01 ⑤ 02 ④ 03 ②		09	01 ⑤ 02 ③ 03 ①
	10	01 ③ 02 ⑤ 03 ④ 04 ②		10	01 ③ 02 ④ 03 ④ 04 ③
	11	01 ② 02 ③ 03 ③		11	01 ⑤ 02 ⑤ 03 ④ 04 ⑤

고전
산문

01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2	01 ③ 02 ① 03 ② 04 ③
03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4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5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6	01 ⑤ 02 ④ 03 ② 04 ②
07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8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9	01 ⑤ 02 ⑤ 03 ② 04 ③
10	01 ③ 02 ④ 03 ④ 04 ③
11	01 ⑤ 02 ③ 03 ② 04 ②

현대
소설

01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2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3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4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01 ④ 02 ① 03 ③ 04 ②
06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7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8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9	01 ④ 02 ③ 03 ③ 04 ①
10	01 ④ 02 ③ 03 ⑤ 04 ②
11	01 ⑤ 02 ④ 03 ③ 04 ④

극·수필

01	01 ② 02 ③ 03 ④ 04 ①
02	01 ① 02 ⑤ 03 ③
03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4	01 ② 02 ⑤ 03 ⑤
05	01 ④ 02 ④ 03 ① 04 ①
06	01 ③ 02 ⑤ 03 ⑤
07	01 ③ 02 ③ 03 ②
08	01 ⑤ 02 ④ 03 ③ 04 ②

갈래
복합

01	01 ⑤ 02 ① 03 ④ 04 ④ 05 ⑤
02	01 ⑤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⑤
03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④
04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③
05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③
06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③ 06 ③
07	01 ① 02 ⑤ 03 ① 04 ③ 05 ① 06 ③
08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9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⑤
10	01 ⑤ 02 ③ 03 ① 04 ③ 05 ④ 06 ④
11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⑤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⑤ 08 ⑤ 09 ③ 10 ④
11 ④ 12 ④ 13 ⑤ 14 ① 15 ③ 16 ③ 17 ②

2회

01 ③ 02 ③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③ 08 ③ 09 ① 10 ④
11 ① 12 ③ 13 ③ 14 ⑤ 15 ① 16 ③ 17 ⑤